

연구보고서	2007-08
-------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서비스업 고용

허재준 · 서환주 · 이영수

책머리에 부쳐

압축성장이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다시피 한국경제는 지난 40여 년 간 경제발전 과정에서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90년대의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특징은 정보화와 서비스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화(tertiarization) 현상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고, 한국경제 서비스화의 특성을 발견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며, 한국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서비스업의 발전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은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을 생산과 고용의 양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경제 서비스화의 특징을 정리한다. 제3장은 서비스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장이다. 제4장은 서비스무역 특화지수를 분석하고 OECD국가의 서비스업 경쟁력 유형을 분류한 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문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발전 진로를 모색한다. 마지막 결론의 장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한편 그 정책적 함의와 함께 서비스업의 발전 진로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본원의 허재준 박사와 더불어 한양대학교의 서환주 교수와 항공대의 이영수 교수께서 성심 어린 기여를 해주셨다. 본원의 연구자들은 KII 정례세미나에 참가하여 유익한 논평을 주었으며, 익명의 논평자들은 본 연구서의 오류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익한 평가를 해주셨다.

본고의 마지막 편집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문숙 연구조원, 꼼꼼한 편집과 교정으로 많은 오류를 바로잡아 준 출판팀의 정철 전문

위원과 박찬영 선생이 없었다면 독자들이 본 연구서를 읽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인내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서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2007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 영 기

목 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	---

제1장 서 장	1
---------------	---

제2장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과 특성	5
-----------------------------	---

제1절 서론	5
--------------	---

제2절 고용의 서비스화 현황	12
-----------------------	----

제3절 생산의 서비스화 현황	20
-----------------------	----

제4절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특징	27
-------------------------	----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35
-----------------------	----

제3장 한국경제 서비스화의 결정요인	40
---------------------------	----

제1절 서비스화에 관한 기존 논의들	40
---------------------------	----

제2절 서비스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살펴본 서비스화 결정요인	45
--	----

1. 추정모형 및 자료	45
--------------------	----

2. 추정 결과	47
----------------	----

제3절 고용의 서비스화 결정요인	57
-------------------------	----

1. 추정모형의 도출	57
-------------------	----

2. 추정모형 및 자료	60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67
 제4장 OECD 국가의 서비스업 경쟁력 분석을 통한 한국 서비스업 발전 진로 모색	76
제1절 서론	76
제2절 우리나라 및 세계의 서비스교역 현황	78
1. 이용한 자료	78
2. 세계 서비스교역 현황	79
3. 우리나라 서비스교역 현황	81
제3절 특화지수를 이용한 분석	82
1.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무역수지기여(CTB)지수	82
2. 분석	85
3. 한국의 서비스업 부문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95
제4절 서비스 경쟁력 유형화와 한국의 서비스업 발전 전략에 대한 시사점	100
1. 수출경합도지수(Exporting Similarity Index : ESI)	100
2. OECD 국가의 서비스업 경쟁력 유형 네가지	102
3. 한국의 서비스업 발전 전략에 대한 시사점	105
제5절 요약 및 결론	107
 제5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20

표 목 차

<표 2- 1> 고기능직과 사무직 취업자 구성비 변화	20
<표 2- 2> 서비스업 각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 변화	23
<표 2- 3> 산출액 및 중간재 투입의 서비스재 비중	25
<표 2- 4> 서비스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구매력평가 기준	28
<표 2- 5> 제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구매력평가 기준	29
<표 2- 6> 서비스업 각 부문의 취업자수 비중 변화: 1993~2005	31
<표 2- 7> 서비스업 각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 변화: 경상가격, 1990~2005	31
<표 2- 8> 서비스업 각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 변화: 불변가격	31
<표 2- 9> 연평균 성장률, 취업자수 증가율, 생산성증가율	33
<표 2-10> 산업별 물가상승률 추이	35
<표 3- 1> 분석에 사용된 자료 요약	47
<표 3- 2> 서비스산업의 비중과 1인당 GDP: 차분 GMM 추정 결과	50
<표 3- 3> 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결과: 차분 GMM 추정 결과	50
<표 3- 4> 통제변수를 고려한 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결과: 서비스업 전체	51
<표 3- 5> 통제변수를 고려한 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결과: 생산자서비스	52
<표 3- 6> 통제변수를 고려한 서비스 수요함수 추정결과: 개인서비스	53
<표 3- 7> 통제변수를 고려한 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결과: 유통서비스	54

<표 3- 8> 통제변수를 고려한 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결과 :	
사회서비스	55
<표 3- 9> 분석에 사용된 자료 요약	62
<표 3-10> Elfring(1989)의 서비스산업 분류에 기초한	
고용비중 변화 결정요인 추정 결과	65
<표 3-11> D'Agostino, Serafini and Ward-Warmedinger(2006)의	
서비스산업 분류에 기초한 고용비중 변화 결정요인	
추정 결과	66
<표 3-12> 이공래 · 박재민 · 황정태 · 김은경 (2002)의	
지식산업 분류에 기초한 고용비중 변화 결정요인	
추정 결과	67
<부표 3-1> Elfring(1988)의 서비스업 분류	75
<부표 3-2> Antonello D'Agostino, Roberta Serafini and	
Melanie Ward-Warmedinger(2006)의	
서비스업 분류	75
<부표 3-3> 이공래 · 박재민 · 황정태 · 김은경(2002)에 의한	
지식집약적서비스와 기타산업 분류	75
<표 4- 1> 서비스교역의 변화	80
<표 4- 2>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경제적 비중	81
<표 4- 3> 2002년 기준 범주별 무역특화지수	89
<표 4- 4> 주요 OECD 국가들의 현시비교우위 부문과 열위 부문 :	
2002년 기준	91
<표 4- 5> 2002년 기준 CTB 지수	94
<표 4- 6> 무역특화지수 변화추이의 유형화	95
<표 4- 7> 한국서비스업 경쟁력의 동태적 변화	97
<표 4- 8> 2002년 기준 수출경합도지수	102
<부표 4-1> 자료 정리	110

그림 목차

[그림 2- 1] 제조업 취업자수와 제조업 GDP	7
[그림 2- 2] 1993~2005년간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	13
[그림 2- 3] 총 취업자수에서 서비스산업 취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중	15
[그림 2- 4] 서비스산업 취업자수 비중 추이 국제비교	15
[그림 2- 5] 산업별 고용비중 추이	16
[그림 2- 6] 생산성 증가율 격차와 고용 비중의 변화	17
[그림 2- 7] 고직능직 및 사무직 취업자수 변화	19
[그림 2- 8]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1980~2005	21
[그림 2- 9] OECD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2003	22
[그림 2-10] 제조업의 중간투입에서 서비스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	26
[그림 2-11] 고용을 기준으로 측정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구조변화 속도 국제비교	27
[그림 2-12]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32
[그림 3- 1] 제조업과 서비스업 하위 10% 기업의 영업이익률	70
[그림 3- 2]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제조 전단계와 후단계에 위치한 서비스가 주요 부가가치 원천임을 보여주는 스마일곡선(Smile Curve)	72
[그림 4- 1] 서비스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86
[그림 4- 2] 한국의 운수서비스와 금융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	96
[그림 4- 3] 2002년 기준 한국과 여타 국가간의 수출경합도지수	101
[그림 4- 4] 경쟁력에 기초한 OECD국가들의 그룹화	104

요 약

본고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특성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화(tertiarization) 현상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고, 서비스화의 특성을 발견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며, 한국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서비스업의 발전방향을 진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본고는 독립된 3개의 논문으로 별개의 장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제2장은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을 생산과 고용의 양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경제 서비스화의 특징을 정리한다. 제3장은 서비스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장이다. 제4장은 OECD 국가 서비스교역 통계를 이용하여 서비스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하고 한국경제 서비스업의 발전 진로를 모색한다.

1990년대 이래 한국경제는 고용과 생산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서 서비스직능을 가진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도 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재가 증가하고 있다. 제2장은 이처럼 199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특징 중의 하나인 ‘서비스화(tertiarization)’ 현상을 고찰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내용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둘째, 1980년대 이래 서비스화의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 및 생산 비중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다. 셋째,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

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는데 그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Baumol(1967)에 의하면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에 비해 더더 서비스재의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에 따라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노동이 이동하고 서비스재 생산이 늘게 된다. 국가마다 서비스재의 소득탄력성에 큰 차이가 없다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이 더딘 나라일수록 서비스업 부문이 더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크고 생산성이 낮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특성은 이런 점에서 ‘보물의 세계(Baumol’s World)’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은 저생산성 균형에 머물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사업서비스업은 종사자만 증가하였을 뿐 생산성 향상이 매우 더뎠다. 아직 전문화가 미흡하고 제조업과 충분한 전후방 연관효과를 지니고 있지 못해 시장이 좁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을 저생산성 균형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금융·보험·사업서비스와 같은 생산자서비스와, 운송·보관·통신 등 물류서비스의 전문성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충격이 필요하다.

생산되는 서비스재가 모두 최종재임을 가정하고 있는 보물(Baumol)과는 달리 Oulton(1999)은 서비스재가 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제에서는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양(+)이기만 하면 서비스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생산자 서비스와 물류 서비스와 같이 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고되면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생산성도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가 높은 생산성과 성장률을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함수 및 고용비중 함수 추정을 통해 서비스화를 규정하는 원인이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수요편향가설)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더딘(생산성격차가설) 데 기인한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인구수뿐만 아니라 노년 부양비율과 같은 인구 구성변화 요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노동시장 구성변화 요인을 통제변수로 개입시켜 이들 변수가 서비스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와 함께 서비스업 하부부분의 고용비중 결정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가치 기준으로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경우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비스업 전체를 하나의 부문으로 두고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소득탄력도를 측정한 결과 탄력성이 단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Clark(1940) 등이 말하는 수요편향가설을 해석하고, 산업화된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을 전망하거나, 그리고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등을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함을 환기시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Clark(1940)의 가설은 경상가격으로 파악한 서비스업 비중을 염두에 둘 때에 한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가져오는 가격하락 효과를 고려하면 현재 실질가치로 평가한 제조업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질가치로 평가한 제조업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경제에서 제조업이 갖는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았고 줄지 않고 있음을 가리킨다.

둘째, 서비스는 매우 이질적인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정할 경우 서비스업의 다양성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서비스 산업을 생산, 유통, 개인 및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추정하여 보면 수요가 소득에 대하여 탄력적인 산업은 서비스업 중 생산자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이다. 따라서 Clark(1940)의 설명처럼 서비스수요의 높은 소득탄력성과 소득 증가가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었다는 가설은 생산자서비스와 개인서비스에서만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소득 증가에 따라 서비스부문이 확대된다는 Clark(1940)의 수요편향가설을 서비스업 고용비중 변화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1인당 GDP 증가를 독립변수로 하여 살펴보면 소득 증가가 서비스화를 규정한다는 클라크의 가설을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비스업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생산자서비스업 고용비중과 개인서비스업 고용비중의 소득탄력성은 매우 크다. 숙박·음식업을 포함하는 개인서비스업 고용비중의 소득탄력성은 과도하게 큰 반면 도소매업의 고용비중은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의 소득탄력성도 음(-)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숙박·음식업 수요가 소득 증가에 따라 늘어난 정도보다 과도하게 이들 부문의 고용이 비대해졌다는 점, 도소매업은 생산성 증진을 위한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부문은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그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과정에 따른 소득 증가라는 견지에서 볼 때에도 그 비중이 적절히 성장해 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직능직과 사무직이 증가하는 현상은 제조품의 형태적 변화가 일어나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보다 연구개발, 디자인, 고객관리, 소비자금융 등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제조공정 전 단계와 후단계에 위치한 서비스의 중요성과 다양성이 증가하여 전통적인 부가가치창출 비중이 스마일 곡선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술개발 동기를 촉진하려는 국제적 규범의 일반화,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 소비자의 기호 및 소비지출 구조변화, 제조공정 자체의 모듈화·전문화를 가능케 한 기술발전, 한 기업의 생산기지를 세계적 규모로 광역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같은 요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실질가치로 평가한 제조업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스마일 곡선과 같은 기업의 가치사슬 변화, 그리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초래하는 기업 현장의 변화 사례들은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는 증거들이다.

서비스재가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 경제에서는 Oulton (1999)이 규명하고 있듯이 서비스화가 진전된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률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생산성 높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높이는 일은 오히려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그리하여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경제 전반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서비스업의 확대가 생산성 저하와 성장률 저하를 가져오는 ‘보몰의 세계(Baumol’s World)’와는 달리 서비스업의 확대가 생산성과 성장률을 증진시키는 ‘울튼의 세계(Oulton’s World)’가 존재하며 그 관건은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제4장은 특화지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및 주요 OECD 국가들의 서비스무역 특화 패턴을 1990~2002년 기간에 대해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 서비스업 경쟁력에 따라 OECD 국가 유형을 4개의 군(영국형, 미국형, 프랑스형 그리고 독일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영국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보험, 금융, 통신을 핵심 산업으로 하며 여타 서비스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형은 금융부문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면서도 핵심 서비스산업이 여행,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오락문화서비스 특히

음향 영상 및 관련 서비스로서 영국형과 일정한 거리가 있다. 세 번째 프랑스 모형은 여행서비스를 핵심 산업으로 하고 다른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네 번째 유형은 독일 모형인데 상품의 경쟁력은 높으나 서비스 전반의 경쟁력이 여타 국가군에 비하여 뒤진다. 우리나라는 독일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유일하게 운수서비스업에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협소한 시장-저생산성’ 균형에 처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제약되고 있는데 이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와 같은 생산자서비스와 운송, 보관 등 물류서비스의 전문성과 시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충격은 국내보다는 해외시장 확대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왕에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운수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IT 하드웨어산업의 이점을 기초로 연관산업인 컴퓨터와 정보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IT 인프라를 기초로 금융서비스업의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방안이 서비스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아시아 고도성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시장에 진출하고, 해외 사회간접자본이나 플랜트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경주하는 전략적 노력,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신흥기업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계 기업을 국내 증시에 상장시킴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작업, 이미 크게 성장한 선물·옵션시장을 교두보로 활용하여 중국 및 동남아 기업들의 선물·옵션거래를 한국에서 활발히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실행가능한 접근법이 될 것이다.

제조업 기업이 R&D, 디자인, 광고 사업부분의 분리를 통해 자

신의 모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 법률 법인이 대형화 내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법률은 물론 회계·세무 및 시장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중소기업의 경우 협회 및 정부지원을 부가하더라도 해외시장의 경우 KOTRA와 수출입은행의 자료, 정보, 지식 및 전직 직원을 네트워킹하고, 시장 조사와 회사 설립·조세·노동법에 관한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을 유도하는 것, 호텔·여행서비스·통/번역 그리고 국제회의 코디네이션 전문서비스 기업들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전문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 등은 기업가들과 기업 활동을 보조하는 정부가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바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면 생산성과 성장의 선순환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제 1 장

서 장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서비스재 수요가 늘어나 서비스업이 확대된다는 Clark(1940)의 고전적인 논의나 생산성 향상이 더딘 서비스업으로 노동이 이동함에 따라 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저하한다는 Baumol(1967)의 논의는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서비스업 비중 추이를 보고 얻은 직관에 의거한 논의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재가 최종재로만 사용될 때만을 전제로 하여 도출한 결론들이기도 하다.

Summers(1985), Falvey and Gemmel(1996) 등은 실질가치로 측정된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확인함으로써 서비스재의 소득탄력성이 탄력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추세 그림이나 추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Oulton(1999)은 서비스재가 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양(陽)이기만 하면 서비스부문의 확대가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경상가격으로 평가할 때에는 OECD 국가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한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실질가치로 평가한 제조업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제조업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발전이 반드시 성장률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생산성 높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높이는 일은 저성장의 고착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그리하여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경제 전반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적을 불문하고 세계적 브랜드와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기업들은 자신의 체질을 서비스화하면서 작업장은 해외나 국내 업체들에 아웃소싱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표준화된 제조공정이나 표준화된 기술에 기초한 생산 행위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제조공정은 모듈화·전문화하여 아웃소싱하는 한편, 연구개발이나 사후관리, 소비자금융, 엔터테인먼트 등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와 고수익을 거두는 쪽으로 기업 활동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제조업 내의 사무직 비중을 증가시킨 요인이기도 하고 경제 내에 서비스업을 확대시킨 요인이기도 하다. 제조업이 축소하는 탈제조업 현상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조업을 유지하고 관련서비스를 강화하는 현상을 제조 과정을 뛰어넘은 새로운 제조업을 구축하는 이러한 현상을 혹자는 초(超)제조업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1990년대 말 이래 통신기기를 바탕으로 통신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정보기기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차별화시키며, 새로운 의료기기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전통적 제조업부문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확대되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과 관련서비스업의 선순환 관계 속에서 미국 경제가 호황을 이룬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통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OECD 국가에서는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에 속한다. 2003년에 3.4%의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자영업자의 축소 때문이었다. 당시 임금근로자는 오히려 1.6%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어려운 자영업 경영환경으로 인해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영업은 주로 서비스업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자영업의 구조조정은 서비스업 구조조정 과정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은 고급과 저가서비스로 소비 유형이 양극화하고, 첨단기업이나 국가의 전략적 컨설팅과 같은 첨단서비스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부터 수입되며, 교육과 관광에서 외국 서비스가 국내 서비스를 대체하거나 혹은 증가하는 서비스가 외국에서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만 나타나는 현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서비스업과 서비스업 고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서비스업 현황을 규정해 온 요인은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 모두에 대한 배려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고는 그러한 문제 의식하에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특성 중의 하나인 서비스화(tertiarization)의 현상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고, 서비스화의 특성을 발견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며, 한국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서비스업의 발전방향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고는 3개의 논문으로 장을 구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2장은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특징 중의 하나인 ‘서비스화’ 현황을 생산과 고용의 양 측면에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단하고 한국경제 서비스화의 특성을 정리한다. 제3장은 서비스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장으로서, 우리나라 서비스재 수요함수 및 고용비중함수 추정을 통해 서비스화를 규정하는 원인이 경제발전에서 따른 소득 증가(수요편향가설)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더딘(생산성격차가설) 데 기인한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제4장은 OECD 국가 서비스교역 통계를 이용하여 서비스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하고 한국경제 서비스업의 발전 진로를 모색해 본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①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 ② 1980년대 이래 서비스화의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 및 생산 비중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며, ③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는데 그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① 실질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해 왔다기보다는 제조업 수요가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한국경제에서 제조업이 갖는 중요성이 적어도 아직까지는 줄지 않고 있다는 점, ② 서비스는 매우 이질적인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을 고찰하고자 할 때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서비스업 안의 다양성을 간과하게 된다는 점, ③ 숙박·음식업 부분의 고용은 그 서비스재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비대해졌고, 도소매업은 생산성 증진을 위한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 부문은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그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과정에 따른 소득 증가라는 견지에서 볼 때에도 그 비중이 적절히 성장해 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④ 고직능직과 사무직이 증가하는 현상은 제조품의 형태적 변화가 일어나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보다 연구개발, 디자인, 고객관리, 소비자금융 등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기인한다는 점을 LG, 삼성, 소니, GE, 현대와 같은 기업 사례에 비추어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OECD 국가의 서비스업 교역 패턴을 분석한 후 서비스 전반의 경쟁력이 여타 국가군에 비하여 뒤진 우리나라는 독일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운수서비스업에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협소한 시장-저생산성’ 균형으로부터 탈출하여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와 같은 생산자서비스와 운송, 보관 등 물류서비스의 전문성과 시장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충격은 국내보다는 해외시장 확대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적절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한 가지 전략적 접근법은 기왕에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운수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IT 하드웨어산업의 이점을 기초로 연관산업인 컴퓨터와 정보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IT 인프라를 기초로 금융서비스업의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방안이 서비스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임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과 특성

제1절 서론

1990년 이래 제조업 취업자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취업자수 비중 뿐만 아니라 제조업 취업자의 절대수도 경향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부가가치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 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그림 2-1 참조).¹⁾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1990년 이래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외환위기 이후와 최근에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외환위기 전에 국내총생산의 11% 이상을 생산하던 건설업이 극심한 침체와 회복을 거침에 따라 나타난 착시 현상이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합하여 부가가치 생산 비중을 계산해 보면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데서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축소는 한국경제 서비스화와 동전의 표리를 이루는 한 측면이다. 즉 제조업이 축소하고 서비스업이 팽창하는 것은 1990년 이래 한국경제 구조변화 과정의 중요한 특징이다.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끊임

1) 서비스업 생산 측정에는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의 문제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가격으로 평가할 때 제조업 부가가치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일의적으로 제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불변가격으로 측정하면 서비스업 생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데에서부터 이를 알 수 있다.

없이 구조변화를 겪어 오던 한국경제가 경공업 발전, 중화학공업화, 전기전자공업 및 기계공업의 발달에 이어 ‘서비스화(tertiarization)’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제조업 고용 축소를 규정하는 지배적 원인에 대한 연구로는 오준병(2005), 김종일(2006) 등이 있다. 오준병(2005)은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수요 구조변화와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 등 대내적 요인이 주원인이라고 한다. 김종일(2006)은 교역환경의 변화가 급속한 구조변화를 초래했고 그로 인해 안정적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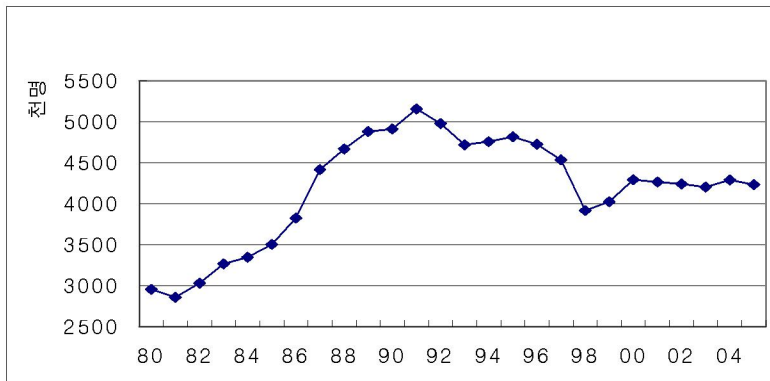
Baumol(1967)에 의하면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에 비해 더더 서비스재의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에 따라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노동이 이동하고 서비스재 생산이 늘게 된다. Feenstra-Hanson(2001)은 저직능노동(low-skilled labor) 집약적 공정이 국외로 아웃소싱되거나 저직능노동 집약적 생산부분의 자본이 외국에 투자를 함으로써 고직능노동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남을 보이고 있다. 반면 Berman-Bound-Griliches(1994), Autor-Katz-Krueger(1998), Berman-Bound-Machin(1998) 등은 고직능노동 수요 증가가 ‘고직능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ical progress)’에 기인함을 규명하고 있다.

사실 1990년 이래의 우리나라 서비스화에는 소득 증가에 따라 서비스재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촉진된 적극적 측면과 함께, 중국 충격(China shock)으로 대변되는 대외교역 환경변화가 제조업 부문을 축소 시킴으로써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더욱 급속하게 나타난 두 가지 측면이 공히 존재한다. 그 외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 따라 고직능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요하게 되고 지식집약적 업종이 파생되어 취업자 구성이 서비스화하고 있는 측면들도 서비스화에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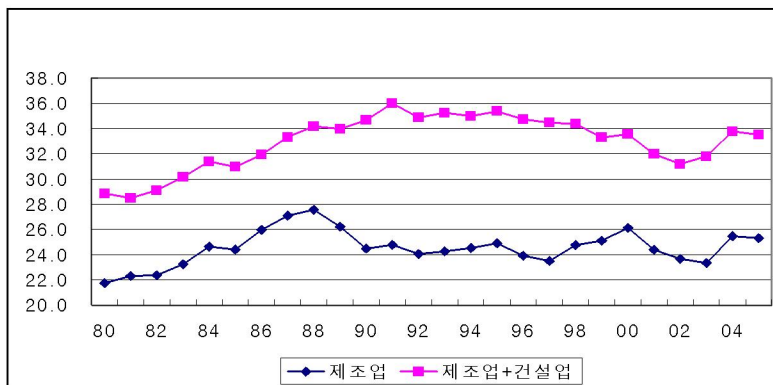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산업연간 관계를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에 아웃소싱하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대GDP 비중이 낮고

[그림 2-1] 제조업 취업자수와 제조업 GDP

(a) 제조업 취업자수



(b)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도 심하다. 즉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성과 전문성이 낮고 타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이 아직 취약하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에 서비스업의 시장 확대와 전문성 증대를 위한 충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경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히 극적이라 할 만큼 유례없이 빠른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왔다. ‘압축 성장’이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듯이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속도는 1980년대나 1990년대를 통틀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기존 산업의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기술력이 부족하여 비중이 작았던 산업이 팽창하고 다시 소위 첨단산업으로 불리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동태적 과정은 지난 40여 년간 줄곧 한국경제의 역동적 성장과정을 특징지워 왔다. 통계청이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평균 6~7년 마다 산업분류 체계를 개정하면서 7차에 걸쳐 그 분류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도 다름 아닌 한국경제의 역동적 성장 과정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주력 수출품목도 광물, 잠사(蠶絲)에서 가발, 합판, 저가의 의류·신발·가방으로, 다시 석유화학제품, 철강, 범용선박, 단순 전자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선박, 고부가가치 가전,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 거기에 이제 게임, 드라마, 음악, 영화, 그리고 기술료 등의 서비스재들이 수출에 합류하고 있다. 2005년에 서비스재의 수출은 전체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12.5%에 달했다. 수입 비중도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14.9%에 이른다. 그러나 이처럼 빠른 구조조정 과정이 제조업에서는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진행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생산성이 정체된 채 양적 확대가 주로 이루어져 서비스업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들이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차세대 반도체와 LCD 제품,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 등 일부 제조업에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해외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자동차 생산기업이 더 이상 국내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만 공장 후보지를 물색한다든지, 철강이나 조선설비도 더 이상 국내에 설비투자를 하기보다는 해외에서 공장 후보지를 물색한다든지 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모든 중소기업이 잔류나 해외이전이나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생존하는 강소기업(強小企業)들이 국내에서 하나둘씩 늘고 있는 것도 드물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기술이나 품질이 세계표준(global standard)에 도달한 기업은 구미(歐美)시장뿐만 아니라 넓어진 아시아 시장을 만끽하고 전통적 가격경쟁력

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은 중국 제품에 밀려 생산기지를 이동하거나 쇠락하고 있는 현실, 10년 전에는 웬만한 직장생활보다는 자영업이 낫다며 봉급생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업하는 사람이 많았던 반면, 이제는 소규모 사업체를 경영해서는 자신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택시기사, 대형할인점 점원으로 전업을 모색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 이러한 현상들과 함께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 국가들의 개방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이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현상은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과정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예컨대 일자리 없는 성장이 화두가 되었던 2003년의 현상에 관한 것이다. 부가가치 생산은 늘지만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은 시장 확대가 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해 일자리 없는 성장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 근처에 구조조정 과정과 같은 다른 동학이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

2003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1%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수는 0.1% 감소하여 정책담당자들과 학자들이 1980~90년대 유럽 국가들이 경험했던 일자리창출 없는 성장 현상이 한국경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의 노동시장 성적은 사실 자영업자수는 감소하고 임금근로자수는 증가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2003년에 자영업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임금근로자는 전년대비 1.6%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내실 없는 자영업 폐업을 감안하면 2003년에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임금근로 일자리에 관한 한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일자리창출이 있었다. 이로부터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기업들에서 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자영업 부문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일자리창출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신화는 구조조정 과정에 있음을 알리는 징표일 뿐이며 일반적으로 ‘성장’은 일자리창출을 수반한다.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가 중성장 기조로 변화하였지만 외환위기 이전의 고도성장기에 비해 ‘경제가 1% 성장할 때 창출되는 일자리 수

(고용의 성장탄력성)'가 감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이인재, 2006). '일자리창출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묘사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구미 OECD 국가의 서비스경제화는 이미 1970년대부터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진단을 위해 우리나라 '서비스경제화'의 특징을 OECD 국가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분석하고자 한다.²⁾

일부 저널리즘에서는 한국경제 서비스화의 한 측면을 제조업 '공동화'라고 표현하고 한국경제 쇠락의 상징처럼 묘사하기도 한다. 제조업 부문의 축소와 서비스업 부문의 확대로 요약되는 탈제조업화에 대한 우려는 학술적 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조업 축소에 관한 연구이고 제조업 자체의 서비스화에 주목하는 연구는 드물다. 제조업 축소와 서비스업 확대를 분석 대상으로 하더라도 제조업 고용의 감소와 서비스업 종사인구의 증가를 거론할 뿐 노동시장에서 서비스직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 또한 드물다.

그러나 제조업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관건이 관련서비스업을 강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기업들이 서비스업을 강화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서비스업의 시장이 확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업 자체가 서비스화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완성차 생산공정보다는 보

2) 1990년대 이래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다른 한 가지 특징으로서는 '정보화'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는 이처럼 서비스화와 정보화의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정보화도 서비스경제화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정보산업의 취업자수와 부가가치 생산비중이 증가하고 각 산업의 정보화직능 근로자수가 증가하며 중간재와 교역재에서도 정보재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보산업 활동에 대한 정의와 전통적 산업분류 체계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분류와 그에 따른 새로운 통계지표의 구성을 필요로 한다. 본고는 '정보화'가 '서비스화'와 함께 1990년대 이래 한국경제를 특징지은 현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뿐 그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하지 않는다. 정보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관한 연구로는 허재준·서환주·이영수(2002), 권남훈·김종일(2002), 서환주·허재준·전병유·이영수(2004), 서환주·허재준·이영수(2004) 등 참조.

험, 리스, 정비 부문의 부가가치가 커지고 있다. PC산업에서도 컴퓨터 조립의 부가가치가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설계기술에 기초한 핵심 부품 생산, 소프트웨어, 소모성 부품 공급과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포함하는 유지관리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커지고 있다. 단순생산 및 조립 과정의 부가가치는 낮고 연구개발, 디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가치사슬이 이처럼 변화하고 있다면 경제의 서비스화에서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 않게, 혹은 오히려 더,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측면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고에서 서비스경제화는 서비스업의 취업자수와 각 산업에서 서비스직능 근로자 구성이 증가하는 현상과 함께 생산, 중간재, 교역에서도 서비스재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제조업 자체의 활동 내용이 서비스화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1990년 이래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경제 전체와 산업별로 서비스화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한국 경제구조 변화의 과정과 특성을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서비스업 발전과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될 수 있게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본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먼저 제2절에서는 취업자수와 비중을 중심으로 고용의 서비스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서비스업 확대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한국경제가 서비스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직능을 가진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생산의 측면에서 서비스화 현상을 파악해 본다. 서비스업의 생산비중이 늘 뿐만 아니라 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재의 비중이 늘고 있는 점에 대해 살펴본다. 제4절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특징들을 정리한다. 제5절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서비스화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제2절 고용의 서비스화 현황

고용의 서비스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비스업 부분의 취업자수 증가와 경제 전반의 서비스직 증가이다. 서비스업 부분의 확대와 함께 서비스업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들 내에서도 사무직이나 고직능직이 늘고 있다.

서비스산업 취업자수의 증가

먼저 산업별 고용 증감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2-2]은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1993~2005년간 각 산업에서 일어난 고용변화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³⁾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약 130만 명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약 481만 명, 그리고 전기·가스·수도건설업에서는 약 12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제조업을 경공업, 중공업, 화학공업, 전기전자공업, 기계공업의 다섯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조업의 고용 감소는 대부분 경공업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⁴⁾ 1993~2005년간에 경공업에서 약 81만 명, 중공업에서 약 8만 명의 고용 감소가 있었던 반면, 화학공업·기계공업·전기전자공업에서는 모두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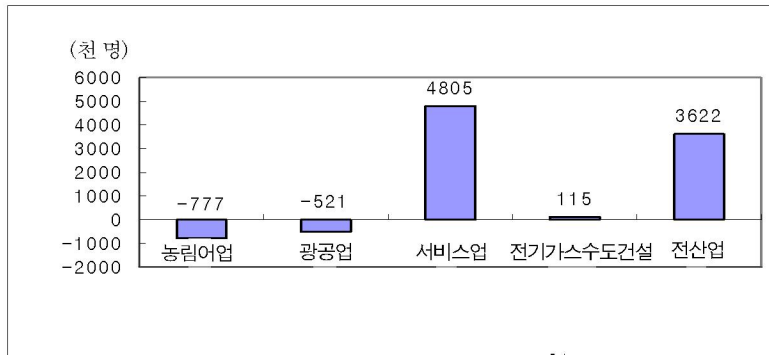
서비스업을 14개 산업대분류 수준에서 살펴보면 사업서비스업, 숙박음식업, 위생 및 기타서비스업, 교육업 고용 증가가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의 약 65%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1993~2005년간에 서비스업

3) 분석 기간을 1993년 이후로 설정한 이유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1993년을 경계로 상이한 산업분류 및 직종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1993년부터만 일관성 있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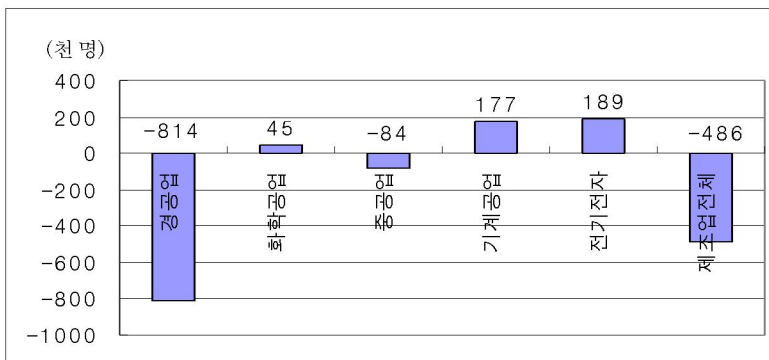
4) 경공업은 제7차 개정 산업중분류 중 15~22와 36~37, 화학공업은 23~25, 중공업은 26~28, 기계공업은 29 및 33~35, 전기전자공업은 30~32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2-2] 1993~2005년간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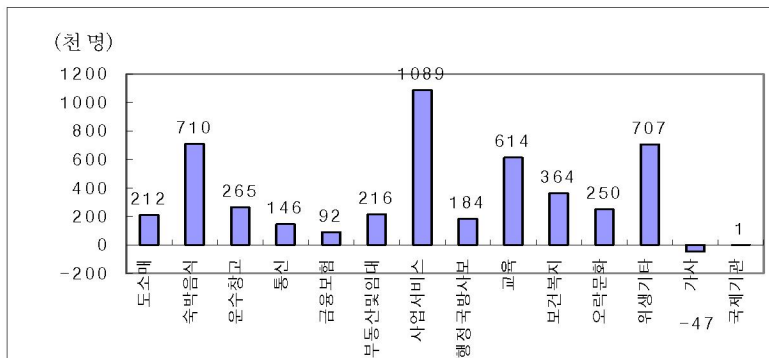
(a)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1993~2005)



(b) 제조업 취업자수 변화(1993~2005)



(c) 서비스업 취업자수 변화(1993~20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체에서 481만명의 취업자수가 증가했는데 사업서비스업에서 109만 명, 숙박음식업과 위생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각각 약 71만 명, 교육서비스업에서 약 61만 명의 취업자수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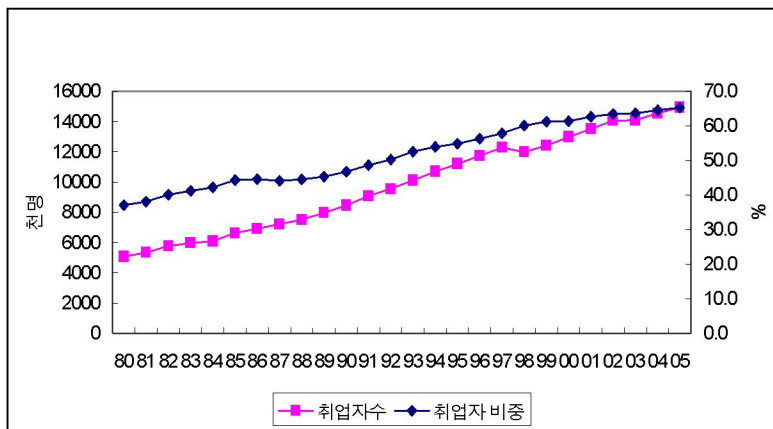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37.0%에서 2005년에는 65.2%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유일한 예외가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하였던 1987년이다(그림 2-3 참조). 2005년의 우리나라 서비스업 취업자 수 비중은 2002년의 일본·이탈리아·스페인의 서비스업 고용비중 65%와 유사한 수준이다(그림 2-4 참조).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비중 추이를 주요 OECD 국가에서의 추이와 함께 도시하고 있는 [그림 2-4]를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독일·일본·스페인·이탈리아는 물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급속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1980~2003년간에 71.3%에서 80.9%로 9.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에 24.9%포인트 증가했다. 이탈리아는 48.6%에서 66.5%로 17.9%포인트 증가하여 한국 다음으로 빠른 속도를 보였다.

서비스업 안에서도 각 부문별로 상이한 고용변화를 경험했다. [그림 2-5]는 서비스업을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의 네 범주로 나누어 1993년 이래의 산업별 고용비중 변화추이를 살펴본 것이다.⁵⁾ 서비스업 중 가장 크게 취업자 비중이 증가한 부문은 1990~2005년 기간 동안 5.2%포인트 증가한 개인서비스 부문이다. 개인서비스 부문의 취업자는 위생 및 기타서비스, 그리고 숙박음식업에서 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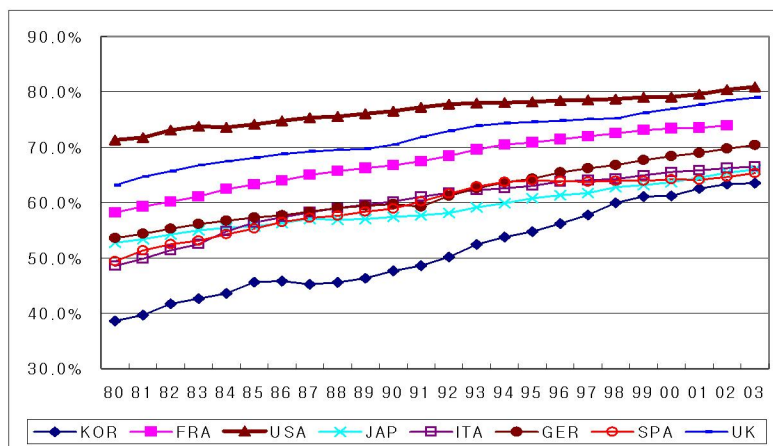
5) 생산자서비스는 제7차 개정 산업대분류 중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유통서비스는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I), 통신업(J); 개인서비스는 숙박 및 음식점업(H),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가사서비스업(S);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N), 교육서비스업(O),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외국 및 국제기관(T)으로 정의하였다. 제7차 개정 산업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면 생산자서비스는 65~75; 유통서비스는 50~52, 60~64; 개인서비스는 55, 87~88, 90~93, 95; 사회서비스는 76, 80, 85~86, 99를 가리킨다.

〔그림 2-3〕 총 취업자수에서 서비스산업 취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4〕 서비스산업 취업자수 비중 추이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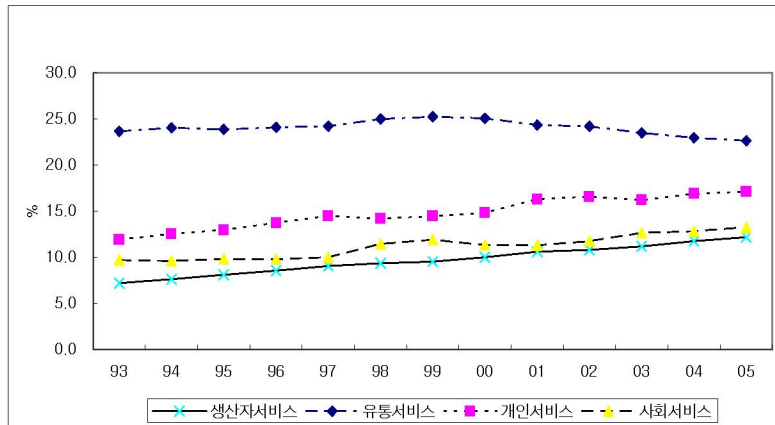
주: 독일의 경우 1990년까지는 서독, 1991년 이후는 통일독일.

자료: OECD STAN databas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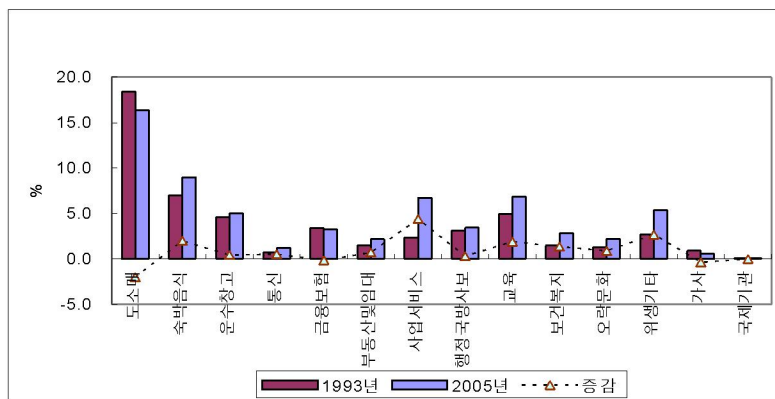
취업자수 증가가 이루어졌다. 같은 기간 생산자서비스 부문은 5.0%포인트 증가했는데 그 중 4.4%포인트는 사업서비스 종사자 증가에 따른 것이다. 사회서비스 취업자 비중이 증가한 것은 주로 보건복지와 교육서비스 취업자 증가에 기인하며 공공행정서비스인력 증가는 미미했다.

[그림 2-5] 산업별 고용비중 추이

(a) 부문별 취업자수 비중 변화



(b) 서비스업 각 부문의 고용비중 추이(1993~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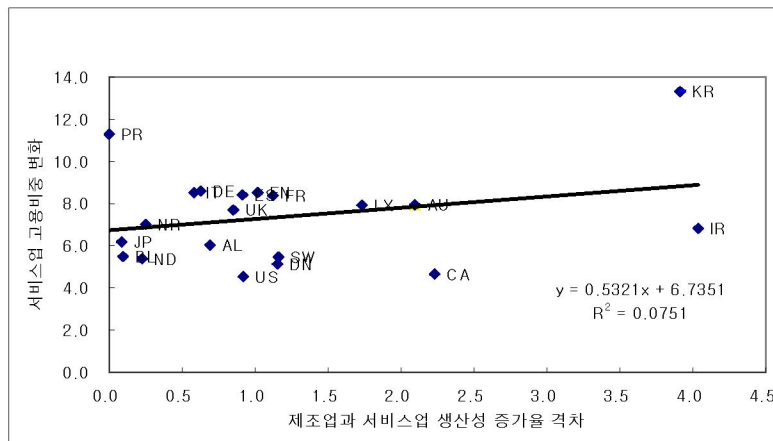


[그림 2-6]은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변화와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 격차의 상관관계를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살펴본 것이다. 1990년대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 3.9%포인트였으며 1980년대 대비 1990년대의 고용비중 변화는 13.3%포인트였다.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단순회귀 분석을 해 보면 양자 간에 유의하게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 격차가 클수록 서비스

업의 고용비중이 더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즉 소득 증가에 따라 서비스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여 서비스업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Baumol(1967)의 이론에 의하면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서비스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에 비해 더더 서비스재의 가격 상승률이 높게 된다. 그에 따라 서비스업으로 노동이 이동하고 서비스 생산이 늘게 된다. 서비스재에 대한 소득탄력성에 국가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이 더딘 나라일수록 서비스업 부문이 더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이래의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는 ‘보몰의 세계(Baumol’s World)’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구조변화의 특징은 서비스화와 정보화로 요약되는데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더뎠다는 점은 정보화가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2-6] 생산성 증가율 격차와 고용비중의 변화



주: 생산성 증가율 격차는 1990년 이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균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격차, 고용비중의 변화는 1990년대 서비스업의 평균고용비중과 1980년대 서비스업의 평균 고용비중의 변화.

AU는 오스트리아, AL은 호주.

자료: OECD STAN database 2005.

서비스직능을 지닌 취업자수의 증가

[그림 2-7]은 1993~2005년간 사무직 및 고직능직 취업자수 증감을 도시한 것이다.⁶⁾ 1993~2005년간에 전체 취업자는 362만 명 증가한 반면 사무직 취업자수는 그 1.2배인 420만 명 증가했다. 이로부터 창업이나 사업 확장으로 새로이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사무직 노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폐업이나 사업 축소로 없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생산직이나 단순노무직 일자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분석기간 동안 농림어업에서 없어진 순일자리수는 78만 개였던 반면 순수하게 줄어든 사무직 일자리는 단지 5,000개에 불과했다. 광공업에서는 52만 개의 순일자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에서는 21만 개가 늘어났다. 전기가스수도건설업에서는 11.5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성된 반면 사무직 일자리의 순증은 그보다 많은 11.8만 개에 이르러 생산직 일자리가 줄었음이 드러난다. 서비스업에서는 481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성되었고, 사무직 일자리수 증가는 388만 개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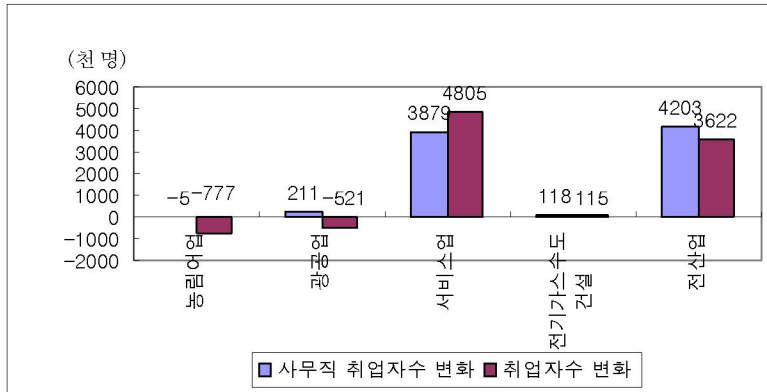
고직능직 일자리 변화를 고찰하면 보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광공업에서 총취업자수가 52만 명 감소하는 동안 사무직 일자리는 21만 개가 늘어나고 고직능직 일자리는 24만 개가 증가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생산직 일자리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저직능사무직 일자리도 오히려 3만 개 이상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의 서비스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해 주는 증거들이다. 특히 광공업이나 전기가스수도건설업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표 2-1>은 1993~2005년간 고직능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구성비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분석기간 동안 전산업에서 고직능직 근로자는 5.6%포인트 증가했다. 사무직은 10.6%포인트 증가했다. 경제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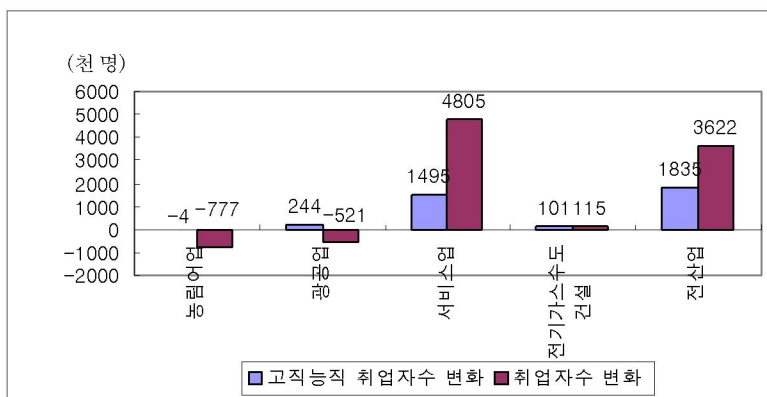
6) 고직능직은 제4차 개정 직종분류체계의 대분류 번호 1~3; 사무직은 1~5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일관성을 갖는 분류 기준을 제5차 개정 분류체계 기준으로 정의하면 고직능직은 대분류 번호 0~2, 사무직은 0~5가 된다.

[그림 2-7] 고직능직 및 사무직 취업자수 변화

(a) 사무직 취업자수 변화(1993~2005)



(b) 고직능직 취업자수 변화(1993~20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사무직 근로자는 서비스업 내의 사무직 증가나 제조업 내의 사무직 증가보다도 더 크게 그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여타 산업보다 사무직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2-1〉 고직능직과 사무직 취업자 구성비 변화

(단위: %, %p)

		1993	1995	2000	2005	1993~2005 증분
고직능직	전산업	15.3	16.4	18.9	20.9	5.6
	제조업	9.7	11.3	14.3	16.6	6.9
	서비스업	22.5	22.7	24.1	25.3	2.8
사무직	전산업	49.2	49.9	54.3	59.8	10.6
	제조업	26.0	26.3	27.0	34.1	8.1
	서비스업	77.3	76.5	76.2	78.4	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고용의 서비스화가 단지 서비스업의 증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일자리 구성 중 서비스직능 일자리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생산의 서비스화 현황

생산의 서비스화 현상도 두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서비스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중간재로서 공급되는 서비스재 비중의 증가이다.

증가하는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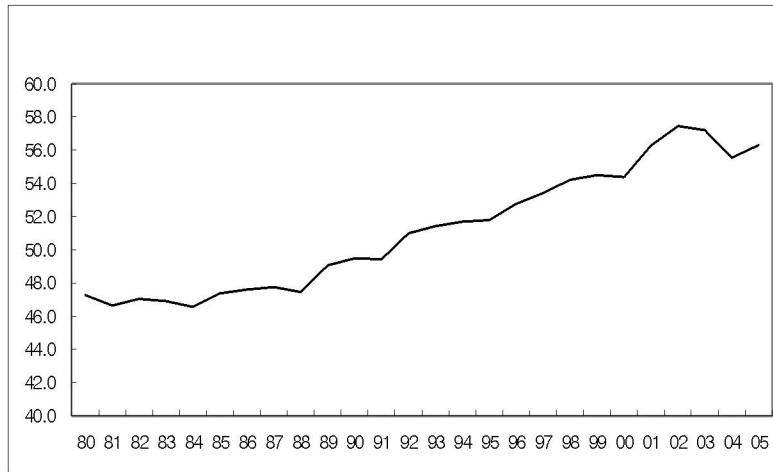
[그림 2-8]은 1980년 이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를 도시한 것이다.⁷⁾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1984년 46.6%로부터 꾸준히 증가

7) 경제 전체의 GDP는 각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합계에 순생산물세를 더하여 도출된다. 본고에서는 순생산물세가 각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비중만큼 분배된다고 가정하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순생산물세를 배제하고 다음과 같이 도

하여 2002년에 57.5%로서 그 비중이 최고에 달했지만 그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4년에는 추세를 크게 이탈하여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대다수 OECD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GDP 평균 비중이 2003년에 70% 수준인 반면 한국의 GDP 비중은 57.2%에 불과했다. 이는 서비스업 GDP 비중이 56.2%인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림 2-9 참조). 2005년에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보다도 감소한 56.3%이다.

(그림 2-8)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 198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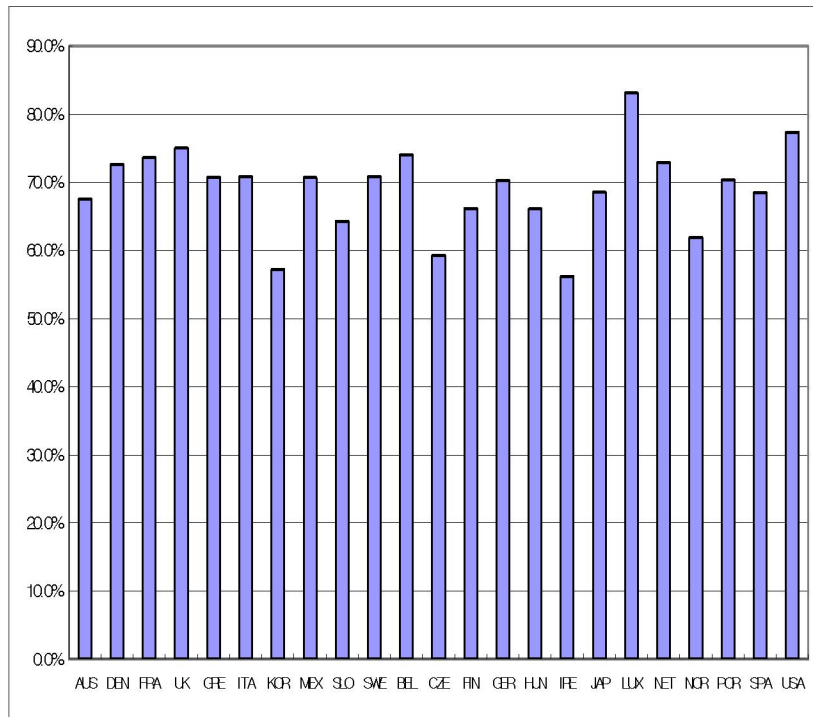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출하였다.

$$\text{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 100 \times \frac{\text{서비스업부가가치}}{\text{각경제활동부문의부가가치합}}$$

순생산물세의 비중이 경제 전체 부가가치의 10% 내외에 이르기 때문에 분모에 경제 전체의 GDP를 사용하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6%포인트 정도 낮아진다. 그리하여 순생산물세의 비중이 11.0%인 2005년의 경우 분모에 경제 전체의 GDP를 사용하면 부가가치 비율은 50.1%로 낮아진다.

[그림 2-9] OECD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 2003



자료 : OECD STAN database 2005.

1990~2005년 기간의 한국경제 구조변화 과정에서 서비스업 내부의 업종별 구성도 변화했다(표 2-2 참조). 금융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비중 증가에 힘입어 생산자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의 14.9%에서 2005년에는 20.9%로 6.0%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유통서비스 비중은 오히려 17.3%에서 14.1%로 3.2%포인트 감소하였다. 통신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 경제활동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개인서비스 비중은 큰 변화 없이 0.7%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개인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는 오락문화운동산업의 팽창에 힘입은 것이다. 숙박음식업은 큰 변화가 없었고 수리업, 청소, 가사서비스업은 축소되었다.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공히 1%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사회서비스는 3.4%포인트 증가했다.

〈표 2-2〉 서비스업 각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 변화

(a) 서비스업을 생산자·유통·개인·사회서비스로 분류할 때

(단위: %, %포인트)

	1990	1995	2000	2005	1990~2005 증감
생산자서비스	14.9	18.3	20.1	20.9	6.0
유통서비스	17.3	15.0	15.0	14.1	-3.2
개인서비스	5.5	6.2	6.2	6.1	0.7
사회서비스	11.9	12.3	13.1	15.2	3.4
전 체	49.5	51.8	54.4	56.3	6.8

(b) 서비스업을 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분류할 때

	1990	1995	2000	2005	1990~2005 증감
금융·보험	5.8	6.9	6.9	8.4	2.6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9.1	11.5	13.2	12.5	3.4
도·소매	10.5	8.4	7.9	6.8	-3.6
운수·창고·통신업	6.8	6.6	7.0	7.2	0.4
숙박·음식	2.5	2.7	2.9	2.6	0.1
기타서비스	2.9	3.4	3.3	3.5	0.6
공공행정	5.2	5.3	5.7	6.3	1.1
교육서비스	4.7	5.0	5.0	5.8	1.0
보건·사회복지	1.9	1.9	2.4	3.2	1.3
전 체	49.5	51.8	54.4	56.3	6.8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중간재로 쓰이는 서비스재 비중 증가

서비스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산출물을 통해 측정된 서비스재의 생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그와 함께 산업생산에 투입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재의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산출액에 대한 서비스업의 비중은 1990년 30.3%, 1995년 34.1%에 이어 2000년에는 39.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총산출을 위해 투입된 중간재(=총

투입)’ 중 서비스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5.4%, 1995년 30.0%, 2000년에 31.5%로 높아졌다(표 2-3).

그에 따라 서비스 수입도 증가했는데 1995~2000년 기간에 우리나라의 총수입액은 약 128조 원에서 약 240조 원으로 1.9배 증가한 반면, 서비스 수입은 약 12조 원에서 약 32조 원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그에 따라 총수입액에서 서비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9.6%에서 13.2%로 높아지고, 공산품의 수입 비중은 75.3%에서 67.1%로 하락하였다.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광고 등 사업서비스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간재 서비스 투입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그림 2-10]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관을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중간투입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서비스재의 제조업 중간투입 비율이 22%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16%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중간재 공급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도 우리나라 경제는 서비스화를 겪고 있으나,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서비스화 정도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전문성과 생산성이 낮아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제조업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서비스업에 아웃소싱하는 비중이 적다. 이는 다시 서비스시장의 확대를 제약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가로 막고 있다고 판단된다.

Baumol(1967)은 제조업의 생산성은 높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아 서비스업 비중이 커질수록 성장률이 저하한다고 예측하였다. 경제가 발달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성장률은 저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Baumol의 가정과는 달리 모든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 속도가 제조업보다 낮은 것은 아니다. 정보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증가 속도가 제조업보다 높

〈표 2-3〉 산출액 및 중간재 투입의 서비스재 비중

(a) 산업별 산출액 구성 추이

(단위: %)

	1990	1995	2000	일본(2000p)
농림어업	5.1	3.8	2.7	1.4
광업	0.5	0.4	0.2	0.1
제조업	49.6	47.6	46.5	31.2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12.2	11.6	9.4	10.3
서비스	30.3	34.1	39.0	54.4
기타	2.3	2.5	2.2	2.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b) 중간투입 구성 추이

(단위: %)

	1990	1995	2000	일본(2000p) ³⁾
중간투입 계	100.0	100.0	100.0	100.0
물적투입 ¹⁾	74.6	70.0	68.5	49.7
서비스투입 ²⁾	25.4	30.0	31.5	50.3

(c) 수입상품 및 서비스수입 구성 추이

(단위: 10억원, 10억엔, %, 배)

	1990		1995		2000		B/A	C/B	일본(1999)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	구성비			금액	구성비
서비스수입	3,403.1	5.9	12,216.6	9.6	31,621.7	13.2	3.59	2.59	9,393.0	19.1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674.5	1.2	3,001.9	2.3	9,503.0	4.0	4.45	3.17	1,243.1	2.5
컴퓨터소프트웨어	60.9	0.1	243.0	0.2	1,145.3	0.5	3.99	4.71	256.3	0.5
광고	100.3	0.2	235.8	0.2	1,056.4	0.4	2.30	4.48	267.1	0.5
총수입 계	67,929.4	100.0	127,742.9	100.0	239,788.3	100.0	2.21	1.88	49,200.1	100.0

주: 1)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2) 도소매,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개인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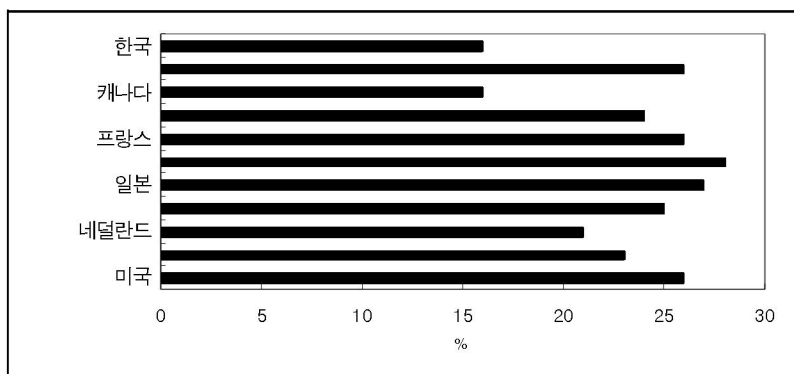
3) '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2003), 「2000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고 서비스화가 진행되더라도 정보화가 함께 진행되어 생산성이 높은 정보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 생산성 증가는 오히려 가속될 수 있다. 또한 Baumol(1967)의 이론은 서비스재가 최종재로만 사용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Oulton(1999)은 서비스재가 중간재로 사용될 경우 그 중간재를 생산하는 서비스재 생산부문의 중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양(陽)이기만 하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이종화·송철중(2005)의 중요소생산성 추계에 의하면 1970~2001년 기간 동안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았던 반면에 서비스 산업의 중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마이너스이거나 매우 낮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정보화가 진행되었지만 하드웨어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높지 않았다. 이종화·송철중(2005)은 서비스 산업에서 중간재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경우 1970~2001년 기간에 1인당 노동생산성 및 중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음(-)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Oulton의 이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그간 우리나라의 서비스화 과정이 생산성 둔화 과정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2-10] 제조업의 중간투입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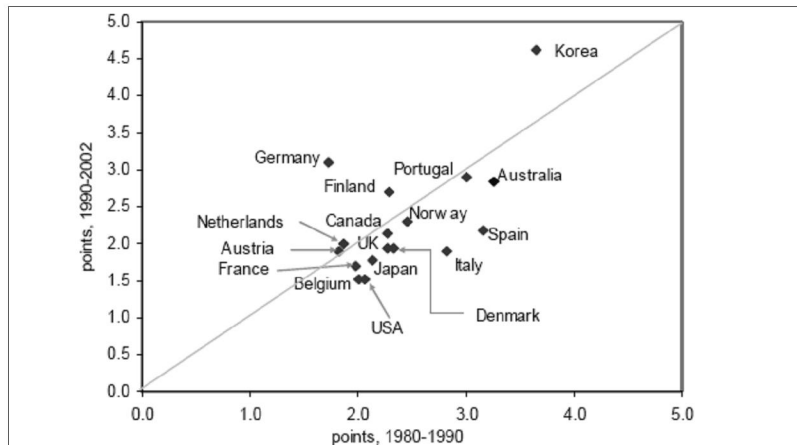
주: OECD 국가들의 1990년대 중후반에 관한 자료는 Wölfl(2005). 우리나라는 2000년 산업연관표에서 계산.

제4절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특징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구조변화 속도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고용구조 변화 속도를 측정해 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틀어 우리나라의 구조변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최고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1).

[그림 2-11] 고용을 기준으로 측정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구조변화 속도 국제비교



주: 각국이 제공하는 가장 자세한 산업분류 수준에서 수정탈리언지수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Wolf(2005).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OECD 국가들과 7%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2-4 참조). 반면 부가가치 비중은 15%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2-9 참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 간에 이처럼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크게 낮지 않은 반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표 2-4>는 한국

<표 2-4> 서비스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 구매력평가 기준

(단위 : 한국=10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한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오스트리아	189.1	186.9	192.3	185.8	185.3	182.4	176.5	174.3	184.1
호 주	163.4	166.4	173.8	173.5	171.8	173.8	168.3	169.6	170.1
벨 기 에	205.3	205.7	208.8	204.9	201.8	200.4	194.5	194.1	201.9
캐 나 다	154.1	154.2	158.6	157.4	158.3	161.2	157.9	156.5	157.3
체 코	96.8	96.5	102.5	101.0	101.1	107.7	99.3	100.2	100.6
덴 마 크	162.2	162.3	165.4	162.2	163.9	165.7	161.9	161.6	163.2
핀 란 드	166.0	167.2	172.6	170.2	169.9	168.1	162.2	163.2	167.4
프 랑 스	201.6	202.1	206.3	201.2	199.5	198.6	192.8	-	200.3
독 일	174.5	175.4	179.5	176.1	174.5	175.7	169.9	168.3	174.2
그 리 스	166.4	171.8	170.5	167.7	171.1	177.8	175.3	176.5	172.1
형 가 리	100.7	102.0	106.6	102.5	101.7	105.6	105.9	102.9	103.5
이탈리아	215.5	217.2	221.4	214.5	213.6	213.1	203.0	199.0	212.2
일 본	191.1	191.9	194.9	190.8	189.0	190.4	185.7	184.4	189.8
룩셈부르크	298.0	306.5	317.2	309.1	305.8	291.5	277.8	274.6	297.6
맥 시 코	86.5	88.5	87.8	89.6	92.3	90.9	-	-	89.3
네덜란드	158.3	160.0	164.1	161.9	160.7	158.8	153.5	151.3	158.6
뉴질랜드	165.3	167.3	167.2	162.1	163.7	164.2	161.7	161.1	164.1
노르웨이	158.9	162.6	166.8	165.9	165.8	169.6	164.0	-	164.8
폴 란 드	-	-	-	-	-	109.4	109.5	111.6	110.2
포르투갈	127.9	130.2	133.8	131.8	131.6	130.7	125.8	125.2	129.6
슬로바키아	79.1	90.5	94.0	92.8	93.2	97.8	101.1	100.0	93.6
스 페 인	-	-	-	-	170.0	169.7	163.9	161.6	166.3
스 웨 덴	161.3	165.5	169.1	166.9	164.8	162.3	156.6	-	163.8
스 위 스	188.1	188.1	194.7	189.0	192.9	187.7	178.3	-	188.4
미 국	-	-	-	-	246.1	248.0	241.9	242.0	244.5

자료 : OECD (2005),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한국생산성본부(2005), 『생산성 국제비교』로부터 재인용.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OECD 각국과 비교한 것이다. 멕시코와 슬로바키아의 서비스업만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을 뿐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서비스업조차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제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 구매력평가 기준

(단위 : 한국=10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한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오스트리아	166.4	161.5	156.0	138.9	134.8	134.5	126.9	121.2	142.5
호 주	146.6	139.4	138.6	115.9	107.1	110.0	101.6	100.8	120.0
벨 기 에	206.0	203.7	193.7	165.5	157.2	152.0	146.3	143.0	170.9
캐 나 다	203.7	199.8	189.5	169.6	164.9	154.0	144.5	136.9	170.4
체 코	76.3	68.9	59.9	59.6	59.5	54.3	53.8	54.7	60.9
덴 마 크	132.0	133.6	123.8	104.8	100.4	99.4	95.0	92.3	110.2
핀 란 드	171.3	166.5	163.4	142.6	143.2	138.0	132.6	128.3	148.3
프 랑 스	183.7	177.5	173.9	151.8	143.2	141.6	134.1	-	158.0
독 일	155.4	149.4	142.5	119.2	114.0	109.9	103.1	99.7	124.2
그 리 스	92.8	84.6	81.4	70.4	68.5	69.0	67.3	66.6	75.1
헝 가 리	64.9	66.4	65.0	58.2	58.6	56.8	54.2	56.4	60.1
이탈리아	161.0	152.1	142.3	120.3	113.1	109.6	99.2	91.8	123.7
일 본	162.0	153.7	141.3	124.6	123.9	119.5	112.9	118.8	132.1
룩셈부르크	197.3	192.1	176.5	150.2	147.8	142.0	134.0	132.0	159.0
멕시코	71.0	66.2	59.5	49.7	47.1	45.2	-	-	56.5
네덜란드	175.6	162.3	155.8	133.9	126.7	123.1	114.8	108.1	137.5
뉴질랜드	155.6	144.8	135.1	120.9	144.6	113.0	104.8	99.3	123.5
노르웨이	163.7	148.8	137.1	120.4	111.8	111.3	104.5	-	128.2
폴 란 드	-	-	-	-	-	54.5	53.6	55.6	54.6
포르투갈	85.4	82.6	78.6	67.2	61.9	60.8	56.9	53.4	68.3
슬로바키아	63.9	55.8	57.6	52.4	50.1	54.3	50.0	49.3	54.2
스 페 인	-	-	-	-	103.0	101.0	94.6	90.2	97.2
스 웨 덴	149.2	148.4	147.4	136.2	135.4	127.4	128.0	-	138.8
스 위 스	167.7	164.9	159.1	135.0	122.2	121.7	117.2	-	141.1
미 국	-	-	-	-	160.5	157.6	158.4	158.8	158.8

자료 : OECD (2005),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한국생산성본부(2005), 『생산성 국제비교』로부터 재인용.

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성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크게 낮지 않다. <표 2-4>에 주어진 25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지수를 단순평균하면 우리나라의 약 1.7배 수준이다. 반면 <표 2-5>에 주어진 제조업 생산성 지수를 단순평균하면 약 1.2배 수준이다. 제조업 생산성이 아직 OECD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에 비하면 OECD 평균 수준에 훨씬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괄목할 만한 신장과 유통서비스 부문의 축소

서비스업 내에서도 업종의 상대적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서비스업 내에서 고용 측면에서나 부가가치 생산 측면에서나 생산자서비스 부문이 괄목할 만하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표 2-6 및 표 2-7). 생산자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된 것은 금융보험업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상승한 결과이고 취업자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사업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업서비스업의 고용은 늘었으나 그 부가가치 생산은 크게 증가하지 못해 1993~2005년간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통서비스 부문에서는 취업자수 비중과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도소매업의 축소에 기인한다. 1993~2005년 기간 동안 도소매업의 취업자수는 21.2만 명 증가했지만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여기에는 1990년대 중반의 할인점을 비롯한 유통시장 개방과 그에 따른 도소매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판단된다.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정보통신재 수요 증가에 힘입은 통신업의 확대는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질가치로 계산한 유통서비스업의 생산 비중이 생산자서비스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표 2-8).

개인서비스 부문은 저생산성과 영세성으로 인해 취업자수가 크게

〈표 2-6〉 서비스업 각 부문의 취업자수 비중 변화: 1993~2005

(단위: %, %포인트)

	1993	2005	1993-2005 증감
생산자서비스	7.2	12.2	5.0
유통서비스	23.7	22.6	-1.0
개인서비스	11.9	17.1	5.2
사회서비스	9.7	13.3	3.6
서비스업전체	52.5	65.2	1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7〉 서비스업 각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 변화: 경상가격: 1990~2005

(단위: %, %포인트)

	1990	1995	2000	2005	1990~2005 증감
생산자서비스	14.9	18.3	20.1	20.9	6.0
유통서비스	17.3	15.0	15.0	14.1	-3.2
개인서비스	5.5	6.2	6.2	6.1	0.7
사회서비스	11.9	12.3	13.1	15.2	3.4
서비스업합계	49.5	51.8	54.4	56.3	6.8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2-8〉 서비스업 각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 변화: 불변가격

(단위: %, %포인트)

	1990	1995	2000	2005	1990~2005 증감
생산자서비스	18.1	20.8	20.1	19.4	1.3
유통서비스	13.8	13.5	15.0	15.1	1.3
개인서비스	5.8	6.3	6.2	5.9	0.1
사회서비스	16.9	14.7	13.1	12.1	-4.8
서비스업 전체	54.5	55.4	54.4	52.4	-2.1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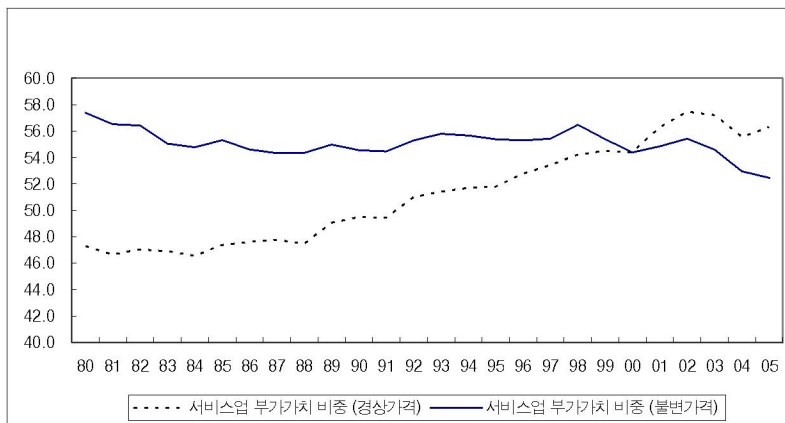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증가는 그리 크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생산성은 그다지 향상되지 못한 채 상대가격만 크게 증가하여 실질가

치로 측정한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0~2005년 기간에 4.8%포인트 감소했다(표 2-8).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실질 GDP 비중

[그림 2-12]는 경상가격과 불변가격 양자로 측정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경상가격으로 계산한 부가가치 비중 추세와 불변가격으로 계산한 부가가치 추세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상반된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2-12]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명목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1980년 47.3%에서 2002년 57.5%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여 2005년에도 아직 2002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실질값으로 계산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198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87~98년 기간에는 미세하게나마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외환위기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 52.4%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⁸⁾ 이는 특히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가 현저히 둔화되어 경제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1998~2005년 기간에 제조업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8.7%에 이르렀으나 서비스업은 1.0%에 불과했다(표 2-9 참조). 서비스의 명목 GDP 비중과 실질 GDP 비중이 상반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증가 추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명목값과 실질값이 이처럼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이는 현상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발견되었던 현상이기도 하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더딘 반면 상대가격은 여타 산업부문에 비하여 빨리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Wölfl(2005)에 따르면, 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미국·호주에서는 1990년대

〈표 2-9〉 연평균 성장률, 취업자수 증가율, 생산성증가율

(단위: %)

		1981~1990	1991~2000	2001~2005	1981~1997	1998~2005
성장률 (A)	전체	8.7	6.2	4.5	8.1	4.2
	제조업	12.0	8.4	6.7	10.2	8.0
	서비스업	8.0	5.8	3.8	7.6	3.5
취업자수 증가율 (B)	전체	2.8	1.6	1.6	2.6	1.0
	제조업	5.3	-1.2	-0.3	2.7	-0.7
	서비스업	5.3	4.4	2.8	5.4	2.5
생산성 증가율 (A-B)	전체	5.9	4.6	3.0	5.5	3.2
	제조업	6.7	9.5	6.9	7.5	8.7
	서비스업	2.7	1.4	1.0	2.2	1.0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8) 2000년을 계기로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 비중이 경상가격 기준의 비중을 하회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교차점은 가격지수 기준 연도가 언제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그림 2-12]는 가격지수가 2000년=100으로 하여 산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가격지수의 기준 연도가 언제로 설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자의 추세는 [그림 2-12]와 같은 형태를 띠므로 그 추세를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초반 이후 실질 값으로 측정한 서비스업의 GDP 대비 비중과 명목으로 측정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전과는 달리 1990년대 들어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와 상대가격이 동시에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의 54.3%에서 1998년의 56.5%까지는 비록 미미하게나마 실질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로는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가 미미하여 실질값으로 측정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에는 그 비중 감소가 매우 급격하다.

<표 2-10>은 우리나라 서비스업 각 부문의 물가상승률 추이를 산업 부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로부터 서비스업의 물가상승률이 제조업 물가 및 국내총생산 물가지수(GDP deflator)보다 훨씬 급격하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서비스재의 상대가격에도 부문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1990년 이래 사회서비스의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통신서비스 물가는 하락했다. 정보화의 과실이 통신서비스업을 넘어 여타 서비스업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증좌이기도 하다. 서비스업 중 금융보험업과 보건사회복지업의 물가는 1980년대에 비하여 1990년대에 더 많이 상승하였다. 전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의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로 분류한 기준에서는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Baumol(1967)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에 비해 더딘 반면 단위노동에 대한 임금은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재의 가격상승률이 더 높다고 예측하였다. 노동이 부문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임금은 각 경제 부문에서 동일한 수준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의 가격 상승률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은 이처럼 Baumol의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궤를 같이하는데 이런 점에서도 1990~2005년 기간의 한국 경제 구조변화는 ‘보몰의 세계(Baumol’s World)’에 머물러 있었으며 1970년대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10〉 산업별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1980~1990	1990~2000	2000~2005	1990~2005	1980~2005
농림어업	7.2	3.5	-0.9	2.1	4.1
광업	7.9	9.3	5.1	7.9	7.9
제조업	5.9	4.5	-0.4	2.9	4.1
전기가스수도	1.7	4.5	-1.6	2.4	2.1
건설업	10.1	6.0	5.1	5.7	7.5
서비스업	9.1	6.8	3.7	5.8	7.1
도소매	4.8	3.8	2.2	3.3	3.9
음식숙박업	12.7	7.1	2.3	5.5	8.4
운수창고보관	5.9	5.2	3.0	4.4	5.0
통신	7.1	-5.8	-4.8	-5.4	-0.4
금융보험	2.8	5.3	4.7	5.1	4.2
부동산및임대	14.4	10.8	2.1	7.9	10.5
사업서비스	9.7	7.3	4.7	6.5	7.8
공공행정및국방	12.2	9.3	6.7	8.4	9.9
교육서비스	12.7	9.7	6.5	8.6	10.3
보건및사회복지	9.0	10.4	10.0	10.3	9.8
오락문화운동	11.1	4.4	3.9	4.2	7.0
기타개인서비스	8.9	6.6	3.4	5.5	6.9
국내총생산	7.7	5.6	2.3	4.5	5.8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이제 앞에서 살펴본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특징을 정리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요약해 보기로 하자. 첫째, 고용과 생산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서 서비스직능을 가진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은 199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서비스화(tertiarization)’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구조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특징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2005년 기간 동안 서비스업 내의 구성도 변화하였다. 그 중 가장 특징적 현상 중의 하나는 생산자서비스업이 팽창하고 도소매업이 축소된 점이다. 생산자서비스업의 팽창은 금융보험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비중 증가, 그리고 사업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증가에 기인하였다. 반면 도소매업에서는 1993~2005년間に 21만여 명의 취업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비중은 2.0%포인트나 감소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할인점 등의 대형화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경쟁압력이 높아져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부가가치 비중도 감소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문화가 미흡하고 제조업과 충분한 전후방 연관효과를 지니고 있지 못하여 시장도 좁다. 그로 인해 생산성이 현저히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수준에 도달한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국내 서비스업이 제공하기보다는 제조업 기업이 자체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 조달하거나 외국투자은행이나 컨설팅 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공급받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둘째,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아직 그 비중이 낮다. 제조업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국내에 있는 서비스업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작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아 아웃소싱 받는 비중이 작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웃소싱이 적어 서비스업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성 제고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저생산성 균형에 빠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쇼크로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업이 이처럼 저생산성 균형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이 국내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요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국제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사업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와 같은 생산자서비스와 운송, 보관 등 물류서비스의 전문성과 함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한국의 증권거래 서비스를 신흥경제발전도상국들에 판매하고 국내에 이들 국가의 우수 기업들을 상장시키는 등의 서비스, 그리고 우리나라 선물·옵션시장에서 이들 외국 주식시장이나 기업들의 선물·옵션 상품을 판매하는 등에 지원하는 일, 그리고 국제특허심사 대행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후발개도국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서비스화의 속도는 1980년대 이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 그러나 이처럼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 및 생산 비중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다. 특히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서비스는 경제규모에 걸맞게 발달하지 못하여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 부문 고용은 현저히 낮다. 2005년 OECD는 장애와 고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복지 부문에서 한국을 최하위 국가로 평가했다. 사회서비스업 일자리에 다수의 고령자와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고령화 과정에서 점진적 은퇴를 가능케 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에 일조할 것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그리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복지수요가 증대하여 의료, 보건, 식품안전, 재난관리, 교육, 문화, 고용서비스, 복지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었으나 관련 전담요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사회서비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연차적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종사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법의 한 예이다.

넷째,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는데 그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소득 향상에 따라 서비스재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이 더더

서비스업의 확대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원인이 되어 왔다. 여기에는 개인서비스 부문은 저생산성과 영세성, 그리고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실질부가가치 기여도가 낮은 점도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규제나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영업 창업이 많았던 것을 주원인으로 간주하는 데에서 나아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가 왜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더뎠다는 점은 정보화가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보화에 따른 생산성 효과가 여타 서비스업에 과급될 수 있도록 기업의 서비스재 생산, 인사관리 등에서 활용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업의 물가 상승률이 제조업 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까지 다른 나라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명목가치로 계산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실질가치 기준의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서비스업이 실질부가가치에 대한 기여는 향상시키지 못하고 서비스업의 상대가격만 증가했다는 증거이자 제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증가 추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그만큼 한국경제에서는 아직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Baumol(1967)에 의하면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에 비해 더뎠다. 서비스재의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에 따라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노동이 이동하고 서비스재 생산이 늘게 된다. 국가마다 서비스재의 소득탄력성에 큰 차이가 없다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이 더딘 나라일수록 서비스업 부문이 더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크고 생산성이 낮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특성은 이런 점에서 ‘보몰의 세계(Baumol’s World)’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Baumol(1967)은 또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에 비해 더딘 반면 노동비용은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재의

가격상승률이 더 높다고 예측하였다. 1990년대에 서비스업의 가격 상승률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은 이처럼 Baumol의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궤를 같이 하는데 이런 점에서도 1990~2005년 기간의 한국 경제 구조변화는 ‘보몰(Baumol)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Baumol(1967)은 제조업의 생산성은 높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아 서비스업 비중이 커질수록 성장률이 저하한다고 예측하였다. 경제가 발달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성장률은 저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Baumol의 가정과는 달리 모든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 속도가 제조업보다 낮은 것은 아니다. 정보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 속도가 제조업보다 높고 서비스화가 진행되더라도 정보화가 함께 진행되어 생산성이 높은 정보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 생산성 증가는 오히려 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aumol(1967)의 이론은 서비스재가 최종재로만 사용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Oulton(1999)은 서비스재가 중간재로 사용될 경우 그 중간재를 생산하는 서비스재 생산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양(陽)이기만 하면 경제전체의 생산성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구조변화의 특징은 서비스화와 함께 정보화로도 요약되는데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더뎠다는 점은 정보화가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보화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고 중간재로 사용되는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운송, 보관, 통신 등의 물류 서비스재 생산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보몰(Baumol)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한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제 3 장

한국경제 서비스화의 결정요인

제1절 서비스화에 관한 기존 논의들

서비스화(tertiarization)는 정보화와 더불어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를 특징짓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경제의 구조 변화를 특징짓는 중요한 흐름이다. 서비스업은 산출뿐만이 아니라 고용 측면에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되었다. 2001년 현재 미국·영국·프랑스·스웨덴·호주 등은 서비스산업이 총부가가치 및 고용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 이후 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급증하여 2005년 현재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에서 서비스업은 56.3%와 65.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productivity bias hypothesis: 생산성편향가설), 서비스수요의 높은 소득탄력성(demand bias hypothesis: 수요편향가설), 고령화로 인한 서비스수요 증대, 외주화 진전에 따른 서비스업의 중간재 공급확대 등이 거론된다.

Baumol(1967)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균형 성장(unbalanced growth)은 생산성 향상이 빠르게 일어나는 제조업으로부터 생산성 향상이 더딘 서비스업으로 자원(노동)을 재분배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성장을 둔화시킨다고 한다. Baumol에 의하면 생산성 향상에 비하여 임금이 빠르

게 상승함으로써 서비스재의 상대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한다. 만일 서비스재의 수요가 소득에 대하여 비탄력적이고 가격에 대하여 탄력적이라면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서비스업의 수요가 소득에 대하여 탄력적이고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라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서비스재의 수요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을 이전시키며 점차 제조업의 고용 비중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성장률이 낮아진다. 요컨대 Baumol에 의하면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과 서비스재 수요의 높은 소득탄력성이 경제가 서비스화하는 배경이 된다.

서비스화 진전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에 주목한다. 서비스 최종수요가 증가하는 배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설명이 제시된다(Wölfl, 2005). 서비스교역의 확대, 서비스수요의 높은 소득탄력성, 고령화로 표현되는 인구구성의 변화, 복지국가 발전에 의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그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서비스교역이 증가하는 것도 경제가 서비스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무역은 세계교역의 20%를 점하고 있다. Freund and Weinhold (2002)의 추정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교역상대국의 인터넷 보급이 10% 증가하면 서비스 수출이 1.7%, 수입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스페인·터키·아일랜드는 1990년대 들어 서비스교역이 급증하여 GDP 대비 서비스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6~10%에 이르고 있다(Wölfl, 2005).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수요가 늘어나고 서비스업이 확대된다. Clark(1940)는 엥겔의 법칙(Engel's law)을 기초로 일국의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제조업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 중 서비스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비스재의 높은 소득탄력성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

요가 증가한다는 주장에는 강력한 반론도 존재한다. Summers(1985)는 ICP(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mparison Projects) 자료를 활용하여 1975년 34개국 서비스지출의 소득탄력성 정도를 추정하였다. 명목 GDP 대비 명목 서비스지출을 1인당 실질 GDP로 회귀분석한 결과 그는 양(陽)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로 서비스지출과 GDP를 실질로 환산해 보면 서비스화는 진전은 1인당 GDP 증가와 음(陰)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지출을 실질로 환산하여 서비스수요의 소득탄력 정도를 추정한 결과 소득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탄력성 추정값은 서비스지출 항목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주택 및 보건에 대한 지출은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1 이상으로 나타났고, 운송과 통신은 단위 탄력적으로 그리고 오락·교육지출 및 정부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비탄력적이었다. Falvey and Gemmell(1996)은 Summers(1985)가 사용한 ICP 자료를 60개국으로 확대하여 1980년도 서비스지출의 소득탄력성 정도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Summers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구매력 평가로 조정할 경우 1인당 GDP와 GDP에서 서비스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비스지출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은 Summers(1985)의 추정값과 유사한 0.98이었으며 가격탄력성은 -0.32로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고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소득이 증가하고 서비스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비스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ICP 자료에서 관찰되는 실질가격기준 서비스지출이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는 사실과 일치한다.⁹⁾ 이들은 주택, 보건, 운송, 통신, 오락, 교육 및 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소득탄력 정도를 추정하였는데 주택, 보건, 통신, 오락 등은 소득에 대하여 수요가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송, 교육 및 정부서비스의 경우

9)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도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는 198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87~98년 기간에는 미미하게나마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외환위기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 52.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4절 참조.

는 단위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인구 증가, 노년부양비, 도시화, 소득불평등 정도 등이 서비스수요에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성의 변화는 수요패턴에 영향을 주어 보건·의료 및 개인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는 보건·의료 및 교육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고령화나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일정 영역의 서비스업을 확대시키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서비스화 진전에 대한 세 번째 설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다(Oulton, 1999; Fixler and Siegel, 1999). Baumol의 모형에서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서비스업은 최종재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제조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한다.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 제조업 기업 내부에서 행하던 연구·개발, 금융 및 물류 등의 업무가 국내외 서비스 부문으로 아웃소싱(outsourcing)되고 있다. 국적을 불문하고 세계적 브랜드와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기업들은 자신의 체질을 서비스화하면서 작업장은 해외나 국내 업체들에 아웃소싱하는 경향을 보여왔다.¹⁰⁾ 이는 기업의 비용절감 전략의 일환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이기도 하다(Gadrey, 2003).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기업 내외부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한 결과이다.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 제품수요의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세계경제의 경쟁격화는 기업들의 외부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또한 생산공정 중 상대적으로 저숙련노동 집약적인 생산공정 및 서비스 업무를 저임금 국가에 해외 아웃소싱하는 추세도 증가하고 있다(안정화·서환주, 2005; Feenstra, 1998). 이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경계가 소멸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제조업 내부에서 이루어진 업무와 공정이 서비스 부문으로 아웃소싱되면서 서비스 부문이

10) 필자에 따라서 해외에 아웃소싱하는 현상을 특별히 오프쇼링(off-shor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조업에 공급하는 중간재가 증가하고 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Oulton(1999)은 서비스재가 최종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재일 경우 달리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미약하더라도 양(陽)이기만 하면 생산성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고용이 이동한다 할지라도 경제 전체의 성장률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음을 모형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Oulton은 1973~95년 기간 동안 영국에 대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중간재를 공급하는 서비스 부문인 운송·통신업, 금융업, 사업서비스업은 경제 전체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21.5%와 14.3%를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기여의 합 35.8%는 제조업의 기여 34.1%보다 높은 값이다. 이러한 결과는 Baumol(1967)의 예측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Baumol의 모형에서는 서비스재가 최종재의 형태로만 존재하지만 중간재로서의 서비스재의 역할에 주목하면 이처럼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서비스화 진전과 더불어 서비스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 및 정형화된 사실을 재검토하고 재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서비스화 진전의 배경에 대한 논의, 서비스업의 생산성에 대한 논의, 서비스수요 탄력성에 대한 실증분석, 외주화(outsourcing)와 서비스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 외에도 Elfring(1989), Hill(1977) Gadrey(2000, 2003) 등은 서비스업 개념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Rowthorn and Coutts(2004), 이종화·송종철(2005), 오준병(2005) 서비스화 및 탈산업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서비스 수요함수와 고용함수를 통해 서비스화의 결정요인을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제2절 서비스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살펴본 서비스화 결정요인

1. 추정모형 및 자료

서비스업의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data model)을 상정하기로 하자. 식 (1)에 주어진 서비스업 수요함수는 소득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1인당 국민소득, 가격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서비스업가격, 교차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제조업 가격변수를 모형에 포함하고 있다.

$$D_{it} = a_1 D_{it-1} + a_2 Y_{it} + a_3 Y_{it-1} + a_4 PS_{it} + a_5 PS_{it-1} + a_6 PM_{it} + a_7 PM_{it-1} + a_8 Z_{it} + a_9 Z_{it-1} + \nu_i + e_{it} \quad (1)$$

$$RS_{it} = b_1 RS_{it-1} + b_2 Y_{it} + b_3 Y_{it-1} + \nu_i + e_{it} \quad (2)$$

여기서 D 는 서비스산업 실질생산액이며, i 는 산업, t 는 기간, Y 는 1인당 실질 GDP, PS 는 서비스산업물가, PM 은 제조업물가로 교차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선택되었고, Z 는 인구관련 통제변수로 인구(POP),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령층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 정의되는 노년부양비율(AGE),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는 고용에서의 여성노동력 비중(FS)을 사용하였다. 식 (2)에서 RS 는 실질 GDP 대비 실질서비스 생산의 비중이다. 그리고 ν_i 는 각 산업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고정효과(fixed effect)로서 시간에 대하여 불변인 효과를 나타낸다. e_{it} 는 오차항으로서 동일독립분포를 갖는다는(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위 추정모형에서

첫 번째 설명변수는 수요의 1계 시차변수(lagged variable)로 자기회귀적(autoregressive) 성격을 가정하였다. 또한 여타 설명변수에 1계 시차변수(lagged variables)들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금년도만이 아니라 이전 연도의 설명변수의 변화가 금년도의 서비스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식 (1) 및 식 (2)는 Clark(1940)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추정식이다. 식 (1)은 서비스재 수요함수 추정식으로 서비스재 수요가 어느 정도 소득탄력적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식이다. 식 (2)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가치로 측정한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증가하는지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식 (1)과 식 (2)의 고정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차분을 취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begin{aligned}\Delta D_{it} = & a_1 \Delta D_{it-1} + a_2 \Delta Y_{it} + a_3 \Delta Y_{it-1} + a_4 \Delta PS_{it} + a_5 \Delta PS_{it-1} + a_6 \Delta PM_{it} \\ & + a_7 \Delta PM_{it-1} + a_8 \Delta Z_{it} + a_9 \Delta Z_{it-1} + \mu_{it}\end{aligned}\quad (3)$$

$$\Delta RS_{it} = b_1 \Delta RS_{it-1} + b_2 \Delta Y_{it} + b_3 \Delta Y_{it-1} + \mu_{it}\quad (4)$$

여기서, Δ 는 차분 연산자이다. 식 (3) 및 식 (4)의 교란항 μ_{it} 가 $\mu_{it} = (e_{it} - e_{it-1})$ 로 정의됨을 고려할 때 교란항과 종속변수의 지체항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설명변수의 내생성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형 추정에 사용한 방법은 Arellano and Bond(1991)의 동태적 패널모형을 위한 일반화적률모형(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이다. Arellano and Bond의 GMM방식을 이용하면 관측 불가능한 산업효과를 제거하고, 설명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GMM의 직교조건(orthogonality condition)으로부터 생성되는 도구변수들을 사용하면 지체항 사이의 상관관계와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해결할 수 있다.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산업 물가는 국민계정에

〈표 3-1〉 분석에 사용된 자료 요약

변수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D (만원)	385	31.7	23.5	20.3	98.0
RS	385	0.047	0.031	0.001	0.177
Y (만원)	385	690.2	386.7	218.5	1,444.0
PS	385	0.568	0.459	0.012	2.003
PM	385	0.597	0.333	0.089	1.129
POP(백만명)	385	41.1	4.76	32.2	48.1

서 명목서비스산업 생산과 실질서비스산업 생산을 이용하여 구하였고, 제조업물가는 명목제조업 생산과 실질제조업 생산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연도별·경제활동별 국민소득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인구와 노년부양비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1970년부터 2004년이다.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는 <표 3-1>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Elfring(1989)에 따라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 유통서비스(distributive service) 그리고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생산자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를 포함하며, 개인서비스는 음식 및 숙박과 기타서비스(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를, 유통서비스는 도소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을,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다.

2. 추정 결과

추정 결과는 <표 3-2>~<표 3-8>에 요약되어 있다. 동태적 패널모형의 신뢰성은 도구변수가 제대로 선택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Arellano and Bond에 의하면 과도식별문제(overidentification restriction)를 검정하는 Sargan test를 통해서 도구변수가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만약 잔차항이 자기상관을 갖지 않으면 식 (3)과

식 (4)의 1차 차분된 잔차항이 MA(1) 과정을 따르게 되며 1차 자기상관을 갖지만 2차 또는 그 이상의 자기상관을 갖지는 않는다. 차분방정식의 추정에 따라 Arellano and Bond의 AR(1)과 AR(2)의 통계량은 $N(0,1)$ 의 분포를 갖고, 동시에 AR(1)은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야 하고 AR(2)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아야 한다. <표 3-2>~<표 3-8>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추정모델의 과도식별(over-identification) 검증 결과는 이용된 도구변수들이 유효하다는 귀무가설을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하여 도구변수의 선택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추정식의 검증 결과 AR(1)은 5%의 유의수준에서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만 AR(2)는 모두 기각하지 못함으로써 추정식의 모형이 계량적으로 합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식 (4)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3-2>에 주어져 있다. 소득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비중 변화를 나타내 내는 탄력성은 $-0.1157[(-0.2494+0.1618)/(1-0.2432)]$ 로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가치로 측정된 GDP 대비 서비스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질가치로 측정된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확인한 Falvey and Gemmel(1996)의 추정 결과와 일치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개인 및 유통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생산 및 사회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사회서비스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제2장에서 살펴본 서비스업 및 생산자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추이로부터 일정 정도 추론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인구관련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서비스재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표 2-3>에 제시하였고 인구관련 통제변수인 인구수(POP), 노년 부양비율(AGE) 및 여성 경제활동참가율(FS)을 포함한 추정 결과는 <표 3-4>~<표 3-8>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서비스업 전체를 추정한 결과를 <표 3-3>과 <표 3-4>으로부터 살펴보자. 1인당 국민소득의 추정계수로부터 측정한 소득탄력성은

통제변수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표 3-4>의 첫째 열 $0.96[(0.5215+0.1918)/(1-0.2554)]$ 과 <표 3-3>의 첫째 열의 값 $0.98[(0.5312+0.1965)/(1-0.2553)]$ 에서 볼 수 있듯이 $0.96\sim 0.98$ 의 값을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Clark의 가정과는 달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우 소득탄력도가 1보다 큰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Summers(1985), Falvey and Gemmel(1996)의 추정 결과와 유사하게 단위 탄력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239\sim -0.218$ 의 값을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서비스재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Baumol(1967)의 가설을 확인할 수 있다. 교차탄력성은 $0.314\sim 0.358$ 로 안정적인 값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할 경우 서비스수요는 소득에 대하여는 단위 탄력적이고 가격에 대하여는 비탄력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Falvey and Gemmel(1996)가 실질기준 GDP 대비 서비스 비중 하락에 대해 해석한 바와 유사하게 소득탄력도가 단위 탄력적이고 가격탄력도가 비탄력적일 경우 소득이 상승하면 소득이 증가한 만큼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단위 탄력적이므로) 서비스업의 가격 상승은 수요를 감소시키게 되어(음의 가격탄력도로 인하여) 이 두 효과가 결합할 경우 제2장 [그림 2-11]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실질가치로 계산한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은 감소한다.

한편 인구관련 통제변수의 경우 인구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노년부양비율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기타서비스의 세탁업 및 이·미용업, 보건 및 공공 그리고 법무, 회계, 금융 등 다소 이질적인 산업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Hill, 1977; Gadrey, 2000). 따라서 서비스업 전체를 추정한 결과와 서비스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추정한 결과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을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유통서비스 및 사회서비스로

〈표 3-2〉 서비스산업의 비중과 1인당 GDP : 차분 GMM 추정 결과

	서비스전체	생산	개인	유통	사회
ΔRS_{it-1}	0.2432 ^{***} (0.0526)	0.0660 (0.1028)	0.1356 (0.1230)	0.2580 ^{***} (0.0991)	0.5517 ^{***} (0.0820)
ΔY_{it}	0.2494 ^{***} (0.0674)	0.2490 [*] (0.1540)	0.0719 (0.1154)	0.0446 (0.1374)	0.6500 ^{***} (0.0835)
ΔY_{it-1}	0.1618 ^{***} (0.0632)	0.3989 ^{***} (0.1433)	0.0633 (0.1057)	0.1700 (0.1253)	0.2258 ^{***} (0.0902)
상수항	0.0008 (0.0002)	0.0019 (0.0006)	0.0009 (0.0005)	0.0006 (0.0006)	0.0005 (0.0003)
Sargan test (p value)	304.69 (1.00)	86.95 (1.00)	61.18 (1.00)	96.19 (1.00)	95.17 (1.00)
p value for AR(1) test	0.000	0.000	0.000	0.000	0.000
p value for AR(2) test	0.9682	0.276	0.902	0.060	0.335

주: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이며, ***는 1%, **는 5%,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의미함.

〈표 3-3〉 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결과 : 차분 GMM 추정 결과

	서비스전체	생산	개인	유통	사회
ΔD_{it-1}	0.2553 ^{***} (0.0520)	0.0513 (0.1024)	0.1171 (0.1133)	0.2400 ^{***} (0.1009)	0.6275 ^{***} (0.0789)
ΔY_{it}	0.5312 ^{***} (0.0833)	0.6741 ^{***} (0.1935)	0.7956 [*] (0.1405)	0.6302 ^{***} (0.1674)	0.1588 [*] (0.0990)
ΔY_{it-1}	0.1965 ^{***} (0.0659)	0.5874 ^{***} (0.1547)	0.2239 ^{**} (0.1166)	0.0250 (0.1333)	0.0500 (0.0745)
ΔPS_{it}	0.1626 ^{***} (0.0354)	0.0608 (0.0664)	0.1014 (0.0856)	0.2891 ^{***} (0.0708)	0.0747 (0.0476)
ΔPS_{it-1}	0.0082 (0.0369)	0.0394 (0.0673)	0.0751 (0.0932)	0.0335 (0.0749)	0.0226 (0.0504)
ΔPM_{it}	0.0317 (0.0723)	0.0750 (0.1677)	0.2236 (0.1293)	0.0014 (0.1370)	0.0809 (0.0866)
ΔPM_{it-1}	0.2359 ^{***} (0.0617)	0.1902 (0.1382)	0.3508 ^{***} (0.1175)	0.1905 (0.1225)	0.2688 ^{***} (0.0739)
상수항	0.0007 (0.0006)	0.0009 (0.0013)	0.0002 (0.0009)	0.0019 (0.0011)	0.0001 (0.0006)
Sargan test (p value)	308.68 (1.00)	84.94 (1.00)	62.73 (1.00)	93.58 (1.00)	89.43 (1.00)
p value for AR(1) test	0.000	0.000	0.000	0.000	0.000
p value for AR(2) test	0.775	0.431	0.344	0.153	0.274

주: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이며, ***는 1%, **는 5%,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3-4〉 통제변수를 고려한 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결과 : 서비스업 전체

ΔD_{it-1}	0.2554 ^{***} (0.0519)	0.2589 ^{***} (0.0520)	0.2595 ^{***} (0.0525)
ΔY_{it}	0.5215 ^{***} (0.0931)	0.4985 ^{***} (0.0896)	0.5142 ^{***} (0.0879)
ΔY_{it-1}	0.1918 ^{***} (0.0679)	0.2306 ^{***} (0.0709)	0.1989 ^{***} (0.0692)
ΔPS_{it}	0.1635 ^{***} (0.0358)	0.1793 ^{***} (0.0368)	0.1633 ^{***} (0.0356)
ΔPS_{it-1}	0.0072 (0.0371)	0.0221 (0.0378)	0.0072 (0.0371)
ΔPM_{it}	0.0336 (0.0752)	0.0664 (0.0785)	0.0342 (0.0727)
ΔPM_{it-1}	0.2342 ^{**} (0.0644)	0.2659 ^{***} (0.0639)	0.2348 ^{***} (0.0622)
ΔPOP_{it}	0.2501 (3.7472)		
ΔPOP_{it-1}	0.9105 (3.6904)		
ΔAGE_{it}		0.1452 (0.2008)	
ΔAGE_{it-1}		0.3829 [*] (0.2119)	
ΔFS_{it}			0.1108 (0.1917)
ΔFS_{it-1}			0.0013 (0.1904)
상수항	0.0010 (0.0011)	0.0017 ^{***} (0.0007)	0.0007 (0.0006)
Sargan test (p value)	306.80 (1.00)	307.48 (1.00)	306.86 (1.00)
p value for AR(1) test	0.000	0.000	0.000
p value for AR(2) test	0.762	0.749	0.719

주: ()안은 표준오차. ***는 1%, **는 5%,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가리킴.

〈표 3-5〉 통제변수를 고려한 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결과 : 생산자서비스

ΔD_{it-1}	0.0101 (0.1019)	0.0542 (0.1067)	0.0464 (0.1025)
ΔY_{it}	0.8075*** (0.2075)	0.5453*** (0.2092)	0.6815*** (0.2038)
ΔY_{it-1}	0.5893*** (0.1513)	0.6965*** (0.1689)	0.6352*** (0.1612)
ΔPS_{it}	0.0446 (0.0648)	0.0685 (0.0677)	0.0547 (0.0667)
ΔPS_{it-1}	0.0467 (0.0655)	0.0528 (0.7007)	0.0290 (0.0695)
ΔPM_{it}	0.1976 (0.1682)	0.060154 (0.1859)	0.0686 (0.1681)
ΔPM_{it-1}	0.2860** (0.1384)	0.2309* (0.1415)	0.1828 (0.1389)
ΔPOP_{it}	20.3357*** (8.6970)		
ΔPOP_{it-1}	9.6340 (8.3159)		
ΔAGE_{it}		0.2193 (0.4745)	
ΔAGE_{it-1}		0.8012* (0.4862)	
ΔFS_{it}			0.1756 (0.4545)
ΔFS_{it-1}			0.4634 (0.4477)
상수항	0.0039 (0.0025)	0.0024 (0.0017)	0.0012 (0.0013)
Sargan test (p value)	84.87 (1.00)	81.06 (1.00)	84.15 (1.00)
p value for AR(1) test	0.000	0.000	0.000
p value for AR(2) test	0.265	0.317	0.600

주: ()안은 표준오차. ***는 1%, **는 5%,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가리킴.

〈표 3-6〉 통제변수를 고려한 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결과 : 개인서비스

ΔD_{it-1}	0.1184 (0.1176)	0.1344 (0.1123)	0.1785 (0.1185)
ΔY_{it}	0.7516*** (0.1609)	0.7135*** (0.1450)	0.7166*** (0.1474)
ΔY_{it-1}	0.2074* (0.1247)	0.2923*** (0.1178)	0.2183* (0.1195)
ΔPS_{it}	0.1254 (0.0960)	0.0976 (0.0960)	0.0846 (0.0877)
ΔPS_{it-1}	0.0721 (0.0960)	0.0954 (0.0993)	0.0879 (0.0936)
ΔPM_{it}	0.2320* (0.1332)	0.3075** (0.1374)	0.2343* (0.1294)
ΔPM_{it-1}	0.3354*** (0.1250)	0.4043*** (0.1261)	0.3791*** (0.1184)
ΔPOP_{it}	2.9578 (6.6438)		
ΔPOP_{it-1}	3.9763 (6.6892)		
ΔAGE_{it}		0.1865 (0.3716)	
ΔAGE_{it-1}		0.5425** (0.3532)	
ΔFS_{it}			0.5233* (0.3274)
ΔFS_{it-1}			0.1333 (0.3262)
상수항	0.0006 (0.0019)	0.0006 (0.0013)	0.0003 (0.0009)
Sargan test (p value)	60.07 (1.00)	66.44 (1.00)	59.61 (1.00)
p value for AR(1) test	0.000	0.00	0.00
p value for AR(2) test	0.335	0.181	0.563

주: ()안은 표준오차. ***는 1%, **는 5%,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가리킴.

〈표 3-7〉 통제변수를 고려한 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결과 : 유통서비스

ΔD_{it-1}	0.2134 ^{***} (0.1011)	0.2304 ^{**} (0.1024)	0.2489 ^{***} (0.1018)
ΔY_{it}	0.5274 ^{***} (0.1829)	0.6908 ^{***} (0.1803)	0.5964 ^{***} (0.1744)
ΔY_{it-1}	0.0495 (0.1365)	0.0040 (0.1451)	0.0423 (0.1395)
ΔPS_{it}	0.2936 ^{***} (0.0700)	0.3057 ^{***} (0.0724)	0.2787 ^{***} (0.0713)
ΔPS_{it-1}	0.0622 (0.0752)	0.0481 (0.0769)	0.0442 (0.0754)
ΔPM_{it}	0.0909 (0.1407)	0.0445 (0.1509)	0.0134 (0.1377)
ΔPM_{it-1}	0.1132 (0.1248)	0.1946 (0.1264)	0.2113 [*] (0.1235)
ΔPOP_{it}	17.6814 ^{***} (7.0726)		
ΔPOP_{it-1}	9.3449 (7.0833)		
ΔAGE_{it}		0.5385 (0.3873)	
ΔAGE_{it-1}		0.0104 (0.4148)	
ΔFS_{it}			0.5065 (0.3792)
ΔFS_{it-1}			0.6858 [*] (0.3761)
상수항	0.0000 (0.0021)	0.0027 [*] (0.0016)	0.0016 (0.0012)
Sargan test (p value)	90.07 (1.00)	90.56 (1.00)	89.20 (1.00)
p value for AR(1) test	0.00	0.00	0.00
p value for AR(2) test	0.161	0.141	0.291

주: ()안은 표준오차. ***는 1%, **는 5%,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가리킴.

〈표 3-8〉 통제변수를 고려한 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결과 : 사회서비스

ΔD_{it-1}	0.6274 ^{***} (0.0796)	0.6283 ^{***} (0.0796)	0.6236 ^{***} (0.0792)
ΔY_{it}	0.1936 [*] (0.1133)	0.1461 (0.1066)	0.1852 [*] (0.1037)
ΔY_{it-1}	0.0570 (0.0776)	0.0665 (0.0822)	0.0595 (0.0782)
ΔPS_{it}	0.0682 (0.0490)	0.0858 (0.0580)	0.0783 (0.0482)
ΔPS_{it-1}	0.0290 (0.0524)	0.0285 (0.0527)	0.0198 (0.0507)
ΔPM_{it}	0.0631 (0.0911)	0.0914 (0.0932)	0.0824 (0.0867)
ΔPM_{it-1}	0.2873 ^{***} (0.0792)	0.2830 ^{***} (0.0802)	0.2657 ^{***} (0.0746)
ΔPOP_{it}	2.8709 (4.4668)		
ΔPOP_{it-1}	2.9104 (4.4359)		
ΔAGE_{it}		0.0125 (0.2576)	
ΔAGE_{it-1}		0.1437 (0.2891)	
ΔFS_{it}			0.2253 (0.2224)
ΔFS_{it-1}			0.1479 (0.2264)
상수항	0.0003 (0.0013)	0.0002 (0.0010)	0.0002 (0.0006)
Sargan test (p value)	87.36 (1.00)	87.59 (1.00)	88.34 (1.00)
p value for AR(1) test	0.000	0.00	0.00
p value for AR(2) test	0.325	0.243	0.394

주: ()안은 표준오차. ***는 1%, **는 5%,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가리킴.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소득탄력성, 가격탄력성, 교차탄력성이 산업별로 서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산자서비스 및 개인서비스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통서비스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0.733~1.02, 사회서비스는 0.420~0.519로서 단위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탄력성은 유통서비스에서만 가격에 대한 탄력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격에 대하여 수요가 비탄력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표적인 유통서비스라 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업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표 2-10 참조) 통신서비스업을 비롯한 유통서비스업의 수요 증가는 가격 하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산, 개인 및 사회서비스의 경우는 해당 서비스의 가격탄력성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차탄력성은 가격탄력성과 상이한 추이를 보여주었다. 가격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통서비스를 제외하고 생산, 개인 및 사회서비스의 경우는 제조업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의 경우 Elfring(1989)에서 지적하듯이 제조업의 식료품과 서비스업의 음식업이 대체관계이고(예를 들어 냉동피자와 수제피자) 주방기기 및 가전제품(세탁기, 오븐 및 TV 및 음향기기)이 그리고 가사서비스 및 오락 및 문화서비스가 대체관계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탄력성을 산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통제변수 포함에 관계없이 생산자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소득탄력도가 1보다 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서비스업이 소득에 대하여 탄력적이라는 통상적 가정은 서비스업 전반보다는 생산자서비스와 개인서비스에 한정된 사실이라 하겠다. 이는 앵겔법칙이 예상하듯이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개인서비스 특히 문화·오락·스포츠활동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소비패턴의 결과로 해석되며, 또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희박해지고 기업 외부의 전문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격탄력성의 경우 서비스수요는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라는 통

상적 가정(Baumol, 1967) 및 기존 실증연구 결과(Falvey and Gemmel 1996; Summers, 1985)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서비스수요도 비탄력적임을 발견할 수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하여도 추정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통제변수인 인구 증가의 경우 생산자서비스와 유통서비스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개인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시장경쟁이 심화되어 지대가 없어지고 생산자서비스 생산의 효율화가 추구된 결과로 해석된다. 유통서비스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통신 수요와 신속한 물류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남으로써 인구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구조 변화의 측면인 노년부양비율이 서비스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생산자서비스와 개인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가사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노후를 대비한 금융, 보험 및 연금에 대한 서비스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개인 및 유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lfring(1989)의 지적처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가사서비스, 음식 및 숙박, 그리고 도소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고용의 서비스와 결정요인

1. 추정모형의 도출

Baumol의 모형(1967)처럼 경제에는 2개의 섹터, 즉 제조업(m)과 서비스섹터(s)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서비스 섹터 s 의 노동생산성 π_s 는

정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pi_s = \frac{Q_s}{N_s} \quad (5)$$

식 (5)에서 Q_s 는 서비스섹터의 산출량(혹은 수요량)을, N_s 는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량을 나타낸다.

$$P_s = \frac{W_s}{\pi_s} \quad (6)$$

식 (6)은 물가 형성에 관한 식으로 서비스섹터의 물가수준은 단위비용, 즉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W_s)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임금은 Baumol(1967)처럼 완전고용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하여 서비스업 부문의 임금증가율과 제조업의 임금증가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제조업의 임금증가율(\hat{W}_m)은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hat{\pi}_m$)에 연동되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즉 $\hat{W}_s = \hat{W}_m = \hat{W} = \hat{\pi}_m$ 이다. 나아가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증가율보다 높다고 가정한다. 즉 $\hat{\pi}_m > \hat{\pi}_s$ 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Q_s)는 가격과 소득의 함수이고 소득은 임금소득 W 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Q_s = f(P_s, W),$$

$$\text{여기서 } \frac{dQ_s}{dP_s} < 0, \frac{dQ_s}{dW} > 0 \quad (7)$$

식 (7)에서 서비스가격이 상승할수록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식 (5), (6), (7)을 증가율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at{N}_s = \hat{Q}_s - \hat{\pi}_s \quad (8)$$

$$\hat{P}_s = \hat{W}_s - \hat{\pi}_s = \hat{W}_m - \hat{\pi}_s = \hat{\pi}_m - \hat{\pi}_s \quad (9)$$

$$\hat{Q}_s = \eta \hat{W} - \epsilon \hat{P}_s = \eta \hat{\pi}_m - \epsilon \hat{P}_s \quad (10)$$

식 (10)에서 η 는 소득탄력도, 그리고 ϵ 는 가격탄력도이다.

식 (8) ~ 식 (10)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 (11)이 유도 된다.

$$\hat{N}_s = (\eta - \epsilon) \hat{\pi}_m + (\epsilon - 1) \hat{\pi}_s \quad (11)$$

그리고 식 (11)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hat{N}_s = (\eta - 1) \hat{\pi}_m + (1 - \epsilon) (\hat{\pi}_m - \hat{\pi}_s) \quad (12)$$

만일 경제 전체의 고용증가율 \hat{N} 이 β_0 로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서비스 섹터의 고용비중 증가율 식 (12)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hat{N}_s - \hat{N} &= (\eta - 1) \hat{\pi}_m + (1 - \epsilon) (\hat{\pi}_m - \hat{\pi}_s) - \beta_0 \\ &= (\eta - 1) \hat{W} + (1 - \epsilon) (\hat{\pi}_m - \hat{\pi}_s) - \beta_0 \end{aligned} \quad (13)$$

식 (13)은 서비스섹터의 고용비중 변화가 두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됨을 나타낸다. 우변의 첫째 항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탄력적이면 ($\eta > 1$), 소득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부문의 고용증가율이 경제 전체의 고용증가율을 상회하여)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증가하게 됨을 시사한다. 우변의 둘째 항은 수요가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면 ($0 < \epsilon < 1$), 제조업-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가 클수록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증가하게 됨을 시사한다.

그리고 정의에 의하여 고용증가율은 수요증가율에서 생산성증가율을 차감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식 (14)가 성립한다:

$$\hat{N}_s - \hat{N}_m = (\hat{Q}_s - \hat{Q}_m) + (\hat{\pi}_m - \hat{\pi}_s) \quad (14)$$

식 (14)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산출기준 서비스업의 비중이 일정할 경우, 즉 $\hat{Q}_s = \hat{Q}_m$ 일 경우 서비스업 부문 고용비중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hat{N}_s > \hat{N}_m$) 제조업의 생산성증가율이 서비스업의 생산성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hat{\pi}_s < \hat{\pi}_m$). 즉 제조업의 생산성증가율이 서비스업의 생산성증가율보다 높을 때 실질산출기준 서비스업의 비중이 일정하다고 할지라도 고용기준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한국경제 추이에서 실질기준 GDP 대비 서비스 비중이 일정하더라도 고용기준 서비스сек터의 고용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한 이유는 바로 식 (14)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 추정모형 및 자료

서비스 부문의 고용함수는 식 (13)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data model)을 상정하여 추정하기로 하자.

$$S_{it} = a_1 S_{it-1} + a_2 Y_{it-1} + a_3 Y_{it} + a_4 Gap_{it-1} + a_5 Gap_{it} + v_i + e_{it} \quad (15)$$

S 는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이고, i 는 산업, t 는 기간, Y 는 1인당 실질 GDP, Gap 는 생산성 격차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이다. 따라서 Y 는 소득 증가에 따라 서비스 부문이 확대된다는 수요편향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하였고, Gap 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가 빠르다는 생산성 격차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그리고 식 (15)에서 v_i 는 각 산업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효과(fixed effect)를 나타낸다. e_{it} 는 오차항으로

서 동일독립분포를 갖는다(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고 가정한다. 위 추정모형에서 첫 번째 설명변수는 수요의 1계 시차변수(lagged variable)로 자기회기적(autoregressive) 관계를 가정하였다. 또한 여타 설명변수에도 1계 시차변수(lagged variables)들을 고려하였다.

먼저 식 (15)의 고정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차분을 취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begin{aligned} \Delta S_{it} = & a_1 \Delta S_{it-1} + a_2 \Delta Y_{it-1} + a_3 \Delta Y_{it} + a_4 \Delta Gap_{it-1} \\ & + a_5 \Delta Gap_{it} + \mu_{it} \end{aligned} \quad (16)$$

식에서 Δ 는 차분 연산자이며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 및 GDP에 대한 자료는 OECD의 STAN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로그를 취하였다. 분석 기간은 1979년부터 2002년이며,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는 <표 3-9>에 제시하였다.

서비스산업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산업을 구분하였다. 첫째, Elfring(1989)에 따라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유통서비스 그리고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부표 1 참조). 둘째, D'Agostino, Serafini and Ward-Warmedinger(2006)에 따라 다음 4개의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도소매·숙박·음식업, 운수·보관·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사회·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다(부표 2 참조). D'Agostino, Serafini and Ward-Warmedinger의 분류는 위의 Elfring의 분류와 유사하다.¹¹⁾ 특히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은 Elfring 분류의 생산자서비스업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유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과 개인서비스로 분류되는 음식·숙박업을 하나의 범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Elfring 분류와 차이를 보인다. 도소매·숙박·음식업을 하나의 독립적 범주로 묶는 것은 영세하고 대규모화하기 힘든 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중 증가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공래·박재민·황정태·김

11) 특히 금융·보험·부동산 및 비즈니스서비스는 Elfring의 생산자서비스와 일치하는 범주이다.

〈표 3-9〉 분석에 사용된 자료 요약

변수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생산자서비스	<i>S</i>	216	0.007	0.006	0.000	0.023
	<i>Y</i>	216	13.830	5.104	6.729	22.743
	<i>Gap</i>	216	2.060	5.044	0.035	44.979
개인서비스	<i>S</i>	48	0.036	0.031	0.004	0.092
	<i>Y</i>	48	13.830	5.146	6.729	22.744
	<i>Gap</i>	48	6.272	6.526	1.083	31.010
유통서비스	<i>S</i>	192	0.028	0.032	0.007	0.122
	<i>Y</i>	192	13.830	5.106	6.729	22.744
	<i>Gap</i>	192	1.649	1.939	0.162	13.022
사회서비스	<i>S</i>	96	0.033	0.014	0.006	0.066
	<i>Y</i>	96	13.831	5.119	6.729	22.744
	<i>Gap</i>	96	1.716	2.099	0.265	9.558
도소매·숙박·음식업	<i>S</i>	96	0.059	0.031	0.018	0.122
	<i>Y</i>	96	13.830	5.119	6.729	22.744
	<i>Gap</i>	96	3.288	3.367	0.923	18.405
운수·보관·통신업	<i>S</i>	120	0.010	0.013	0.000	0.042
	<i>Y</i>	120	13.831	5.114	6.729	22.744
	<i>Gap</i>	120	0.969	1.059	0.162	6.744
금융·보험·부동산· 사업서비스업	<i>S</i>	216	0.007	0.006	0.000	0.023
	<i>Y</i>	216	13.830	5.104	6.729	22.743
	<i>Gap</i>	216	2.060	5.044	0.035	44.979
사회·개인서비스업	<i>S</i>	120	0.028	0.016	0.004	0.066
	<i>Y</i>	120	13.830	5.114	6.729	22.744
	<i>Gap</i>	120	2.961	4.537	0.265	31.010
지식집약적 서비스업	<i>S</i>	240	0.011	0.014	0.000	0.059
	<i>Y</i>	240	13.831	5.103	6.729	22.744
	<i>Gap</i>	240	2.070	4.834	0.189	44.979
기타서비스업	<i>S</i>	312	0.029	0.029	0.000	0.122
	<i>Y</i>	312	13.830	5.100	6.729	22.744
	<i>Gap</i>	312	2.341	3.539	0.035	31.010

은경(2002)에 따라 서비스업을 지식기반서비스와 여타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다(부표 3 참조).

<표 3-10>~<표 3-12>는 서비스 산업분류별 식 (16)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모형의 과다식별(over-identification) 여부를 검증한 결과는 이용된 도구변수들이 유효하다는 귀무가설을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하여 도구변수의 선택이 적절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모든 추정식의 검증 결과 1기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 $AR(1)$ 은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종속변수로 할 때와는 달리 일부 추정식이 2기 이상의 자기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모형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표 3-10>~<표 3-12>의 10개의 추정식 중 <표 3-10>의 생산자서비스 추정식과 <표 3-11>의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추정식은 일치하므로 모두 9개의 추정식이다. 이 중 <표 3-10>의 생산자서비스 추정식(=<표 3-11>의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추정식)과 유통서비스 추정식, <표 3-11>의 운수·보관·통신업 추정식, 그리고 <표 3-12>의 지식집약서비스업 추정식의 4개 추정식에서는 2기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 $AR(2)$ 을 1% 유의수준에서만 기각할 수 없을 뿐 5%의 유의수준에서는 기각할 수 있는 영역에 통계량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상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서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GDP가 증가하면 <표 3-10>의 생산자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표 3-11>의 운수·보관·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사회·개인서비스업, <표 3-12>의 지식집약적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추정식들에서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부터 소득 증가가 서비스화를 진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Clark(1940)의 수요편향가설은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0>의 생산자서비스업 고용비중 추정식의 소득탄력성은 0.363으로서 나와 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업 고용비중이 0.36%씩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3-10>의 개인서비스업 고용비중 추정식에서 소득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된 1기

지체항의 계수만을 고려하더라도 $2.559 [= 1.804 / (1 - 0.295)]$ 로 나타난 반면 <표 3-11>의 도소매·숙박·음식업의 고용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추정식에서는 -0.583으로 음(陰)의 값을 가져 도소매업의 고용비중은 소득 증가에 따라 대폭 감소해 왔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마찬가지로 <표 3-10>의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 추정식에서 소득탄력도는 $-1.046 [= -0.635 / (1 - 0.393)]$ 수준으로서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비중은 그에 상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반면, <표 3-11>의 사회개인서비스업 고용비중 추정식에서는 1.17 정도로 큰 양(陽)의 소득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어, 순수사회서비스업 고용은 소득 증가에 따라 상응하게 증가하지 못했으나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스, 가사서비스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용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표 3-10>의 개인서비스업 고용비중 추정식과 <표 3-11>의 도소매·숙박·음식업 고용비중 추정식을 제외하면 모든 추정식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고용비중 증가에 정(正)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제조업과 각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될수록 각 서비스업의 고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제조업보다 낮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서비스화의 배경을 이룬다는 Baumol의 가설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표 3-10>의 생산자서비스업 고용비중 추정식 (이는 <표 3-11>의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고용비중 추정식과 일치한다) 그리고 <표 3-12>의 분류에 의한 지식집약서비스업 고용비중 추정식,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업 고용비중 추정식에서만 소득 증가 및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동시에 고용비중에 정(正)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Clark(1940)나 Baumol의 가설 검증이 서비스업의 분류에 의해 크게 영향받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에 관해서는 이들 일반적인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고 생산자서비스업과 같이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낮으리라고 예상되는 부문에서만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영세하고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큰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비중 증가는 서비

스화에 대한 전통적인 가설인 소득증가가설과 생산성격차가설을 동시에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Elfring(1989)의 서비스산업 분류에 기초한 고용비중 변화 결정요인 추정 결과

	생산자	개인	유통	사회
$\Delta S_{i,t-1}$	0.005 (0.06)	0.295** (2.18)	0.305*** (4.41)	0.393*** (4.10)
$\Delta y_{i,t}$	0.028 (0.13)	0.732 (0.79)	0.005 (0.04)	-0.635*** (-2.75)
$\Delta y_{i,t-1}$	0.363** (2.23)	1.804*** (2.74)	0.047 (0.48)	0.077 (0.47)
$\Delta Gap_{i,t}$	0.264*** (7.05)	0.000 (0.00)	0.093*** (3.00)	0.374*** (7.86)
$\Delta Gap_{i,t-1}$	-0.190*** (-4.96)	-0.007 (-0.04)	-0.072 (-2.31)	-0.226*** (-3.82)
상수항	-0.003*** (-2.64)	0.002 (0.66)	0.000 (0.47)	-0.003*** (-2.75)
Sargan test	1.00	1.00	0.99	1.00
p-value for AR(1) test	0.00	0.00	0.00	0.00
p-value for AR(2) test	0.02	0.76	0.03	0.16
Number of Observations	189	42	168	84

주: ()안은 t 값을 나타내며, ***는 1%, **는 5%,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3-11〉 D'Agostino, Serafini and Ward-Warmedinger(2006)의 서비스
산업 분류에 기초한 고용비중 변화 결정요인 추정 결과

	도소매·음식 및 숙박	운수·저장 및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및 비즈니스	사회 및 개인
$\Delta S_{i,t-1}$	0.148 (1.32)	0.390 ^{***} (4.72)	0.005 (0.06)	0.348 ^{***} (4.22)
$\Delta y_{i,t}$	-0.583 ^{***} (-3.27)	0.478 ^{***} (3.05)	0.028 (0.13)	-0.213 (-0.52)
$\Delta y_{i,t-1}$	-0.131 (-0.86)	0.142 (1.28)	0.363 ^{**} (2.23)	0.764 ^{***} (2.63)
$\Delta Gap_{i,t}$	0.059 (1.20)	0.074 ^{**} (2.20)	0.264 ^{***} (7.05)	0.272 ^{***} (3.34)
$\Delta Gap_{i,t-1}$	0.004 (0.07)	-0.092 ^{***} (-2.73)	-0.190 ^{***} (-4.96)	-0.189 ^{**} (-2.28)
상수항	-0.003 ^{***} (-3.13)	0.002 ^{***} (2.90)	-0.003 ^{***} (-2.64)	-0.001 (-0.63)
Sargan test	1.00	1.00	1.00	1.00
p-value for AR(1) test	0.00	0.00	0.00	0.00
p-value for AR(2) test	0.46	0.01	0.02	0.48
Number of Observations	84	105	189	105

주: 괄호안은 t 값을 나타내며, ***는 1%, **는 5%,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3-12〉 이공래·박재민·황정태·김은영(2002)의 지식산업 분류에 기초한 고용비중 변화 결정요인 추정 결과

	지식집약서비스	기타서비스
$\Delta S_{i,t-1}$	0.087 (1.29)	0.300*** (5.82)
$\Delta y_{i,t}$	0.008 (0.04)	0.075 (0.42)
$\Delta y_{i,t-1}$	0.383*** (2.61)	0.334*** (2.50)
$\Delta Gap_{i,t}$	0.266*** (6.91)	0.178*** (5.04)
$\Delta Gap_{i,t-1}$	-0.155*** (-3.82)	-0.159*** (-4.53)
상수항	-0.003*** (-2.54)	-0.000 (-0.09)
Sargan test	0.99	0.50
p-value for AR(1) test	0.00	0.00
p-value for AR(2) test	0.03	0.12
Number of Observations	210	273

주: ()안은 t 값. ***는 1%, **는 5%,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가리킴.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서비스 부문의 확대

우리나라의 서비스화는 1980년대와 1990년에 걸쳐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함수 및 고용비중함수를 추정을 통해 서비스화를 규정하는 원인이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수요편향가설)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더딘 데 기인한다(생산성격차가설)는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 인구수뿐만 아니라 노년부양비율과 같은 인구 구성변화 요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노동시장 구성변화 요인을 통제변수로 개입시켜 이들 변수가 서비스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 기준으로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경우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다. 그리고 서비스업을 4개 부문(생산, 개인, 유통, 사회)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에만 소득 증가에 따라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업의 경우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업 전체를 하나의 부문으로 두고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소득탄력도를 측정한 결과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Clark(1940) 등이 이야기하는 수요편향가설을 해석, 산업화된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전망, 그리고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등을 해석할 때 주의를 필요로 한다.

둘째, 서비스는 매우 이질적인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정할 경우 서비스업의 다양성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생산, 유통, 개인 및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통제변수 포함에 관계없이 수요가 소득에 대하여 탄력적인 산업은 서비스업 중 생산자서비스업의 개인서비스업만이 해당하였다. 따라서 Clark(1940)의 설명처럼 서비스수요의 높은 소득탄력성과 소득 증가가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었다는 가설은 생산자서비스와 개인서비스에서만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인구관련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택하였는데 추정 결과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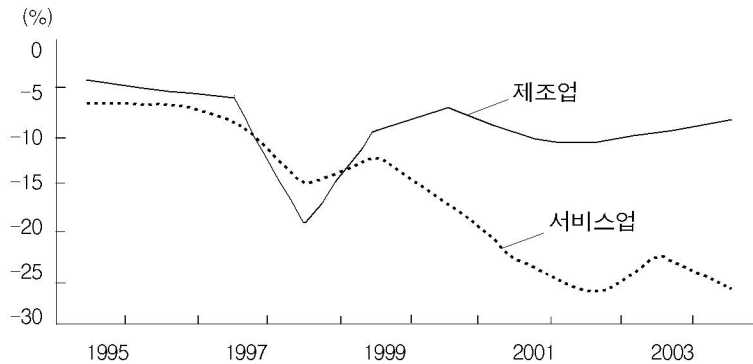
는 생산자서비스 및 유통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부양비율 증가는 생산자서비스와 개인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개인서비스와 유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득 증가에 따라 서비스재 수요가 증가한다는 Clark(1940)의 수요편향가설을 살펴보기 위하여 1인당 GDP 증가가 서비스업 고용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화에 있어 소득 증가가 지배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Clark 가설을 대부분의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생산자서비스업 고용비중과 개인서비스업 고용비중의 소득탄력성이 각각 0.363과 2.559로 나타나 소득 증가에 따라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정도가 가장 매우 서비스업 부문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업을 포함하는 개인서비스업 고용비중의 소득탄력성은 과도하게 큰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업의 고용비중 소득탄력성은 -0.583으로 나타나 도소매업의 고용비중은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2장에서 확인했던 바이기도 하다. 한편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소득에 대한 탄력도가 -1.046로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서비스화의 배경으로 제조업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강조하는 Baumol(1967)의 가설은 도소매업·숙박·음식업을 제외하면 모든 서비스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Clark와 Baumol의 가설을 동시에 충족하는 서비스업은 생산자서비스업 정도에 불과했다.

위의 네 번째 사실에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함의는 숙박·음식업의 적절한 고용비중에 관한 점이다. 숙박·음식업 부문의 고용비중이 증가한 배경은 제조업이나 생산자서비스업 부문과 같이 시장기제가 상대적으로 더 작동하고 비공식 부문이 적은 부문에서 임금근로자 일자리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결과라고 해석되어 왔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보다 높은 기대소득 때문에 이들 업종에 창업이 늘었던 데 기인한다고 해석되기도 했다. 1979~2002년 기간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

(그림 3-1) 제조업과 서비스업 하위 10% 기업의 영업이익률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6),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언」.

면 고용비중의 소득탄력성이 지나치게 높고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은 이들 개인서비스업종의 고용을 규정한 지배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소득 증가에 따라 숙박·음식업 수요가 늘어난 정도보다 그 이상으로 이들 부문의 고용이 과잉 비대해졌으며 서비스재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수준을 능가했으리라고 짐작케 한다. 이러한 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숙박·음식업의 구조조정을 낳고 2003년에 고용없는 성장 현상을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이 2003년에 일시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여전히 서비스업의 자영업자 및 저생산성 기업군의 수익률 악화는 자본을 잠식하고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로 심각하고(그림 3-1) 그 상당수가 이들 숙박·음식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고용비중에 관한 점이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은 경제발전 과정에 따른 소득 증가라는 견지에서 볼 때 그 비중이 적절하게 성장해 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 부문은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 고용은 국제비교 차원에서뿐

만 아니라 그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GDP 증가에 상응하게 고용비중이 증가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의 다른 쪽 대극(對極)에는 사회서비스업 고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여건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 몇 가지 단초들을 거론해 보면 아래와 같다.

-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기록하여 고연령자들을 위한 정책수요,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전문요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저출산 경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육 및 보육지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세계적 규모로 광역화하는 환경 속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요구되고 있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사회안전망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문요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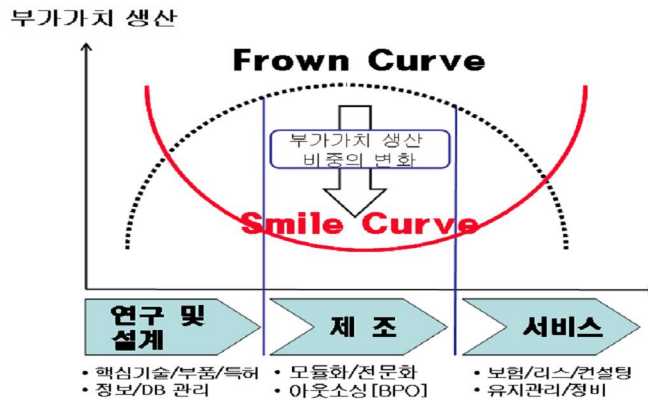
이러한 수요들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순간에 매우 비효율적인 형태로 사회서비스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서비스직의 증가

이상에서 우리는 서비스업 부문이나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비중을 직접적 분석 대상으로 삼았지만 제조업 내에서 서비스 직종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 언뜻 Clark 가설의 연장선상에서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관해 엄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제 의식과 분석틀이 필요하다. 엄밀한 연구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것을 규정하는 요인의 일단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제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기능직과 사무직의 증가 현상은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 생산비중이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말까지 제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하는 주요 원천이었다. 그러나 기술개발 동기를 촉진하려는 국제적

[그림 3-2]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제조 전단계와 후단계에 위치한 서비스가 주요 부가가치 원천임을 보여주는 스마일곡선(Smile Curve)



규모의 일반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 소비자의 기호 및 소비지출 구조변화, 제조공정 자체를 모듈화·전문화를 가능케 한 기술발전, 한 기업의 생산기지를 세계적 규모로 광역화할 수 있게 만든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은 협의의 제조품 생산공정보다는 연구개발, 디자인, 고객관리, 소비자금융 등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현저하게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제조공정 전단계와 후단계에 위치한 서비스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증가시켰다(그림 3-2 참조). 그러한 예는 기업활동의 변화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대표 제조업 기업 중의 하나인 삼성전자는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LG전자도 유사하게 연구개발 인력 채용을 늘려 왔다. 기존 제조업 제품의 가치사슬 분화가 연구개발,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에 힘입어 제조업 자체 내에 서비스업 부문이 확대되고 제조업의 체질 자체가 보다 서비스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기업으로 변신 중인 소니가 WEGA 시리즈로 대표되는 TV, VAIO 브랜드의 노트북PC, CLEO 상표의 휴대폰,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게임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지만 이윤은 관련서비스 부문에서 얻

고 하드웨어 사업에서는 원가 이하의 공급을 하기도 한다. 고객과 자사를 잇는 가교로서 제조품을 활용하기 위해 전통적 하드웨어 사업을 강화하지만 고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제조업 내에서 그리고 독립 법인의 형태로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제조공정 자체보다 서비스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현상은 소니 외의 다른 기업에서도 발견된다. 세계적인 가전제품 회사인 제네럴일렉트릭이 가전제품보다 GE 캐피탈로 대변되는 소비자금융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GE플라스틱조차 메카하고 금융,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유통기업인 프랑스의 까르푸(Carrefour)가 유통업 자체보다 금융에서 올리는 수익이 더 크다. 현대캐피탈이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에도 기여하고 GE의 소비자금융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점 또한 잘 알려진,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은 사실들 중의 하나이다.

기업의 가치사슬이 이처럼 변화하고 있다면 경제의 서비스화에서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혹은 오히려 더,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측면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을 막론하고 고직능직 수요를 증가시키고 제조업에서 사무직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판단된다.

소득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증가는 경상가격으로 평가할 때에는 OECD 국가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현상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한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실질가치로 평가한 제조업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위에서 살펴본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초래하는 기업 현장의 변화 사례들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는 증거들이다. 또한 서비스업의 발전이 반드시 성장률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성 높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높이는 일은 오히려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도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경제 전반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의 확대가 생산성 저하와 성장률 저하를 가져오는 ‘보물의 세계

(Baumol's World)'와는 달리 서비스업의 확대가 생산성과 성장률을 증진시키는 '울튼의 세계(Oulton's World)'가 존재하며, 그 관건은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는 것이다.

〈부표 3-1〉 Elfring(1988)의 서비스업 분류

	산 업	ISIC rev3
생산자서비스업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컴퓨터서비스, 연구개발, 법률 및 기술자문, 광고, 기타 사업서비스	65~67, 70, 71~73, 741~743, 749
개인서비스업	숙박, 음식, 기타서비스	55, 95
유통서비스업	도소매, 운수, 보관, 통신업	50~52, 60~63, 64
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복지, 기타사회서비스	75, 80, 85, 90~93

〈부표 3-2〉 Antonello D'Agostino, Roberta Serafini and Melanie Ward- Warmedinger(2006)의 서비스업 분류

	산업	ISIC rev3
도소매·숙박·음식업	도소매, 숙박, 음식	50~52, 55
운수·보관·통신업	운수, 보관, 통신	60~64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컴퓨터서비스, 연구개발, 법률 및 기술자문, 광고, 기타 사업서비스	65~67, 70, 71~73, 741~743, 749
사회·개인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복지, 기타 사회 및 개인, 가사서비스	75, 80, 85, 90~93, 95

주: D'Agostino et al.의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은 Elfring의 생산자서비스와 동일함.

〈부표 3-3〉 이공래·박재민·황정태·김은경(2002)에 의한 지식집약적서비스와 기타산업 분류

	산업	ISIC rev3
지식집약서비스업	통신, 금융, 보험, 정보처리, 연구개발, 법률 및 기술자문, 광고, 기타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복지서비스	64~67, 72~74, 80, 85
기타서비스업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저장, 부동산, 임대, 공공행정 및 국방, 기타 사회 및 개인, 가사서비스	50~52, 55, 60~63, 70~71, 75, 90~93, 95

제 4 장

OECD 국가의 서비스업 경쟁력 분석을 통한 한국 서비스업 발전 진로 모색

제1절 서 론

서비스화(tertiarization)는 정보화 및 세계화와 더불어 현대 경제의 구조 변환을 특징짓는 중요한 흐름 중의 하나이다. 산출만이 아니라 고용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은 OECD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2001년 현재 미국·영국·프랑스·스웨덴·호주 등은 서비스산업이 총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의 70%이상을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 이후 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급증하여 2002년 현재 경제전체의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에서 서비스업은 각각 50.6%와 63.3%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화 진전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현상은 서비스교역의 확대이다.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교역재로 알려져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서비스교역은 증가하여 세계 교역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Freund and Weinhold(2002)의 추정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교역상대국의 인터넷 보급이 10% 증가하면 자국의 서비스 수출이 1.7%, 수입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스페인·터키·아일랜드는 1990년대 들어 서비스교역이 급증하여 GDP 대비 서비스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6~10% 이르고 있다(Wölfl,

2005).

1990년 이래 국내 기업들이 임금 및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다른 후발개도국들과 함께 인도·브라질·러시아와 같은 거대 경제권의 부상으로 국제경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경제의 일자리창출 및 경제발전의 동력을 서비스업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국민경제자문회의, 2006; 진양현, 2006). 선진국에 비하여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낮고 또한 산업구조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서비스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지식집약적인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서비스업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각국이 특정한 산업을 특화하는 산업간 분업이 아니라 동일 산업 내에서 상이한 공정을 수행하는 산업 내 분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가치사슬 중에서 중국이 최종재의 조립공정을 담당한다면 우리나라는 중간재 생산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인 금융, 연구개발, 마케팅 그리고 물류 등을 담당하는 산업 내 분업을 가정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의 만성적자와 OECD 회원국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생산성 격차가 가장 크다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실은 서비스업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마련이라는 청사진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기존 연구보고서는 서비스업의 신성장 동력화의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만 강조하였지 이질적인 다양한 서비스산업 중 어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택하여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객관적인 기준하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들의 경쟁력을 측정해 보고 이를 기초로 전략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을 검토하여 보는 작업이 미진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의 OECD Trade in Services Statistics 자료

를 기초로 몇 가지 무역특화지수를 계산하고 우리나라 및 주요 OECD 국가들의 무역특화 패턴을 비교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OECD 국가들의 서비스 발전 패턴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보고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한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이용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비스교역의 현황을 설명한다. 제3절은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무역수지기여(CTB)지수를 이용하여 각 서비스교역 부문별로 각국의 경쟁력 우위 분야 및 경쟁력 추이를 살펴본다. 제4절은 이상의 분석 및 수출경합도지수(ESI)를 이용하여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 유형을 분류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업 발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절은 요약 및 결론이다.

제2절 우리나라 및 세계의 서비스교역 현황

1. 이용한 자료

서비스 교역관련 자료는 OECD의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CD-ROM을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자국화폐 및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2002년까지의 통계자료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일관성을 위하여 미국달러 기준 자료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한국은행 DB를 이용하면 2005년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어 필요할 경우 2005년까지 연장하여 사용하였다. OECD 무역자료의 서비스산업 분류는 IMF의 BPM5(Fifth edition of the Balance of Payment Manual)을 확장한 EBOPS(Extended Balance of Payment Services)를 사용하고 있는데 11개 대분류로 구분된다. 11개 대분류에는 운수(transportation), 여행(travel), 통신(communications), 건설(construction services), 보험(insurance services), 금융(financial services), 컴퓨터와 정보(computer and information services), 특허권

등 사용료(royalties and license fees), 기타사업서비스(other business services),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personal, cultural and recreation services) 그리고 정부서비스(government services)로 나뉜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정부서비스와 건설서비스를 제외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민간 부문의 경쟁력만을 다루고 있으며 OECD도 인정하듯이 건설서비스의 경우 상품수지 및 사업서비스와 중복되는 부문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OECD 국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웨덴, 스위스, 영국 그리고 미국의 12개국이다. <부표 1>은 각국에 대해 가용한 자료를 제시했다. 분석 연도는 기본적으로 1990년에서 2002년까지이다. 분석 기간을 1990년대 이후로 한정된 것은 GATT 체제하의 우루과이라운드가 마무리되고 WTO가 출범하는 즈음에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지각변동이 일어났고 일부 국가들의 경우 1970년대부터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나 OECD 대부분의 가입국에서 자료가 가용하기 때문이다.

2. 세계 서비스교역 현황

<표 4-1>은 모든 지역의 자료가 구득 가능한 1994년 이후의 서비스교역 규모변화를 정리해 본 것이다. 세계 서비스교역은 1994년에 2조 1,600억 달러 규모에서 2002년에는 그보다 1.5배가 증가한 3조 2,500억 달러 규모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OECD, EU, 미국의 서비스교역 규모도 분석 기간 동안 각각 1.46배, 1.50배 그리고 1.57배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4년 354억 달러에서 2002년 637억 달러로 1.8배 가량 증가하였다. 수출은 약 1.7배 증가한 반면 수입은 약 1.9배 증가하여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분석 기간 동안 18억 달러에서 74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각 지역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계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몫을 살펴보면 OECD는 1994년에 세계 서비스교역의 77.8%를 점하였으나 2002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75.7%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표 4-1〉 서비스교역의 변화

(단위: 백만달러, %)

		1994	2002	2002/1994
수출	세계	1,080,370	1,622,440	1.50
	OECD	862,119 (79.8)	1,253,614 (77.3)	1.45 (0.97)
	EU	473,528 (43.8)	706,885 (43.6)	1.49 (0.99)
	미국	197,712 (18.3)	288,723 (17.8)	1.46 (0.97)
	한국	16,805 (1.6)	28,143 (1.7)	1.68 (1.12)
수입	세계	1,084,590	1,631,180	1.50
	OECD	822,687 (75.9)	1,208,334 (74.1)	1.47 (0.98)
	EU	461,105 (42.5)	690,829 (42.4)	1.50 (1.00)
	미국	131,124 (12.1)	227,830 (13.9)	1.73 (1.15)
	한국	18,606 (1.7)	35,603 (2.2)	1.91 (1.27)
교역 (수출+수입)	세계	2,164,960	3,253,620	1.50
	OECD	1,684,806 (77.8)	2,461,948 (75.7)	1.46 (0.97)
	EU	934,633 (43.2)	1,397,714 (43.0)	1.50 (1.00)
	미국	328,836 (15.2)	516,103 (15.9)	1.57 (1.04)
	한국	35,411 (1.6)	63,746 (2.0)	1.80 (1.20)

주: () 안에 표시한 수출, 수입 그리고 교역의 비중은 세계 서비스수출, 세계 서비스수입 그리고 세계 서비스교역 대비 각 지역의 비중을 의미함.

2002년 전 세계 서비스교역의 15.9%를 점하고 있어 1994년에 비하여 0.7% 증가하였다. 2002년 미국은 단일 국가로는 서비스 수출 및 수입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인 17.8%와 13.9%를 각각 기록하고 있어 최대 서비스교역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상품 수지에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지에서는 2002년 현재 61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비중은 1992년 세계 서비스교역의 1.6%에서 2002년 2.0%로 증가하였으나 수출 비중보다는 수입 비중이 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교역재로 알려져 왔

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이 완화되면서 교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20%씩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서비스교역 현황

<표 4-2>는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수출+수입)의 경제적 비중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은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총교역의 약 31%를 점하고 있다. 이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비스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유사한 추이를 보여 1990년대

<표 4-2>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경제적 비중

(단위: %)

	(서비스교역)/ (재화 및 서비스교역)	(서비스수출)/ (재화 및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입)/ (재화 및 서비스 수입)	(서비스수출)/ (서비스 GDP)	(서비스 수입)/ (서비스 GDP)
1990	27.55	13.07	13.39	8.22	8.74
1995	33.48	15.31	16.67	9.45	10.68
2000	31.14	14.61	17.31	12.35	13.50
2005	30.98	13.98	18.46	12.48	14.88
	(운수서비스교역)/ (서비스 GDP)	(여행서비스교역)/ (서비스 GDP)	(통신서비스교역)/ (서비스 GDP)	(보험서비스교역)/ (서비스 GDP)	(금융서비스교역)/ (서비스 GDP)
1990	6.12	5.06	0.47	-0.01*	0.01
1995	7.83	4.76	0.50	0.10	0.10
2000	10.00	5.65	0.41	0.09	0.36
2005	11.98	5.49	0.32	0.08	0.36
	(컴퓨터서비스교역)/ (서비스 GDP)	(특허권 등 사용료 교역)/ (서비스 GDP)	(개인 오락 및 문화서비스 교역)/ (서비스 GDP)	(사업서비스교역)/ (서비스 GDP)	
1990	0.05	1.20	0.02	3.47	
1995	0.04	1.11	0.04	5.20	
2000	0.04	1.58	0.12	7.09	
2005	0.05	1.88	0.15	6.30	

주: 원화 표시 명목기준이며 달러로 표시된 자료는 기준 환율로 원화로 환산하였음.

* 각주 12) 참조.

중반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수입의 경우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5년 현재 총수입의 약 18.5%를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국내총생산 대비 서비스 수출과 수입 규모는 2005년 현재 각각 약 12.5%, 14.9%이다. 이들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의 수출 비중과 수입 의존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별 교역규모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비스 국내총생산 대비 각 서비스별의 교역규모를 비교하면 운수서비스, 여행서비스 그리고 사업서비스가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운수서비스의 경우 2005년 현재 서비스 국내총생산 대비 교역규모가 약 12.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운수서비스 수출이 2005년 현재 전체 서비스 수출의 약 54%를 점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여행서비스와 사업서비스가 2005년 현재 서비스 국내총생산 대비 교역규모가 각각 약 5.5%, 6.4%를 점하고 있다. 이는 여행서비스와 사업서비스의 수입이 각각 전체 서비스 수입의 25%와 26%를 점하기 때문이다.

제3절 특화지수를 이용한 분석

1.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무역수지기여(CTB)지수

가.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는 각 품목의 순수출(수출-수입)을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수출+수입)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TSI = \frac{X - M}{X + M}$$

여기에서 X 와 M 은 각각 수출액과 수입액이다

국가간 교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일반적으로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 것이다. 무역특화지수는 그러한 전제 아래 한 국가의 품목별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이다. 무역특화지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1에 가까워질수록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수출이 수입보다 많음을 의미한다¹²⁾. 무역특화지수가 0이면 수출액과 수입액이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무역특화지수 값이 양(+), 음(-)인지 여부 및 그 크기에 따라 비교우위 혹은 경쟁력을 가늠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역량이 적을 때에는 소액의 수치 혹자에도 무역특화지수 값이 높게 나타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고려한 지표 등을 활용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

현시비교우위(RCA)지수는 발라사(Balassa)가 고안한 지수로서 산업별 수출경쟁력을 보기 위해서 많이 이용된다. 시장점유율의 단순비교는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의 비교우위 비교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12)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특화지수의 값이 -1 이상 혹은 +1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서비스의 경우 보험료 수입(revenue)이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을 가질 경우이다. 보험서비스의 경우 보험료 수입(revenue)은 보험서비스 수출에 해당하며 보험료 지출(expenditure)은 보험료 수입(import)에 해당한다. 외국 기업이 국내 보험회사에 가입을 할 경우 보험료 수입(revenue)은 양(+)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당해 연도 보험료 지급 금액이 가입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수입(revenue), 즉 보험수출은 음(-)의 값을 갖는다. 즉 국내 보험회사가 외국 기업에 지급한 보험료 지급은 보험료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수입(revenue) 항목에 해당한다. 반면 국내 기업이 외국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경우는 보험료 지출, 즉 보험서비스 수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출은 음(-)의 값을 갖고 수입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 무역특화지수의 값은 -1 이상의 값을 갖는다. 물론 반대의 경우, 수출은 양(+)의 값을 갖고 수입은 음(-)의 값을 갖는 경우 +1 이상의 값을 갖게 된다.

한계를 극복하여 국별 시장점유율과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감안함으로써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고안한 지수가 RCA 지수이다. RCA 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CA_{ik} = \frac{X_{ik}/X_i}{TX_k/TX} = \frac{X_{ik}/TX_k}{X_i/TX}$$

여기에서 X_{ik} = i 국 k 상품 수출액

TX_k = 세계 전체의 k 상품 수출액

X_i = i 국의 총수출액

TX = 세계 전체의 총수출액

즉 RCA지수는 전체 산업에서 i 국의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정 k 산업에서 i 국의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국가의 k 상품이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RCA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세계 수출액 자료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OECD 자료에서는 이를 구하기 어려워 세계 전체의 총수출액 대신 OECD 총수출액을 대신 사용하였으며 세계전체의 k 상품 수출액 대신 OECD k 상품 수출액을 대신 사용하였다.

무역특화지수 값은 교역량이 적을 때에 소액의 수지 흑자에도 높은 값을 가질 수 있는 반면, 현시비교우위지수 값은 한 국가가 특정 품목을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때에도 그 값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국의 비교우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역특화지수 값과 현시비교우위지수 값을 동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 무역수지기여(Contribution to the Trade Balance)지수

CTB지수는 Lafay(1987)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TB_j = [X_j - M_j] - \left[(X - M) \frac{(X_j + M_j)}{(X + M)} \right]$$

[1]
[2]

여기에서 X = 총수출액

M = 총수입액

X_j = j 품목의 수출액

M_j = j 품목의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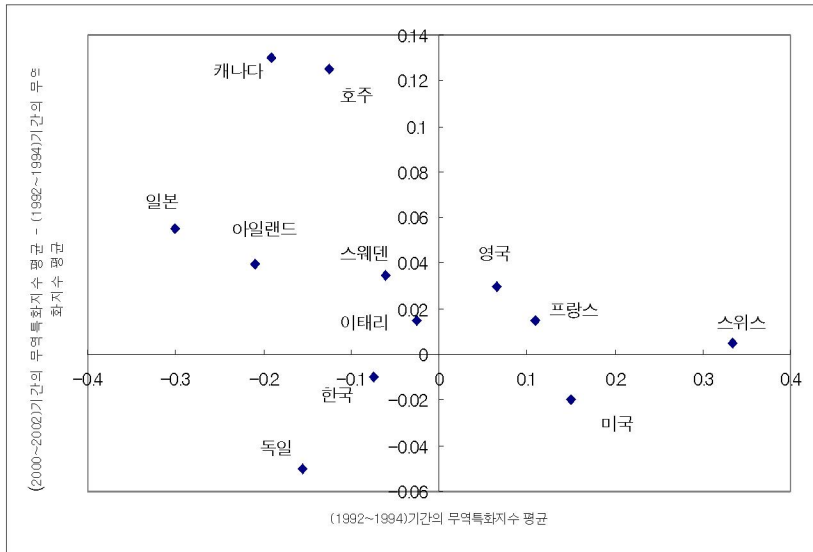
CTB지수의 의미는 j 품목의 실제교역수지(정의식 우변의 첫 번째 항 [1])와 j 품목의 이론상의 교역수지(정의식 우변의 두 번째 항 [2])를 비교하여 j 품목의 국제경쟁력 혹은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때 이론상의 비교우위는 j 품목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교역수지에다 가중하여 계산한 값이다. 이때 [1]과 [2]의 격차를 CTB라 하는데 CTB가 양(+)의 값을 가지면 j 품목이 교역수지 평균 이상의 기여를 하여 적자를 완화하거나 흑자에 상대적으로 더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면 교역수지에 구조적인 적자를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CTB지수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TSI와 유사하나 j 품목의 교역수지가 적자이더라도 이론적 교역수지에 비해 더 큰 값을 가지면 CTB지수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CTB지수는 경쟁력을 측정하기보다는 교역수지에 대한 구조적 기여 정도를 측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CTB를 총교역규모(수출과 수입의 합) 혹은 GDP로 나누어 정규화한다.

2. 분석

가.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분석

[그림 4-1]은 12개 OECD 회원국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무역특화지

[그림 4-1] 서비스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주: 스웨덴의 기준 연도 값은 1992~94년 평균이며, 아일랜드는 1993년 값, 일본은 1991~93년의 평균임.

수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기준 시점은 1990~92년이며 비교 시점은 2000~2002년이다. X축은 1990~92년 기간의 평균 무역특화지수 값을 나타낸 것이며, Y축은 비교 시점과 기준 시점 간의 평균 무역특화지수 값의 변화(2000~2002년 기간의 평균 무역특화지수의 값과 1990~92년 기간의 평균 무역특화지수 값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Y축의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분석 기간 동안 무역특화지수가 상승, 즉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면 무역특화지수의 값이 하락, 즉 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1사분면에 위치한 영국, 프랑스 및 스위스는 기준 연도에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값을 가졌으며, 지난 10년 동안 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 국가 중 스위스는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며 분석 기간 동안 무역특화지수가 0.335에서 0.340으로 증가하였다. 영국도 동일 기간 동안 0.065에서 0.095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2사분면에

위치한 캐나다, 호주, 일본, 아일랜드, 스웨덴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 기준 연도에는 서비스업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낸다. 특히 이들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 등 영미 계통의 국가들은 경쟁력이 급속하게 개선되었다. 다음으로 3사분면에 위치한 독일과 한국은 기준 연도에 서비스업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에 이 적자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즉 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에 위치한 미국의 경우, 기준 연도에 서비스업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 경쟁력이 감소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미국은 0.15에서 0.13으로 감소하였으나 스위스 다음으로 여전히 높은 서비스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동태적 추이를 기초로 분석 대상 국가들을 4개 국가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1분면과 4분면에 위치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처럼 전통적으로 서비스산업에서 경쟁력이 높고 현재에도 높은 서비스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둘째, 2분면의 상위에 위치한 캐나다와 호주처럼 분석 기간 동안 급속하게 서비스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군이다. 셋째,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고 일본처럼 기준 연도의 서비스경쟁력 수준이 현저하게 낮았거나 경쟁력 개선 속도가 느린 국가군이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한국처럼 전통적으로 서비스경쟁력의 수준이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국가군이다.

<표 4-3>은 2002년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 범주별로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값을 갖는 국가들을 정리한 것이다. 여행서비스는 예상대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문화유산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호주처럼 광대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국가도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보험서비스는 스위스와 영국이 강세를 보였으며,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아일랜드도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는 한국을 포함하여 스위스,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혁명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알려진 아일랜드는 예상대로 통신

과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정보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앵글로 색슨 계통의 국가들(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도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IT 하드웨어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한국은 여타 IT 강국과는 달리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무역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갖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지식집약적이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사업서비스의 분야는 앵글로 색슨 국가와 스위스가 강세를 보이고 프랑스와 스웨덴이 일부 사업서비스 특히 특허권 등 사용료 서비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일본은 운영리스서비스에서 경쟁력을 보였는데 경쟁력 있는 제조업 제품을 운영리스서비스업과 결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률, 회계, 마케팅, 경영자문, 연구개발, 기술자문 등의 기타 서비스는 앵글로 색슨 국가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공통어로서의 영어와 프랑스어의 영향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분야를 보면 미국의 독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산업 역시 미국,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호주 등의 앵글로 색슨 국가들이 경쟁력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영상관련 사업의 경우 미국과 아일랜드가 경쟁력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타 개인, 오락 및 문화서비스에서는 영국과 호주가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영화, 영어서적, 대중음악에서 영어권 국가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영향력이 이 부문에서 커다란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으로부터 판명된 국가별로 무역특화의 패턴을 정리해 보면 앵글로 색슨 국가는 금융업과 사업서비스 전반 특히 기타사업서비스 분야와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유산이 풍부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여행서비스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앵글로 색슨 국가가 아닌 국가 중 프랑스와 스웨덴이 주목을 끄는데 프랑스는 여행, 운수,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특허권 사용료, 상업

〈표 4-3〉 2002년 기준 범주별 무역특화지수

서비스산업 분야		각국의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분야 (TSI > 0)
	운수	스웨덴, 스위스, 한국, 프랑스
	여행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호주
	통신	아일랜드,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보험	스위스,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금융	한국, 스위스, 영국, 미국, 일본, 아일랜드, 호주, 독일, 이탈리아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스웨덴, 호주, 프랑스
	특허권 등 사용료	미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사업 서비스	사업서비스 전반	영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운용리스서비스	아일랜드,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상업 및 무역관련 서비스	스웨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한국, 프랑스, 캐나다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	영국, 미국, 호주,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법무회계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	영국, 미국, 호주,
	광고 및 마케팅	영국, 이탈리아
	연구개발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개인·오락 및 문화 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전문 서비스	미국,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전반	미국,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음향 영상 및 관련산업	미국,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기타 개인, 오락 문화서비스	영국, 호주,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주: 무역특화지수 값이 높은 국가순대로 배열하였음. 구체적인 수치값은 부록 참조.

및 무역관련 서비스, 연구개발 기타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에서 고르게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도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가 프랑스와는 다소간 차이를 보이지만 역시 운수, 통신, 보험, 특

허권 사용료, 음향 및 영상산업, 기타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에서 고르게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에서 강세를 보이는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은 서비스 전반에서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경쟁력 열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운수와 금융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였는데 특히 금융의 경우 무역특화지수 값이 0.89로 이 산업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다음 <표 4-4>의 현시비교우위지수 값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는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교역규모에 비해 흑자 규모가 커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금융서비스 부문의 무역특화지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기타사업서비스, 보험, 컴퓨터와 정보 그리고 통신 등에서는 무역특화지수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 대부분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분석

<표 4-4>에 각국별 현시비교우위 서비스산업과 현시비교열위 서비스산업을 제시하였다. 호주의 경우 여행과 통신의 RCA지수 값이 각각 1.75와 1.55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여주었는데 여행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통신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통신의 경우 수출만이 아니라 수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캐나다는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와 보험 그리고 통신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보여주는데 이들의 RCA지수 값은 각각 2.35, 1.85, 1.78이다. 하지만 이들 3개 산업 모두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운수, 통신, 사업서비스, 컴퓨터와 정보에서 비교우위를 보여주는데 특히 사업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보여주는바 이 산업 역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운수, 여행 그리고 특허권 등 사용료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산업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 통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과 금융이 높은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여행, 금융, 개인·오락

〈표 4-4〉 주요 OECD 국가들의 현시비교우위 부문과 열위 부문 : 2002년 기준

국가	현시비교우위부문 (RCA>1)	현시비교 열위부문 (0<RCA<1)
호 주	운수, 여행 , 통신,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금융, 컴퓨터와 정보, 사업서비스,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캐 나 다	여행, 통신, 보험, 사업서비스 ,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컴퓨터와 정보	운수, 금융, 특허권 등 사용료
스 웨 덴	운수, 통신, 사업서비스, 컴퓨터와 정보	여행, 보험, 금융,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영 국	통신, 보험, 금융, 사업서비스 ,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 컴퓨터와 정보	운수, 여행, 특허권 등 사용료
미 국	여행 , 금융,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 특허권 등 사용료	운수, 통신, 보험, 사업서비스, 컴퓨터와 정보
일 본	운수, 사업서비스	여행, 통신, 보험, 금융,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컴퓨터와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한 국	운수	여행, 통신, 보험, 금융, 사업서비스,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컴퓨터와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프 랑 스	운수 , 여행 , 통신, 사업서비스 ,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보험, 금융, 컴퓨터와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스 위 스	통신, 보험 , 금융	운수, 여행, 사업서비스,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컴퓨터와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독 일	운수, 컴퓨터와 정보 , 보험 , 사업서비스	여행, 통신,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금융, 특허권 등 사용료
이탈리아	여행 , 사업서비스	운수, 통신, 보험, 금융,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컴퓨터와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아일랜드	통신 , 보험 , 금융, 컴퓨터와 정보	운수, 여행, 사업서비스,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주: 현시비교우위 산업 중 굵은 글씨 산업은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산업임.
구체적인 수치값은 부록 참조.

및 문화서비스 그리고 특허권 등 사용료에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중 특허권 등 사용료와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에서 높은 RCA지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 한국 및 독일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한국은 운수에서, 일본은 운수와 사업서비스에서, 독일은 운수와 사업서비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그리고 보험에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비교우위에 있는 운수와 사업서비스에서 모두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은 금융과 보험에서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특화지수와 RCA지수에서 공히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산업은 운수서비스이다. 반면 금융은 무역수지 흑자를 보여 무역특화지수가 높은 값을 갖지만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비교우위가 높은 산업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스위스는 금융과 보험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는데 금융의 RCA지수의 값이 3.81이며 보험은 2.70이다. 프랑스는 운수, 여행, 통신, 사업서비스,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행과 통신의 RCA값이 각각 1.36과 1.28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도 프랑스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 여행에서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아일랜드는 다소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데 정보통신기술관련 서비스, 즉 컴퓨터와 정보서비스에서 RCA지수의 값이 무려 9.8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보험의 경쟁력도 높아 보험의 RCA지수의 값은 4.2이다.

다. 무역수지기여지수를 이용한 분석

<표 4-5>는 CTB를 총교역규모(총수출+총수입)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각 부문별로 CTB지수가 양(+)인 국가들을 정리한 것이다. CTB지수를 이용한 분석은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분석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완전히 일치하는 부문은 보험, 사업서비스 중 운송리스,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중 음향 및 관련산업 정도이고, 다른 부문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를 보면 일본과 독일의 운수업 부문은 비록 적자를 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정도가 적은 부문임을 알 수 있다. 여행업에서는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미국이 타서비스 부문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 흑자를 보이는 반면, 아일랜드와 캐나다의 여행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적자 정도가 적은 부문이다.

<표 4-3>의 무역특화지수, <표 4-4>의 현시비교우위지수, 그리고 <표 4-5>의 무역수지기여지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수지기여지수 등 어떤 지수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통신서비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와 같은 IT서비스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무역특화지수, 무역수지기여지수가 시사하는 바와는 달리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면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의 경쟁력은 있다고 보기 힘들다.

금융, 보험은 영국, 스위스, 아일랜드와 함께 독일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그 중에서도 특히 음향영상 및 관련산업, 여행, 금융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분야 중 기술 및 수요파급 효과 측면에서 가장 높은 주목을 받는 사업서비스에서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미국이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표 4-3, 표 4-5)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해 볼 때 경쟁력이 있는 부문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표 4-4). 기업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기타사업서비스의 경우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 등의 앵글로 색슨 국가들이 수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조업 및 상품수지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일본, 독일, 스웨덴 그리고 한국은 이들 상품교역과 관련 있는 상업 및 무역관련 서비스에서 수치 흑자를 보이고 있다.

〈표 4-5〉 2002년 기준 CTB 지수

	<i>CTB > 0; TSI > 0 & CTB < 0</i>
운수	한국(8.1), 스웨덴(3.5), 일본(3.1), 독일(1.8); 스웨덴, 프랑스
여행	이탈리아(9.0), 호주(7.2), 프랑스(4.5), 미국(1.4), 아일랜드(0.8), 캐나다(0.4)
통신	아일랜드(1.4), 캐나다(0.3), 프랑스(0.1), 일본(0.1), 스웨덴(0.1)
보험	영국(3.4), 스위스(3.4), 독일(2.9), 아일랜드(2.5), 스웨덴(0.4)
금융	스위스(9.4), 영국(5.6), 아일랜드(2.7), 일본(1.5), 미국(1.4), 한국(1.4), 독일(0.8), 호주(0.6); 이탈리아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아일랜드(17.2), 캐나다(1.6), 스웨덴(1.3), 영국(0.9), 독일(0.4), 미국(0.3), 호주(0.2); 프랑스
특허권 등 사용료	미국(3.4), 일본(2.7), 스웨덴(1.3), 프랑스(0.4), 영국(0.2), 독일(0.1)
사업서비스 전반	영국(6.2), 캐나다(2.0), 일본(1.7), 미국(1.3), 독일(0.2); 스위스, 프랑스
상업 및 무역관련 서비스	스웨덴(4.9), 일본(3.3), 스위스(1.9), 독일(0.8), 영국(0.6), 한국(0.3), 호주(0.3), 캐나다(0.2); 미국, 프랑스
운용리스	아일랜드(2.4), 미국(0.8), 일본(0.6), 독일(0.1), 스웨덴(0.1)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	영국(5.8), 캐나다(2.1), 호주(0.8), 미국(0.7); 스위스, 프랑스
개인·오락 및 문화 서비스	미국(1.2), 아일랜드(0.5), 영국(0.4), 스웨덴(0.1)
음향영상 및 관련산업	미국(1.1), 아일랜드(0.5), 영국(0.2), 스웨덴(0.1)
기타 개인·오락 및 문화 서비스	호주(0.6), 영국(0.2), 이탈리아(0.1); 미국,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주: ()안의 값은 $[CTB_i / (X + M)] \times 100$, 굵은 글씨 국가는 해당 부문의 무역특화 지수(TSI) 및 CTB지수 모두 양(陽)인 국가, 일반 글씨체는 CTB지수는 양(陽)이지만 TSI지수는 음(陰)인 국가, 이탤릭체는 TSI는 양(陽)이지만 CTB지수는 음(陰)으로 나타난 국가.

3. 한국의 서비스업 부문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서비스업 국제경쟁력의 시간 흐름에 따른 동태적 변화는 기준 연도에 비해서 무역특화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 <표 4-6>은 신현수·이원복(2003)처럼 해당 업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약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범주화를 시도한 표이다. 경쟁력 강화는 무역특화지수의 동태적 변화에 따라 수출특화품목의 경쟁력 강화,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의 전환, 수입특화품목의 수입의존도 약화로 구분하였다. 경쟁력 약화는 수출특화품목의 경쟁력 약화, 수출특화품목의 수입특화로의 전환, 수입특화품목의 수입의존도 심화로 구분하였다.

<표 4-7>은 <표 4-6>의 분류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서비스업 경쟁력의 동태적 변화 추이를 고찰한 결과이다. <표 4-7>로부터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산업은 존재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운수와 금융은 기준 연도에는 수입특화 산업이었으나 비교 연도인

<표 4-6> 무역특화지수 변화추이의 유형화

	세분류	무역특화지수	경제적 의미
경쟁력 강화	I 그룹	$0 < TSI_0 < TSI_t$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 강화 →수출주력서비스군
	II 그룹	$TSI_0 < 0 < TSI_t$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 →새로운 수출전략 서비스군으로 대두
	III 그룹	$TSI_0 < TSI_t < 0$	수입특화품목으로 수입특화정도가 약화 → 수입대체의 진전과 수출상품화 가능성
경쟁력 약화	I 그룹	$0 < TSI_t < TSI_0$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 약화 → 경쟁력 강화방안 절실
	II 그룹	$TSI_t < 0 < TSI_0$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 →경쟁력 상실
	III 그룹	$TSI_t < TSI_0 < 0$	수입특화구조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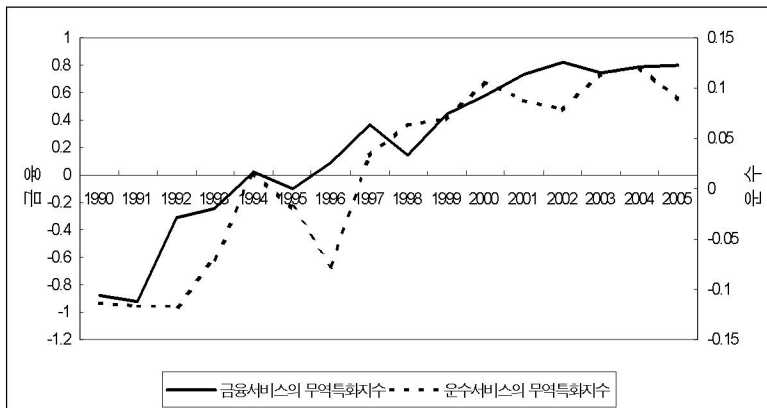
주: TSI_0 와 TSI_t 는 각각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무역특화지수임.

자료: 신현수·이원복, 『한·중·일 제조업 경쟁력의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3.

2000~2002년 기간에는 새롭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특화산업으로 전화하였다. 운수서비스의 경우 [그림 4-2]에서 보듯이 1997년을 기점으로 수입특화산업에서 수출특화산업으로 변화하였고 금융서비스는 1996년을 기점으로 수입특화산업에서 수출특화산업으로 변화하였다.

운수서비스는 여객서비스, 화물서비스, 운항항만경비서비스로 구분되는데 여객과 화물서비스는 2005년 현재 무역특화지수가 각각 0.25와 0.44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운항항만경비서비스는 -0.58로 수입특화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운수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여객과 화물서비스의 기여임을 알 수 있다. 여객 및 화물서비스에서 비교우위가 크게 나타난 것은 항공서비스에서 국적기 이용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제운송시장의 특성이나 국제공항 허브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해운서비스의 경쟁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반면 운항항만경비서비스가 수입특화산업으로 나타난 이유는 운항항만경비수수료의 내용을 자세히 고찰해 본 후 알 수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의 교역 과정에서 관련비용 지출이 큰 데도 상당 부분 기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국은 연안해운에 사용되는 선박을 미국 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으로 한정하는 법률(Jones Act)에 의거 연안 해운을 독점하고 있으며, 또한 통관 과정에서 미국이 부과하는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2] 한국의 운수서비스와 금융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표 4-7〉 한국서비스업 경쟁력의 동태적 변화

〈표 4-6〉에 의한 분류			서비스재 교역부문	무역특화지수		
				1990~ 1992	2000~ 2002	2003~ 2005
경쟁력 강화	I 그룹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 력 강화 → 수출주력제품군	-	-	-	-
	II 그룹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 로 전환 → 새로운 수출전략 제품군으로 대두	운수	-0.11	0.11	0.10
			금융	-0.58	0.73	0.77
	III 그룹	수입특화품목으로 수입 특화 정도가 약화 → 수입대체의 진전과 수출상품화 가능성	음향 영상 및 관련 서비스업	-1	-0.59	-0.32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0.87	-0.76	-0.59
			특허권 등 사용료	-0.91	-0.61	-0.43
약화	I 그룹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 력 약화 → 경쟁력 강화방안절실	-	-	-	-
	II 그룹	수출특화품목에서 수입 특화품목으로 전환 → 경쟁력 회복방안 절 실	상업 및 무역관련 서비스업	0.40	-0.04	-0.27
			통신	0.31	-0.26	-0.28
			운용리스	0.50	-0.88	-0.61
			사업서비스 전반	0.13	-0.23	-0.24
	III 그룹	수입특화가 심화 → 구조조정추진 및 전략적 수입의 확대	여행	-0.01	-0.14	-0.38
			보험	-0.59	-0.61	-0.54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	-0.16	-0.21	-0.20

자료: 1990~2002년 자료는 OECD 다른 국가들과 일관성 있게 비교하기 위하여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자료를 사용하였고 2003~2005년 자료는 한국은행 DB를 사용하였음. OECD 자료가 한국은행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시기에 자료의 일관성에는 문제가 없음.

다음으로 수입대체의 진전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산업은 음향·영상관련 서비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그리고 특허권 등 사용료이다. 음향·영상관련 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는 1990~92년의 -1에서 2003~2005년에는 -0.32로 증가하였다. 음향·영상관련 서비스의 경우 1996년까지는 수출은 존재하지 않고 수입만 존재하였으나 1997년 60만 달러의 수출을 처음 기록한 이후 점차 수출이 증대하여 2005년 현재 1억 2,6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소위 '한류'로 대표되는 아시아권의 한국 문화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영상·음향관련 서비스 수출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컴퓨터 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 개발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사무회계계산기 유지수리업,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제조업의 무역특화지수가 2004년 현재 0.32임을 고려할 때(오근엽·유진만, 2006), 정보통신제조업에 비하여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분야의 경쟁력은 분석 기간 동안 점차 개선되어 1990~92년에 -0.87, 2000~2002년에 -0.76, 2003~2005년에 -0.59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특허권 등 사용료 서비스는 기준 연도에 -0.91에서 비교 연도 -0.61 그리고 2003~2005년 -0.43으로 수입대체가 진전되고 있다.

반면에 상업 및 무역관련 서비스, 운송리스서비스, 그리고 통신서비스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분석 기간 동안 수출특화산업에서 수입특화산업으로 전환하였다.¹³⁾ 상업 및 무역관련 서비스의 경우 기준 연도인 1990~92년 기간에는 무역특화지수가 0.40이었으나 2002년도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2000~2002년 기간에 특화지수가 -0.04로 급격하게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운송리스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도 0.50에서

13) 상업 및 무역관련 서비스, 운송리스서비스, 특허권사용료, 기타사업관련 서비스를 한데 묶어 사업서비스 전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아도 분석 기간 동안 수출특화산업에서 수입특화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130억 9,200만 달러인데 사업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61억 5,300만 달러로 전체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의 약 47%에 해당한다.

-0.88로 감소하여 급격하게 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신서비스도 0.31에서 -0.26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상업 및 무역관련 서비스 특화지수의 감소는 임가공 비중이 축소하고 오퍼 및 무역중개수수료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해외 중개무역수수료 지출은 증가한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수입특화가 심화된 산업인데 여행과 보험 그리고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이다. 여행은 무역특화지수가 기준 연도 -0.01에서 비교 연도 -0.14로 그리고 2003~2005년 현재 -0.38로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2005년 현재 여행수지 적자가 96억 5,400만 달러로 서비스산업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회계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 광고 및 마케팅, 연구개발,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 등 서비스업 중 대표적인 지식집약산업으로 분류되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은 2005년 현재 36억 1,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전체 사업 서비스업 수지 적자의 약 60%를 점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미국 골드만삭스, 살로먼스미스버니 등의 투자은행에 대한 컨설팅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부즈알렌, 아더앤더슨 등의 컨설팅 회사에 대한 서비스료 지불 등이 크게 증가한 것도 요인이 되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여행과 사업서비스 특히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동시에 경쟁력을 급속하게 개선시키고 있는 분야인 음향·영상관련 서비스업 및 컴퓨터와 정보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서비스업 육성 전략의 일부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제4절 서비스 경쟁력 유형화와 한국의 서비스업 발전 전략에 대한 시사점

1. 수출경합도지수(Exporting Similarity Index: ESI)

수출경합도지수는 각국 수출구조의 유사성 정도가 높을수록 경쟁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서 수출구조의 유사성 정도를 계량화한 지수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SI_{ab} = \sum_{i=1}^n \min(X_a^i/X_a, X_b^i/X_b)$$

여기에서 아래 첨자 a, b 는 국가를 의미하며 위 첨자 i 는 상품을 가리킨다. 즉 X_a, X_b 는 각각 a 국 및 b 국의 총수출액, X_a^i, X_b^i 는 각각 a 국의 i 상품 수출액 및 b 국의 i 상품 수출액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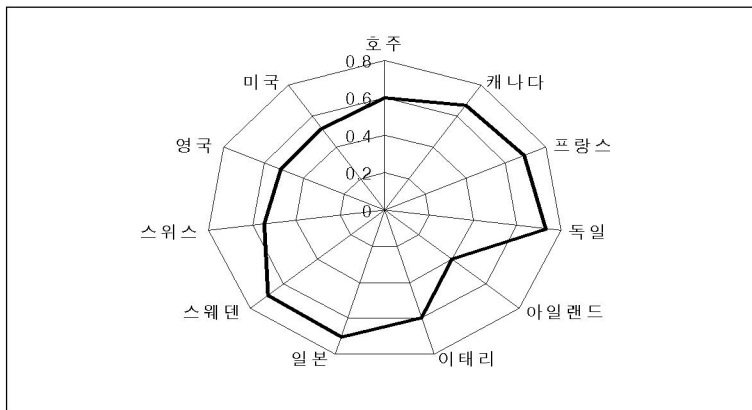
수출경합도지수는 a 국과 b 국의 수출에서 각각 i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 작은 값을 선택하여 모든 상품에 대하여 그 값을 더한 수치로 정의된다. 이는 중복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a, b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i 상품의 수출비중이 서로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수출경합도지수의 값은 커지게 된다. 이 지수의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양국의 수출구조가 서로 유사함을 의미하며, 더 경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8>은 분석 대상 국가간의 수출경합도지수를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로부터 서비스 수출구조의 유사성 정도를 알 수 있는데 호주의 경우 프랑스와 수출경합도지수가 0.80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호주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임을 알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프랑스와 수출경합도지수가 0.83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가장 유사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프랑스만이 아니라 독일과 0.80 그리고 미국과 0.80으로 상당히 높은 수출경합도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이탈리아와 0.83의 수출경합도지수를 보이는데 이는 캐나다와 동일한 값이다. 독일은 스웨덴과 0.81로 가장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아일랜드는 영국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고 또한 스위스와도 유사한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가장 유사한 수출구조이다. 일본과 가장 유사한 구조는 한국으로 수출경합도지수의 값이 0.71이다. 한국(그림 4-3 참조)은 독일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보여 0.73을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은 독일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고 스위스는 영국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스웨덴과 가장 높은 수출경합도지수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가장 높은 수출경합도지수를 기록하는데 0.80이다.

<표 4-8>에서 산업분류는 분석 대상 국가 공히 자료가 가능한 11개 대분류를 기초로 한 탓에 지수 값이 상당히 큰 값으로 도출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 스웨덴, 독일뿐만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와도 유사한 수출경합도지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유의한 분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앞에서 무역특화지수, 현시 비교우위지수, 무역기여지수를 비교분석한 결과와 종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3] 2002년 기준 한국과 여타 국가간의 수출경합도지수



〈표 4-8〉 2002년 기준 수출경합도지수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아 일 랜 드	이 태 리	일 본	한 국	스 웨 덴	스 위 스	영 국	미 국
호 주	0.73	0.80	0.64	0.41	0.78	0.47	0.60	0.64	0.56	0.55	0.68
캐 나 다		0.83	0.80	0.53	0.76	0.58	0.67	0.79	0.70	0.75	0.80
프 랑 스			0.73	0.43	0.83	0.59	0.69	0.75	0.64	0.66	0.77
독 일				0.53	0.66	0.67	0.73	0.81	0.63	0.76	0.68
아일랜드					0.42	0.37	0.40	0.49	0.55	0.59	0.48
이탈리아						0.51	0.60	0.69	0.64	0.66	0.72
일 본							0.71	0.65	0.43	0.60	0.65
한 국								0.70	0.55	0.52	0.52
스 웨 덴									0.58	0.77	0.70
스 위 스										0.75	0.68
영 국											0.71

2. OECD 국가의 서비스업 경쟁력 유형 네 가지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수지기여지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와 서비스교역의 수출경합도지수를 기초로 OECD 국가들을 유형화 하면 다음과 같이 4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그림 4-4 참조).

첫 번째 유형은 영국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영국 이외에 아일랜드, 스위스 그리고 캐나다가 포함된다. 수출경합도지수 측정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일랜드와 스위스는 영국과 가장 유사한 수출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스위스는 보험, 금융, 통신을 핵심 산업으로 하며 여타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군이다. 스위스는 핵심 산업인 보험, 금융, 통신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이들 산업 이외에 정보통신기술관련 산업인 컴퓨터와

정보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이들 산업 이외에 사업서비스 및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국가 이외에도 캐나다를 이 유형에 포함시켰는데 캐나다는 여행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영국과 비교우위산업이 겹치고 있어 영국 모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수출경합도지수 값이 보여주듯이 여타의 유형과도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표 4-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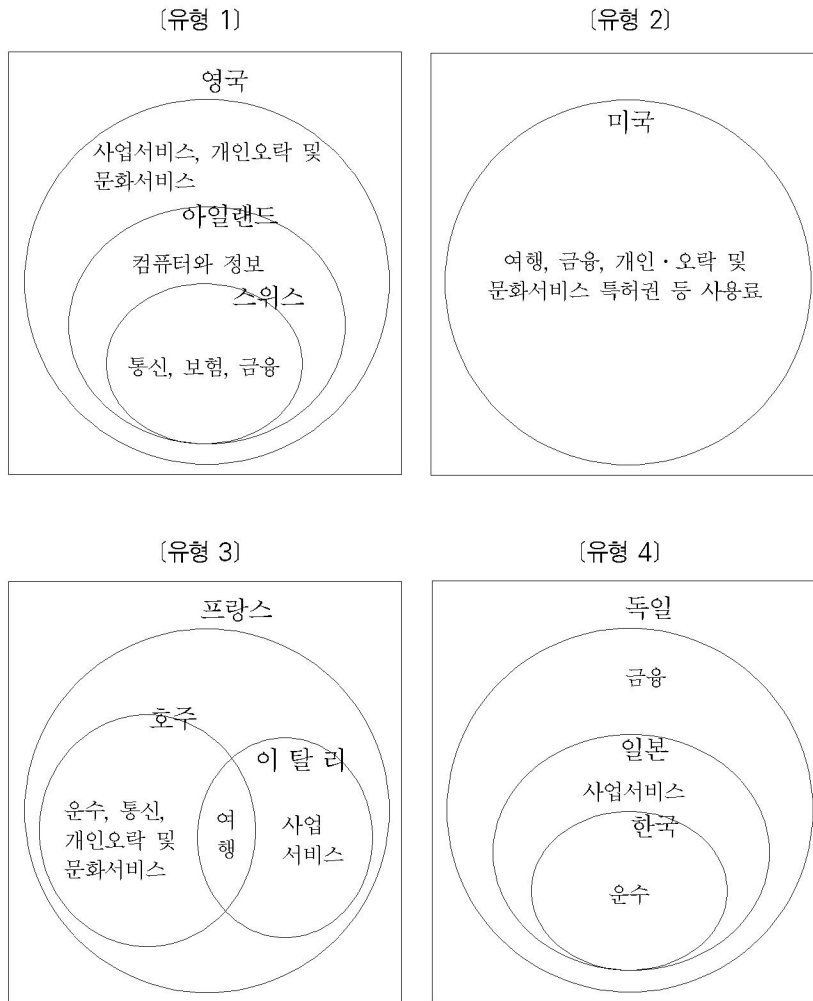
두 번째는 미국 모형인데 금융부문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영국 모형과 유사하나 핵심 산업이 여행,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특히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로 영국 모형과 일정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미국 모형의 경우 특허권 등 사용료와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에서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의장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수적일 수 있다. 미국은 자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수준에서도 1994년에 체결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통하여 자국의 지적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미국 서비스업의 특징을 볼 때 지적재산권 협정이 미국의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프랑스 모형으로 이탈리아와 호주가 포함된다. <표 4-8>에서 보듯이 이탈리아와 호주는 프랑스와 수출경합도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 모형은 여행서비스를 핵심 산업으로 하고 있으나 기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여행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독일 모형으로 서비스 전반의 경쟁력이 여타 국가군에 비하여 뒤지나 상품의 경쟁력은 높은 국가군이다. 이 모형에는 독일 이외에 일본, 한국, 스웨덴이 포함된다. <표 4-8>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독일과 가장 높은 수출경합도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독일과 가장 높은 0.67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웨덴도 독일과 가장 높은 수출경합도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운수서비스를 핵심 산업으로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업서비스에서,

독일은 금융 및 사업서비스에서도 일정한 경쟁력 우위를 보인다. 스웨덴은 독일과 유사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어 독일 모형에 포함시켰는데 스웨덴은 특히 정보통신기술 관련서비스인 통신과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산업에서도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4-4] 경쟁력에 기초한 OECD국가들의 그룹화



3. 한국의 서비스업 발전 전략에 대한 시사점

위와 같은 유형 분류를 통해 OECD 국가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간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발전 진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서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적 경로를 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 서비스·경쟁력 선진국과의 갭을 배우는 비전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한 전략적 정책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경제정책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발전 전략이 되고, 고용정책 차원에서는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되며, 기업가에게는 기업이 추구할 전략이나 진출할 분야에 대한 대안을 갖추는 길이 될 것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갭 배우기 전략은 독일 모형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운수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IT하드웨어산업의 이점을 기초로 연관산업인 컴퓨터와 정보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IT 인프라를 기초로 금융서비스업의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 전략은 여타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서비스국가로 전환하기보다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에 바탕하여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일부 서비스산업들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일부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서비스 부문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시켜 나가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비교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가시적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는 갭 배우기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개방을 통하여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을 경쟁에 노출시키고, 외국자본 유치를 통하여 그 경쟁력을 강화시켜 서비스업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은 영국 모형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특화지수 및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보여주듯이, 영국 모형의 핵심이 되는 통신, 보험, 금융 그리고 사업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수출경합도지수가 보여주듯이 한국 서비스업은 영국, 스위스 그리고 아일랜드와의 수출구조 유사성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가장 낮다. 영국 모형의 핵심 산업들이 이미 일정 정도 수입대체가 진행되거나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이 아니라 경쟁력이 미약한 산업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발전 전략을 선택했을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중국, 인도, 동남아 경제가 고도성장하는 과정을 이용하여 금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 시장개척력, 자본을 활용하여 중국·인도·동남아 경제가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시장에 진출하고 해외 사회간접자본이나 플랜트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경주하는 전략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면 장기적으로 가시적 효과를 거두면서 금융서비스업 국제시장에서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신흥기업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계 기업을 국내 증시에 상장시킴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작업, 이미 크게 성장한 선물·옵션시장을 교두보로 활용하여 중국 및 동남아 기업들의 선물·옵션 거래를 한국에서 활발히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실행가능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껌 배우기 전략은 현재 급속하게 수입대체를 진행하고 있는 음향·영상 및 관련산업과 특허권 등 사용료 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미국 모형과 유사한 경로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를 가능케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몇몇 첨단산업에서 기술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혁신 능력이 담보되어야 하며, 영화 및 문화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등장하여야 한다. 비록 정보화 시대에 한국의 기술혁신 능력이나 특허출원수가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 축적한 기술혁신 역량이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다. 또한 한류나 한국의 문화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그

지속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기술혁신 역량을 장기적으로 확충하고 한국 문화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미국형 서비스업 경쟁력과의 갭을 메울 수 있다.

프랑스형 서비스경쟁력은 여행서비스의 강력한 경쟁력을 기초로 한다. 보존되어 있는 문화유산의 세계적 지명도, 유럽 및 북미 선진국과의 지리적 근접도 및 여름 기후 등을 고려할 때 프랑스형 서비스경쟁력과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매우 지난한 과정이 요구되고 그만큼 여러 가지 유무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획기적 이니셔티브를 필요로 하리라고 판단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수지 적자 중 여행수지 적자가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기존의 종교문화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공연 등 강력한 문화산업 기반 조성, 전시산업의 활성화, 농촌 투자사업 영역의 획기적 전환, 우리나라 자연과 어울리는 농촌 주택설계도의 보급, 호텔·여행서비스·통번역 그리고 국제회의 코디네이션 전문서비스 기업들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전문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기업의 전략적 육성, 서남해안 도서를 이용한 국제 수준의 해양 레저시설 건설, 다도해에 배낭 여행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의 투자는 프랑스형 서비스경쟁력과의 갭을 메우기 위한 이니셔티브들이 될 것이다.

제5절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OECD의 서비스무역통계(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를 이용하여 특화지수를 계산하고 우리나라 및 OECD 국가들의 서비스무역 특화패턴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OECD 국가들의 서비스 발전 패턴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보고 서비스업 경쟁력 선진국과 우리나라 서비스업과의 갭을 메울 수 있는 가능한 접근법들을 제시해 보았다.

무역특화지수 분석을 통해 국가별 무역특화 패턴을 정리해 보면 앵글로 색슨 국가는 금융업과 사업서비스 전반 특히 기타사업서비스 분

아와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분야를 보면 미국의 독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산업 역시 미국,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호주 등의 앵글로 색슨 국가들이 경쟁력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영상관련 사업의 경우 미국과 아일랜드가 경쟁력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타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에서는 영국과 호주가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영화, 영어서적, 대중음악에서 영어권 국가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영향력이 이 부문에서 커다란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를 기반으로 교육서비스에서는 호주, 캐나다가 개인오락문화서비스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게 하고 있는 점까지를 고려하면 동 산업분야에 대한 영향력은 영어사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무역수지기여(CTB)지수, 수출경합도지수(ESI)를 기초로 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발전 유형을 분류하면 영국 모형, 미국 모형, 프랑스 모형, 그리고 독일 모형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국 모형은 보험, 금융, 통신을 핵심 산업으로 하며 여타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형이다. 미국 모형은 금융 중에서도 은행업에 경쟁력이 있고 핵심 산업이 여행,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특히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이라는 점에서 영국 모형과 구별된다. 프랑스 모형은 여행서비스를 핵심 산업으로 하고 있는 반면, 기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여행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독일 모형은 제조업 수출을 기초로 운수서비스를 핵심 산업으로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비스업 경쟁력에 기초한 OECD 주요국의 유형 분류에 기초하여 서비스업 경쟁력 선진국과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갭을 메울 수 있는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모형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운수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금융 및 IT 하드웨어산업의 이점을 기초로 컴퓨터와 정보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 전략은 선진국 경험과는 달리 제

조업에서 탈피하여 서비스국가로 전환하기보다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일부 서비스산업들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껌 매우기 전략은 비교적 손쉽게 가시적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전략이다.

영국 모형의 핵심이 되는 통신, 보험, 금융 그리고 사업서비스업은 우리나라가 이미 일정 정도 수입대체를 하였거나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이 아니라 경쟁력이 미약한 산업임을 고려할 때 영국형 서비스업 경쟁력과의 껌을 매우기 위한 전략은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중국, 인도, 동남아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업의 틈새시장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한 전략인데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부실채권시장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국 모형과의 껌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몇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기술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혁신 능력이 담보되어야 하며 영화 및 문화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등장하여야 한다. 기술혁신 역량을 장기적으로 확충하고 한국 문화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만이 미국형 서비스업 경쟁력과의 껌을 매우는 길임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긴 지평 속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수지 적자 중 여행수지 적자가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프랑스형 서비스경쟁력과의 껌을 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무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필요로 한다. 강력한 문화산업 기반조성 투자, 전시산업의 활성화, 농촌 투자사업 영역의 획기적 전환, 우리나라 자연과 어울리는 농촌 주택설계도의 보급, 호텔·여행서비스·통번역 그리고 국제회의의 코디네이션 전문서비스 기업들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전문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기업의 전략적 육성, 서남해안 도서를 이용한 국제수준의 해양 레저시설 건설, 다도해에 배낭여행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의 투자는 프랑스형 서비스경쟁력과의 껌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들이 될 것이다.

〈부표 4-1〉 자료 정리

서비스산업 분야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아 일랜드	이 탈리아	일 본	한 국	스 웨 덴	스 위 스	영 국	미 국
205 운수		○	○	○	○	○	○	○	○	○	○	○	○
236 여행		○	○	○	○	○	○	○	○	○	○	○	○
245 통신		○	○	○	○	○	○	○	○	○	○	○	○
253 보험		○	○	○	○	○	○	○	○	○	○	○	○
260 금융		○	○	○	○	○	○	○	○	○	○	○	○
262 컴퓨터 와 정보	262 컴퓨터와 정보 서비스 전반	○	○	○	○	○	○		○	○		○	○
	263 컴퓨터	○	○		○	○							○
	264 정보	○	○										○
266 특허권 등 사용료		○	○	○	○	○	○	○	○	○		○	○
268 사업 서비스	268 사업서비스 전반	○	○	○	○	○	○	○	○	○	○	○	○
	269 상업 및 무역관련 서비스	○	○	○	○	○	○	○	○	○		△	△
	272 운영리스	○	○	○	○	○	○		○			○	○
	273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274 법무회계 시장 조사 및 경영상담	○	○	○	○	○	○			○		△	○
	278 광고 및 마케팅	○	○	○	○	○	○			○		△	○
	279 연구개발	○	○	○	○	○	○			○		△	○
	280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전문 서비스	○	○	○	○	○	○			○		○	△
	281 농업 및 광업 그리고 현장관련서 비스			○	○							○	△
	284 기타	○	○	○	○	○	○			○		○	○
	285 기업간 서비스	○		○	○							○	○
개인·오락 및 문화 서비스	287 개인·오락 및 문화서비스 전반	○	○	○	○	○	○	○	○	○	○	○	○
	288 음향 영상 및 관 련 산업	○	○	○	○	○	○		○	○		○	○
	289 기타 개인·오락 문화서비스	○	○	○			○			○		△	○

주: ○는 자료가 가용함을, △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료가 가능함; 아일랜드는 2002년
도에만 자료가 완벽하게 존재함.

제5장

결론

앞에서 우리는 서비스화(tertiarization) 현황을 진단하고 분석하였으며, OECD 주요국의 서비스업 특성을 OECD 서비스 교역자료 분석을 통해 유형화해 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한편 정책적 함의와 함께 서비스업의 발전 진로를 논의해 보기로 하자.

한국경제 서비스화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1990년대 이래 한국경제는 고용과 생산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서 서비스직능을 가진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도 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재가 증가하고 있다. 제2장은 이처럼 199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특징 중의 하나인 ‘서비스화(tertiarization)’ 현상을 고찰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내용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둘째, 1980년대 이래 서비스화의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 및 생산 비중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다. 셋째,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는데 그 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크다.

이러한 분석의 정책적 함의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과 여타 후발개도국이 국제시장에서 제조품 점유율을 높여감에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은 저생산성 균형에 머물러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제약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사업서비스업은 종사자만 증가하였을 뿐 생산성 향상이 없었다. 아직 전문화가 미흡하고 제조업과 충분한 전후방 연관효과를 지니고 있지 못해 시장이 좁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을 저생산성 균형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와 같은 생산자서비스와 운송, 보관 등 물류서비스의 전문성과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충격이 필요하다.

Baumol(1967)에 의하면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에 비해 더더 서비스재의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에 따라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노동이 이동하고 서비스재 생산이 늘게 된다. 국가마다 서비스재의 소득탄력성에 큰 차이가 없다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이 더딘 나라일수록 서비스업 부문이 더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크고 생산성이 낮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특성은 이런 점에서 ‘보몰의 세계(Baumol’s World)’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구조변화의 특징은 서비스화와 함께 정보화로도 요약되는데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더뎠다는 점은 정보화가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보화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고 중간재로 사용되는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운송, 보관, 통신 등의 물류 서비스재 생산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국경제가 ‘보몰의 세계(Baumol’s World)’에서 벗어나고 한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서비스화 규정 요인과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의 서비스화는 1980년대와 1990년에 걸쳐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 함수 및 고용비중 함수를 추정을 통해 서비스화를 규정하는 원인이 경제발전에서 따른 소득 증가(수요편향가설)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더딘 데 기인한다(생산성격차가설)는 가설을 검증한다. 인구수 뿐만 아니라 노년부양비율과 같은 인구 구성변화 요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노동시장 구성변화 요인을 통제변수로 개입시켜 이들 변수가 서비스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와 함께 서비스업 하부 부문의 고용 비중 결정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기준으로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경우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비스업 전체를 하나의 부문으로 두고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소득탄력도를 측정한 결과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Clark(1940) 등이 말하는 수요편향가설을 해석, 산업화된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전망, 그리고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등을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함을 환기시키는 점이다. Clark(1940)의 가설은 경상가격으로 파악한 서비스업 비중을 염두에 둘 때에 한해 그 타당성이 인정될 뿐이다.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가져오는 가격하락효과를 고려하면 제조업의 실질적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는 매우 이질적인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정할 경우 서비스업의 다양성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서비스산업을 생산, 유통, 개인 및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추정하여 보면 수요가 소득에 대하여 탄력적인 산업은 서비스업 중 생산자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이다. 따라서 Clark(1940)의 설명처럼 서비스수요의 높은 소득탄력성과 소득 증가가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었

다는 가설은 생산자서비스와 개인서비스에서만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셋째, 인구관련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택하여 추정해 보면 인구 변화는 생산자서비스 및 유통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년부양비율 증가는 생산자서비스와 개인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개인서비스와 유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소득 증가에 따라 서비스부문이 확대된다는 Clark(1940)의 수요편향가설을 서비스업 고용비중 변화를 종속변수로 1인당 GDP 증가를 독립변수로 하여 살펴보면 소득 증가가 서비스화를 규정한다는 Clark가설을 대부분의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생산자서비스업 고용비중과 개인서비스업 고용비중의 소득탄력성은 매우 크다. 숙박·음식업을 포함하는 개인서비스업 고용비중의 소득탄력성은 과도하게 큰 반면, 도소매업의 고용비중은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의 소득탄력성도 -1.046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서비스화의 배경으로 제조업 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강조하는 Baumol(1967)의 가설은 도소매업·숙박·음식업을 제외하면 모든 서비스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Clark와 Baumol의 가설을 동시에 충족하는 서비스업은 생산자서비스업 정도에 불과하다.

네 번째에 언급한 사실 발견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함의는 숙박·음식업의 적절한 고용비중에 관한 점이다. 숙박·음식업 부문의 고용비중이 증가한 배경은 제조업이나 생산자서비스업 부문과 같이 시장기제가 상대적으로 더 작동하고 비공식 부문이 적은 부문에서 임금근로자 일자리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결과라고 해석되어 왔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보다 높은 기대소득 때문에 이들 업종에 창업이 늘었던 데 기인한다고 해석되기도 했다. 1979~2002년 기간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고용비중의 소득탄력성이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이들 개인서비스업종의 고용을 규정하는 지배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사실은 소득 증가에 따라 숙박·음식업 수요가 늘어난 정도보다 훨씬 이상으로 이들 부문的高용이 과잉 비대해졌으며 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수준을 능가했으리라고 짐작케 한다. 이러한 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숙박·음식업의 구조조정을 낳고 2003년에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이 2003년에 일시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여전히 서비스업의 자영업자 및 저생산성 기업군의 수익률 악화는 자본을 잠식하고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로 심각하고 그 상당수가 이들 숙박·음식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부문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방출되는 인력의 구직활동 보조, 재취업훈련, 그리고 신용불량자 관리나 생계비 지원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고용비중에 관한 점이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은 경제발전 과정에 따른 소득 증가라는 견지에서 볼 때 그 비중이 적절히 성장해 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 부문은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 고용은 국제비교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그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GDP 증가에 상응하게 고용비중이 증가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의 다른 쪽 대극(對極)에는 사회서비스업 고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여건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들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순간에 매우 비효율적인 형태로 사회서비스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고직능직과 사무직이 증가하는 현상은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 생산비중이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기업의 가치사슬이 서비스에서 부가가치와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 동기를 촉진하려는 국제적 규범의 일반화, 경제발전의 따른 소득 증가, 소비자의 기호 및 소비지출 구

조 변화, 제조공정 자체를 모듈화·전문화를 가능케 한 기술발전, 한 기업의 생산기지를 세계적 규모로 광역화할 수 있게 만든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은 제조공정보다는 연구개발, 디자인, 고객관리, 소비자금융 등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공정 전단계화 후단계에 위치한 서비스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증가시켜 전통적인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그림 3-2]와 같이 스마일 곡선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삼성, LG, 소니, GE, 현대캐피탈 등 글로벌 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는 경상가격으로 평가할 때에는 OECD 국가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현상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한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환언하면 실질가치로 평가한 제조업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스마일 곡선과 같은 기업의 가치사슬 변화와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초래하는 기업현장의 변화 사례들은 일자리창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는 증거들이다. 또한 Oulton(1999)이 규명하고 있듯이 서비스업의 발전이 반드시 성장률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성 높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높이는 일은 오히려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경제 전반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의 확대가 생산성 저하와 성장률 저하를 가져오는 ‘보몰의 세계(Baumol’s World)’와는 달리 서비스업의 확대가 생산성과 성장률을 증진시키는 ‘울튼의 세계(Oulton’s World)’가 존재하며 그 관건은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는 것이다.

OECD 국가의 서비스업 경쟁력 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로

제4장은 특화지수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및 주요 OECD 국가들의 서

비스 무역특화 패턴을 1990~2002년 기간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OECD 국가들을 4개의 국가군(영국 모형, 미국 모형, 프랑스 모형 그리고 독일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영국 모형은 보험, 금융, 통신을 핵심 산업으로 하며 여타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 모형은 금융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면서도 핵심 서비스산업이 여행,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오락 및 문화 서비스 특히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로서 영국 모형과 일정한 거리가 있다. 세 번째 프랑스 모형은 여행서비스를 핵심 산업으로 하고 다른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네 번째 유형은 독일 모형인데 상품의 경쟁력은 높으나 서비스 전반의 경쟁력이 여타 국가군에 비하여 뒤진다. 우리나라도 독일 모형에 속하는데 운수서비스업에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형 분류를 통해 OECD 국가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간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발전 진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갭을 메우는 비전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한 전략적 정책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경제정책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발전 전략이 될 것이고, 고용정책 차원에서는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갭 메우기 전략은 독일 모형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운수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IT 하드웨어산업의 이점을 기초로 연관산업인 컴퓨터와 정보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IT 인프라를 기초로 금융서비스업의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 전략은 여타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서비스국가로 전환하기보다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에 바탕하여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일부 서비스산업들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일부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서비스부문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시켜 나가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비교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가시적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는 갭 메우기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영국형 금융산업의 발전 과정을 뒤따라간다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업의 틈새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인도, 동남아 경제가 고도성장하는 과정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 부문에서 미국이나 영국, 스위스의 틈새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의 경험을 활용하여 이들 아시아 고도성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시장에 진출하고, 해외 사회간접자본이나 플랜트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들 동남아 시장의 확대와 함께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신흥기업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계 기업을 국내 증시에 상장시킴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작업, 이미 크게 성장한 선물·옵션시장을 교두보로 활용하여 중국 및 동남아 기업들의 선물·옵션 거래를 한국에서 활발히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실행 가능한 접근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껌 매우기 전략은 현재 급속하게 수입대체를 진행하고 있는 음향·영상 및 관련산업과 특허권 등 사용료 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에 있다. 이 경우 미국 모형과 유사한 경로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에서 기술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혁신 능력이 지속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영화 및 문화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등장하여야 한다. 비록 정보화 시대에 한국의 기술혁신 능력이나 특허출원건수가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 축적된 기술혁신 역량이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다. 또한 한류나 한국의 문화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그 지속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님을 감안할 때, 기술혁신 역량을 장기적으로 확충하고 한국 문화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미국형 서비스업 경쟁력과의 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수지 적자 중 여행수지 적자가 가장 큰 규

모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프랑스형 서비스경쟁력과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무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 보존되어 있는 문화유산의 세계적 지명도, 유럽 및 북미 선진국과의 지리적 근접도 및 여름 기후 등을 고려하면 남다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한국문화와 역사에 관한 학문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투자, 공연 등 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 전시산업의 활성화, 농촌 투자사업 영역의 획기적 전환, 우리나라 자연과 어울리는 농촌 주택설계도의 보급, 호텔·여행서비스·통번역 그리고 국제회의 코디네이션 전문서비스 기업들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전문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기업의 전략적 육성, 서남해안 도서를 이용한 국제수준의 해양 레저시설 건설, 다도해에 배낭여행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의 투자는 프랑스형 서비스경쟁력과의 갭을 메우기 위한 이니셔티브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력적 고려에서 나아가 제조업 기업이 R&D·디자인·광고사업 부문의 분리를 통해 자신의 모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 법률법인이 대형화 내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법률은 물론 회계·세무 및 시장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중소기업의 경우 협회 및 정부 지원을 부가하더라도 해외시장의 경우 KOTRA와 수출입은행의 자료, 정보, 지식 및 전직 직원을 네트워킹하고, 시장조사와 회사 설립·조세·노동법에 관한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을 유도하는 것 등은 기업가들과 경제 및 산업정책 수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가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들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면 생산성과 성장의 선순환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경제자문회의(2006),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축약본, 『나라경제』 통권 제184호, pp. 94~123.
- 권남훈·김종일(2002), 「최근 한국의 고용구조 변화의 특징과 정보화의 역할」, 『경제학연구』.
- 김종일(2006),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mimeo.
- 매일경제신문(2006), 「아시아, 금융신천지로 뜬다」, 9월 4일 제1면.
- 서환주·이영수·허재준(2006), 「OECD 국가의 서비스업 경쟁력 분석을 통한 한국 서비스업 발전 진로 모색」, mimeo.
- 서환주·허재준·이영수(2004), 「ICT확산, 기업조직, 제품차별화, 숙련 노동의 보완관계」, 『경제학연구』 52 (2), pp. 33~65.
- 서환주·허재준·전병유·이영수(2004), 「정보통신기술확산이 임금불평 등의 한 원인인가?」, 『국제경제연구』 10 (1), pp. 169~183.
- 신현수·이원복(2003), 『한·중·일 제조업 경쟁력의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 안정화·서환주, 「해외 아웃소싱의 진전과 숙련구성의 변화」, 노동경제학회,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오근엽·유지만(2006), 「한중일 정보통신 산업의 무역구조 특성비교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13 (2), pp. 81~108.
- 오준병(2005),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요인분석: 탈공업화논의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53 (1), pp. 155~174.
- 이공래·박재민·황정태·김은경(2002), 『지식집약적 서비스부문의 혁신특성과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인재(2006), 「고용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18주년 기념토론회 발표논문.

- 이종화·송철중(2005), 「한국경제요인의 산업별 분석, 1970~2001」, 『경제학연구』 53 (2), pp. 99~144.
- 진양현(2006), 「성장잠재력, 서비스산업 경쟁력,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나라경제』 통권 제184호, pp. 50~54.
- 한국개발연구원(2006),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 허재준·서환주·이영수(2002), 「정보통신기술투자와 숙련노동 수요변화」, 『경제학연구』 50 (4), pp. 267~292.
- Appelbaum Eileen and Ronald Schettkat(2001), “Are Prices Important?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Industrialized Economies,” in Ten Raa and Ronald Schettkat (eds), *The Growth of Service Industries*, Edward Elgar.
- Arellano, Manuel and Stephen Bond(1991),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 pp. 277~297.
- Autor, David H., Lawrence F. Katz and Alan B. Krueger(1998), “Computing Inequality: Have Computers Changed the Labor Marke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p. 1169~1213.
- Baily, Martin N. and Robert Z. Lawrence(2001), “Do We Have a New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91 (2), pp. 308~312.
- Baumol, William(1967),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57 (2), pp. 415~426.
- Berman, Eli, John Bound and Stephen Machin(1998), “Implications of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ternational Evid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p. 1245~1279.
- Berman, Eli, John Bound and Zvi Griliches(1994), “Changes in the

- Demand for Skilled Labor with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p. 367~398.
- Clark, Colin(1940),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London: Macmillan.
- Colecchina, A. and G. Papconstantinou(1996), “The Evolution of Skills in OECD Countries and the Role of Technology,” STI Working Paper 1996/8, OECD/GD(96)183.
- D’Agostino, Antonello, Roberta Serafini and Melanie Ward-Warmedinger(2006), “Sectoral Explanations of Employment In Europe: The Role of Services,”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Series, No. 625.
- Elfring, Tom(1989), “New Evidence On the Explanation of Service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c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5 (4), pp. 409~440.
- Falvey, Rodney E. and Norman Gemmel(1996), “Are Services Income Elastic? Some New Evidenc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2 (3), pp. 257~269.
- Feenstra, Robert (1998), “Integration of Trade and Disintegration of Production in the Global Econom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4), pp. 31~50.
- Fixler, Dennis J. and Donald Siegel(1999), “Outsourcing and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pp. 177~194.
- Freund, Caroline and Diana Weinhold (2002), “The Internet an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merican Economic Review* 92 (2), pp. 236~240.
- Gadrey, Jean(2000), “The Characterization of Goods and Services: on Alternative Approach,”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6 (3), pp. 369~387.
- Gadrey, Jean(2003), *Socio-économie des services*, La Découverte,

- Paris.
- Hill, Peter(1977), "On Goods and Serv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3 (4), pp. 315~338.
- Lafay, G.(1987), "La mesure des avantages comparatifs révélés", *Economie prospective internationale*, No.41.
- OECD(1998), *Technology,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Best Policy Practices*, Paris: OECD.
- Oulton, Nicholas(1988), "Must the Growth Rate Decline? Baumol's Unbalanced Growth Revisited," Working Paper 107, London: Bank of England.
- Petit, Pascal(1988), "La Croissance Tertiaire", *Economica*, Paris.
- Pilat, Dirk and Anita Wölfl(2005), "Measuring the Interaction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s," STI Working Paper 2005-5, OECD, Paris, ten Raa, Thijs and Edward D. Wolff (2001), "Outsourcing of Services and the Productivity Recovery in U.S. Manufacturing in the 1980s and 1990s,"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16, pp. 149~165.
- Rowthorn, Robert and Ken Coutts(2004), "De industrialization and the Balance of Payments in Advanced Economi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8, pp. 767~790.
- Summers, Robert(1985), "Servic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in R.P. Inman (ed.), *Managing the Service Economy: Problems and Prospe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ölfl, Anita(2003),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 Industries An Assessment of Recent Patterns and the Role of Measurement," STI Working Paper 2003~07, Paris: OECD.
- Wölfl, Anita(2005), "The Service Economy in OECD Countries," STI Working Paper 2005-03, Paris: OECD.
- Wölfl, Anita, "The Service Economy in OECD Countries(2005)," STI Working Paper 2005-03, Paris: OECD.

◆ 執筆陣

-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환주(한양대학교 경상대 경영학과 부교수)
- 이영수(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서비스업 고용

- | | |
|-----------|---|
| ▪ 발행연월일 | 2007년 5월 28일 인쇄
2007년 5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최 영 기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 대표 (02) 782-0141 Fax:(02) 786-1862 |
| ▪ 조판 · 인쇄 | 한컴닷컴 (02) 5444-113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7356-619-8